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이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ira.or.kr
http://www.kira.or.kr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0601

신년사

칼럼

정관개정, 왜 졸속으로 서두르고 있나?

회원작품

SKT-Tower

모세골 성서연구소

DBEW디자인센터

광주 J 유치원

한국 증권거래소 별관 리모델링

안국선문화원

작품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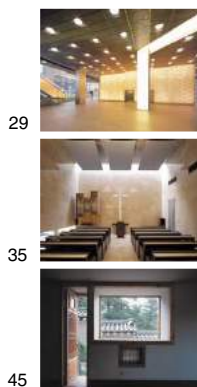
대구대학교 50주년기념관

200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2006년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표지사진 DBEW디자인센터

Contents



29

35

45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치레 2006 01 441호

신년사	이철호	14
칼럼	정관개정, 왜 졸속으로 서두르고 있나?	김영수 16
시론	청계천과 한강	이상훈 20
건축만평	유원재	23
회원작품	SK T-Tower	김정철 + 부대진 + 아론 탄 24
	모새골 성서연구소	최동규 30
	DBEW디자인센터	김석철 38
	광주 J 유치원	한진수 46
	한국 증권거래소 빌딩 리모델링	안길원 · 서학조 + 김광배 52
	한국신문화원	박 건 + TADAMASA KANO 58
작품노트	대구대학교 50주년기념관	윤철준 64
계획작품	제피로스골프장 클럽하우스	이종욱 70
설계경기	서울북부지방법원청사 외	74
기고	풍수지리로 본 피라미드와 그리스 건축미술의 기하학 03 (원) 박시익	82
건축마당	협회소식	88
	건축계소식	96
	건축인터넷정보	107
	통 계	110
	자재소식	112
	2005년 총 목차	114
	해외잡지동향	116

발행인 이철호
 편찬위원 장양순, 손기찬, 유원재, 박호건,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85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인쇄 (주)영림인쇄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50



55



60

Korean Architects

Vol. 441

January 2006

Newyear address 14

Column

Revision of Article: Why the Rough-and-Ready Procedure? Kim Young-soo 16

Current view

Cheongnyecheon and Hangang Lee Sang-hoon 20

Cartoon

Yoo Won-jai 23

Works

SK T-Tower Kim Jeong-cheol + Bu Dae-jin + Aaron Tan 24

Mosaegol Bible Research Center Choi Dong-kyu 30

Hanssem DBEW Design Center Kim Seok-cheol 38

Gwangju J kindergarten Han Jin-su 46

Annex of Stock Exchange remodeling Ahn Gil-won & Seo Hak-jo + Kim Gwang-bae 52

Ahnkook Zen Culture Center Park Geon + Tadamas Kano 58

Design Note

50th Anniversary Memorial, Daegu University Yoon Chul-joon 64

Process works

Zephyros CC. Club House Lee Jong-wook 70

Competition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etc. 74

Feature

Geometry and Philosophy of Pyramid and Greek Architectural Art Seen through Fengshui

Park Si-ik 82

Architects' Plaza

Kira News 88

Archi-Net 96

Archi w.w.w 107

Statistics 110

Product News 112

2005 Annual Index 114

Overseas Journal 116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Sohn Kee-cha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on, Shin Ho-gue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철호

희망찬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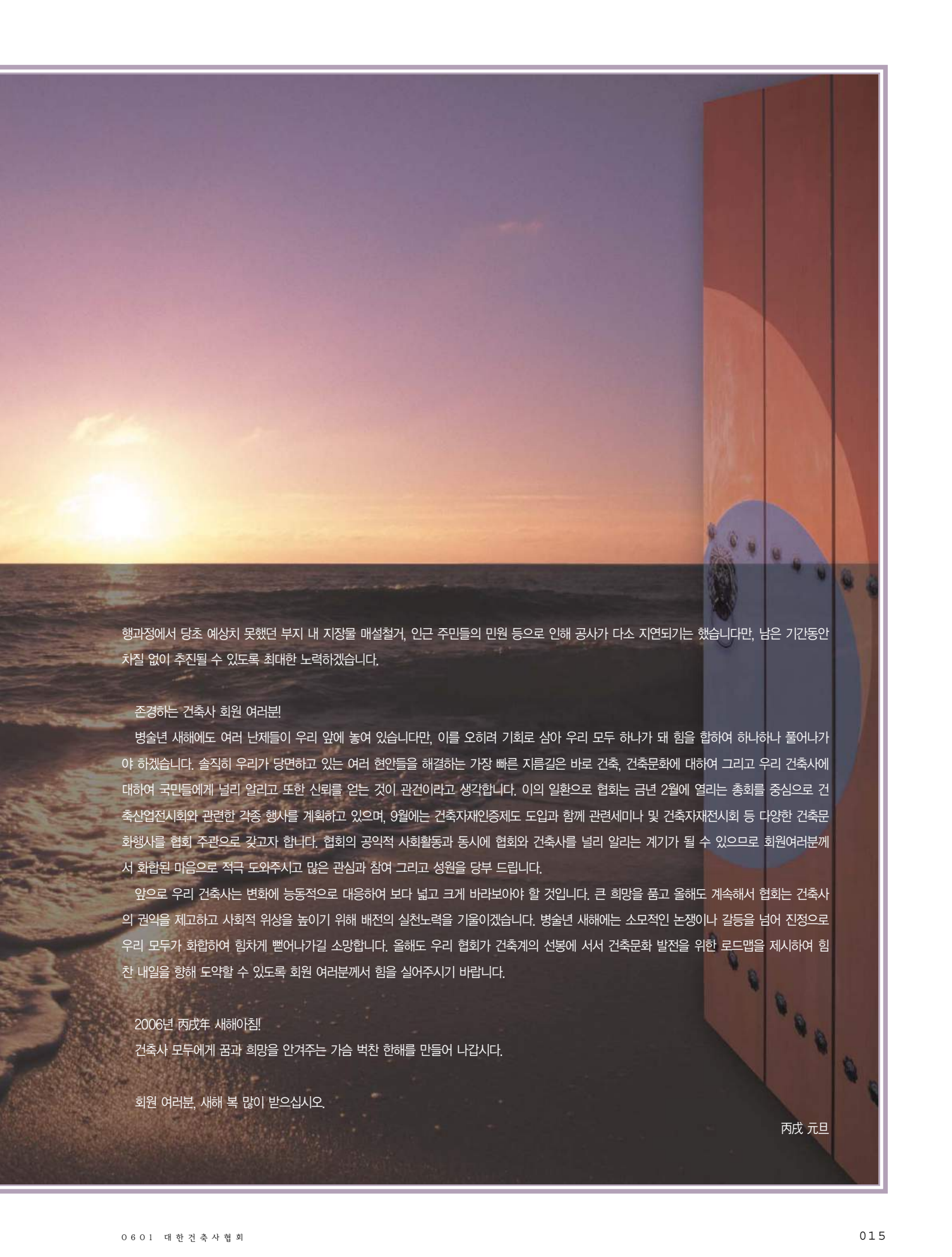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큰 기쁨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지난 한 해 동안 건축계 발전을 위해 끝없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신 건축사 회원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돌이켜볼 때, 지난 한해는 우리 협회가 정말 안팎으로 분주한 해였습니다만, 회원여러분께서 흡족해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만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회 창립 40주년이기도 했던 2005년은 건축사 4,500여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12년 만에 전국건축사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였고, 건축법 제19조의 개정으로 건축사의 의무설계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우리 건축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던 대형건설사의 설계겸업문제로 일단 협회의 강력한 저지활동으로 일반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문제나 전기·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문제와는 달리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올해 5월 다시 논의키로 해 유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협회는 경향하우징페어, 홈덱스 등 건축산업전시회에 참여하여 대국민 건축상담과 홍보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금년 한 해는 설계겸업문제로 더불어 각종 현안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건축계가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협회의 주요 사안들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진행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사안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며, 장기적인 것은 건축사 및 협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국민들에게 중점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이 앞당겨 달성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입니다.

작년 매듭짓지 못한 사안들인 설계겸업문제, 건축사의 의무설계 대상조정문제, 설계자의 감리금지 규제법안문제, 정관개정문제 등을 완결하여 협회가 그야말로 '건축사에게 긍지와 희망을 주는 힘있는 협회'로 거듭나는 원년의 해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국제문제에 있어서는 올해 9월부터 2년 간은 우리 협회가 1985년부터 회원단체로 가입·활동하고 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회장국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빌어 우리 협회의 국제적 역량을 심분 발휘하여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UIA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APEC건축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나라 건축사가 해외 진출시 상대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한 각종 제도의 개선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는 전 회원이 그토록 염원하던 건축사 회관이 새로이 준공됩니다. 그간 진



행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부지 내 지장물 매설철거,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공사가 다소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축사 회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에도 여러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만,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우리 모두 하나가 돼 힘을 합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건축, 건축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건축사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협회는 금년 2월에 열리는 총회를 중심으로 건축산업전시회와 관련한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9월에는 건축자재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관련세미나 및 건축자재전시회 등 다양한 건축문화행사를 협회 주관으로 갖고자 합니다. 협회의 공익적 사회활동과 동시에 협회와 건축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회원여러분께서 화합된 마음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건축사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넓고 크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 희망을 품고 올해도 계속해서 협회는 건축사의 권익을 제고하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배전의 실천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을 넘어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화합하여 힘차게 뻗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올해도 우리 협회가 건축계의 선봉에 서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힘찬 내일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丙戌年 새해아침!

건축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가슴 벅찬 한해를 만들어 나갑시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丙戌 元旦

정관개정, 왜 졸속으로 서두르고 있나?

Revision of Article: Why the Rough-and-Ready Procedure?

건축사지 05년 12월호 칼럼(정관개정, 두려워하지 말자/전영철)을 읽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 바, 더욱이 칼럼의 말미에 공청회에 참석했던 원로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에, 그곳에 있었던 필자로서는 회원들에게 정관개정의 허실과 졸속성 그리고 그 비현실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정관개정의 개정(改正)이란 말은 바르게 고친다는 뜻이다. 바르지 않다면 개악(改惡)이 된다. 그것도 고치는 시기가 또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생업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바르게 고칠려면 협회를 잘 알아야 하고, 회원들의 폭넓은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우리도 불안하고 사회도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더군다나 적절치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를 걱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끝까지 초지일관으로만 밀어붙이는 법제위원회의 일방통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물며 법제위원회에서조차도 월가월부가 극심하고, 어느 법제위원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회장에게 회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까지 와 있다.

공청회 때 그 많은 이견들과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린 법제위원회에서 모두 묵살해 버렸더니, 도대체 협회와 정관은 누구의 뜻과 마음대로 움직이며, 공청회는 또 왜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협회 회장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법제위원회에 그 책임을 넘기고 있으니 정말 딱한 노릇이다. 마치 정관개정을 위해 존재하는 협회처럼 일방통행으로만 밀고 간다면, 도대체 건축사는 어떻게 하고, 또 건축사협회는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개혁은 구호와 선동만으로 안 된다.

개혁(改革)이란 말, 너무나 귀에 솔깃하고 감동적이다. 발전의 에너지가 되고 통합의 시너지효과 또한 대단하다. 절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왕왕 식상하고 허탈감에 빠질 때가 비밀비재하다. 그런데 이번의 정관개정(?)이 또 개혁의 가치를 앞세우고만 있다. '너는 반대해도 나는 간다.'는 식의 정치논리 같아서 마음이 서글프다. '과거는 보수고 현재는 진보'라는 코드논리라면 더욱 머리가 아프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을 믿고 싶다. 이 어려운 시기에 협회에 할애하는 시간이 고맙고, 회원에 봉사하려는 그 마음만은 가늠해서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도 아님을 회원들께서도 잘 알아주리라 믿는다.

필자는 다시 그들의 시간과 마음에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좀 더 숨을 고르고 정관다운 정관, 개정안다운 개정안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정관개정, 두려워하지 말자'는 전호의 칼럼제목은 어딘지 선동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을 지울 수가 없다.

왜 하필이면 금년 2월 총회가 그 시한인가? 내년엔 회장선가가 있으면 또 어떨단 말인가? 서두르면 졸속이 되고, 졸속은 또 시행착오만을 남길 뿐인데도 말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어느 누구의 선동에 따라 좌초할 수가 없고, 한국의 건축 미래가 어느 일방의 구호에 의해 자멸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건축사의 지혜는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고, 건축사협회의 양심은 아직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관의 목적과 사업이 허황된 꿈이어서는 정말로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협회의 정관이 나빠서 우리 건축사가 잘못되어 가는 것도 아니고, 정관의 목적과 사업이 명문화되지 않아서 우리 협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새로이 추가하자는 방송 사업이나 통일교류 사업을 우리 회원 어느 누가 싫어하겠는가?

건축박물관, 건축체험관, 자재전시장도 마찬가지다.

어느 것 하나라도 챙기고 다듬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수지계산을 맞추지를 연구부터 해야지 정관속의 빛 좋은 개살구로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이를 두고 회원과 협회가 서로 무능함을 되씹고 다투는 어리석음의 계속만은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관 속에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돈이 모자라서 못한 일일 뿐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거창한 사업들은 우리 자체의 능력보다는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난 호에 언급한 또 다른 개정이유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지금 당장 시도하지는 못하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라고 했다. 필자 생각에는 그 때의 후배들은 그들의 시대정신에 맞는 목적과 사업들이 별도로 있을 것이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고스란히 활자로만 넘겨준 부끄러운 선배임을 미리 폭로라도 하자는 말인지 구차하기 짝이 없다.

회장의 직선제 선출,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회장을 회원 전체가 직접선거로 뽑자는 생각을 어느 누구도 나쁘다 할 사람은 없다.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선거제도의 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협회의 여건상 과연 이러한 무리수를 감행해도 좋은지 그리고 이상을 좇다가 어느 한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그 혼란스러움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현재 우리 회원이 8천여 명이라면 앞으로 1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직접선거를 치를 예산을 해야 한다. 2년마다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는 장소와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지난 부산대회도 여러 이유와 사정 때문에 13년만에 재개되었고, 그나마 부산의 다른 행사에 끼워 맞춘 대회였다. 대회에는 수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수백의 버스와 수천의 호텔 방이 확보돼야 치를 수 있는 거대한 행사다.

회장 직선제를 위해서는 전국건축사대회의 정례화와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협회의 수장선출이 연기되고 무산될 수밖에 없다. 큰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좀 더 중요한 것은 회원의 협회참여도이다. 협회가 먼저 회원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의 협회 형편이나 분위기에서는 회장직선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욱 더 훌륭한 회장, 좀 더 큰 인물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설익은 감은 떼기만 하고,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꿰어 못쓰는데 왜 이렇게 허겁지겁 하는지 알 길이 없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그야말로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T왕국에 걸맞는 인터넷 전자투표를 운운하고도 있으나 어느 단체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다. 회장 선출이 모험의 대상이 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안될 꿈이라면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될 꿈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실히 보여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16개 시·도건축사회장은 당연직 이사라니?

사실 정관개정안은 여러 번 총회에 상정된 바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시·도회장의 당연직 이사 진출이었다. 물론 줄줄이 부결되었다. 그런데 또 들고 나온다. 이번에는 정관의 목적과 사업까지 전면개정이라고 할 만큼 과대포장하고는 숨은 듯 그 고개를 내밀고 있다. 꼬리가 하도 길어서 감추어지지 않는데도 말이다.

얼른 듣기에는 무척 합당한 말인 것 같이 보인다. 시·도회장이 맡고 있는 해당 시·도의 일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을텐데, 서울까지 출장 와서 본부 일까지 도맡아 하겠다니 얼마나 고맙고 눈물겨운지 모를 정도다.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도 걱정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경험해 본 필자로서는 인간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보았기 때문이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만이 이사의 직책일 수 없다. 협회의 제반 대소사와 현안문제를 직접 보고 챙기는 역할이다. 서울의 이사들도 제대로 해내기가 쉽지 않다. 지방 일까지 의욕이 너무 과도한 것도 회원이 바라는 바는 아니다. 거기에서 이사회 회의비는 지방 출장비와 거마비 기준이라 몇 배는 증가될 것도 예상로운 일은 아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름이 아니다. 본부 이사회라는 최고의결기구의 반수를 휘어잡고, 각 시·도의 행정집행권까지 모두 가진다고 생각해 보자. 과연 합당한 조직이고 능률적인 시스템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삼권분립은 왜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장관회의에 각 시·도 지사들이 모두 참여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지금 15명의 이사로도 난상토론이나 의견대립이 왕왕지시인데, 각 시도의 이해관계까지 뒤엎힌 35인의 이사회를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는가? 지금도 1/3이 지방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런 문제없이 40년의 협회 역사를 잘 지키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또 하나 형평성의 큰 문제가 남는다. 백여명의 회원을 가진 지방회장과 삼천여명의 서울회장이 똑같은 구실밖에 못한다면 수리상 맞는 말인가? 서울의 강남건축사회만 해도 천오백의 회원이고, 적은 시도보다 더 많은 회원을 가진 전국의 분소도 얼마든지 많다. 정관개정 후 너도 나도 이사배정의 동등권을 주장한다면 이미 임의단체로 전락한 우리 협회의 앞길은 더욱 가늠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동안 우리 협회 안에서는 일본의 전국건축사연합회 제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고, 협회의 자립기반 확충과 발전시스템 확보에도 많은 역량을 쏟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통제시스템에 밀리고, 예산 타령에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이 솔직한 고백이다. 차라리 이러한 시대변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구태의연한 자기 뒀 챙기기로는 우리의 자화상이 너무나 가엾지 않은가를 묻고 싶다.

상근이사 2명 도입은 사무처 축소에 역행할 뿐이다.

회원이 어려운데 협회인들 어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산편성도 그렇고 회비수입도 여의치 않다 들었다. 좋은 때면 또 몰라도 이러한 악조건 밑에서 상근이사를 2명이나 새로 영입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계속 사무처를 축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찬반숙에서도 아직까지 상근부회장 제도를 유지하는 고충을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재의 사무처효율을 더욱 높이는 방안과 임원의 협회 역할론을 더 끌어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껏 우리 협회가 견지해온 사무국 능률화에는 정반대의 입장이라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된다. 역대에 가까운 인건비에 업무추진비까지 그 증액예산만도 지금의 사정으로는 만만치가 않다.

서울의 노조운동도 보고 있지 않는가? 사무처 기구와 인력수급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선행되어야지, 정관개정에 삽입운운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임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회원의 의무는 당연하지만 권리는 그 보다 더욱 중요하다.

몇 년 전부터 총회에서는 회원제명이라는 묘한 일이 이어졌다. 회비납부의 의무를 장기간 해태했으니 그 이유야 충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려우면 자존심과도 같은 그 정도의 회비조차 낼 수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연민의 정이라도 보낼 수는 없는지가 아쉽게 남는다.

경기가 좋을 때라면 불량이나 부실회원을 고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불황과 폐업직전에서는 가슴 저미는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나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회원이나 원로회원 그리고 또 젊은 건축사가 바로 그 불명예의 대상자이다. 그동안 협회를 위해 쌓아온 공적이나 회비납

부액에 대해서 그래도 아량을 베풀 줄 아는 동료회원이고, 불황을 이기고 꿈을 키우려던 젊은 후배건축사를 조금이나마 배려할 수 있는 우리 협회이면 어떨까하고 다시금 생각해 본다.

물론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을 두둔할 뜻은 조금도 없다. 조직을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회비임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몇 명의 제명도 남의 눈에는 큰일이거늘 몇백명을 한꺼번에 내몰아쳐도 괜찮은 것인지 의구심이 앞섬을 숨길 수가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건축사회의 법적 충족요건을 채워주는 일이라 선악의 구분조차 희미해진다.

정관개정안에서 회비납부의 형평성을 고려해 미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그 뜻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위에서 말한 것도 한번 되새겨보고 '베푼만큼 얻는다'는 진언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았으면 하는 말이다. 처벌강화규정에 앞서 무엇보다도 회비를 내고 싶을 정도로 협회가 회원을 위해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주어야만 한다. 더불어 10여 년 전부터 회비 없는 협회를 모토로 재검토해온 수익사업과 협회시스템의 구축도 더없이 긴급한 일이다.

신뢰받는 집행부만이 우리 협회의 살 길이다.

국가의 헌법만큼 우리 협회의 정관도 중요하다. 헌법개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보고 있으면서 정관개정은 이렇게도 쉽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재촉해야 할 일은 건축사의 정체성에서부터 건축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연구하고 다듬는 일이다. 그런 연후에 정관에 담아도 조금도 늦지 않다. 우리 정관을 누더기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덧붙이는 말이다.

최고수 운운하며 아전인수격으로 외세를 끌어 들이고, 원로 운운하며 무엇이 개혁인양 왜곡하고, “두려워하지 말자”면서 불때로 밀어 붙이려는 일방적 언행은 그야말로 우리 건축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협회를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론과 실제, 연구와 토론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산적한 협회의 현안문제부터 하나 둘씩 회원의 신뢰를 얻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이라는 속어도 있고, 제사보다 젓밥이라는 옛말도 있다. 생업을 뒤로 하고 신뢰를 거꾸로 하고서는 정관개정의 당위성도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건축사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건축사협회인지, 그 믿음만은 정녕코 저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어도 모자라는 힘이다. 위원회도 집행부도 회원의 뜻을 뒤로 하고서는 아무런 존재가치도 없다. 자랑스러운 건축사, 당당한 건축사협회를 다시 한 번 되뇌이면서 아무쪼록 깊은 성찰과 아량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 이 기회를 빌어 회원 여러분에게 더욱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 본다. 📖

청계천과 한강

Cheongnyecheon and Hangang

고가도로와 복개도로에 가려 사라졌던 청계천이 복원되어 맑은 물이 흐르게 되자 전 국민이 야단법석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청계천이 되살아난 지 58일 만에 청계천에 구경 온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자랑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성공하게 추진되면서 많은 문화유산이 훼손되었고, 한강물을 모터로 끌어 올려 흘려보내는 인공하천이기 때문에 생태계 복원에도 실패했다고 폄하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청계천은 길이가 짧아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기 때문에 깊이 40cm의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청계천에 물이 흐르자 곤충과 물고기가 돌아왔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도 되돌아 왔다. 청계천을 따라 바람 길이 되살아나 대기 질이 향상되었고, 주변의 온도도 낮아져서 이른바 열섬현상을 완화시켰다고도 한다. 청계천은 도심에서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시민들에게는 좋은 쉼터가 되고 외국인에게도 좋은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차제에 시내에 있는 31개 하천 모두를 복원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인기 상승에 고무되어 경부운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또한 한강의 개발을 시사하였다고 한다. 건설회사 출신답게 대권후보로서 건설 사업에 승부를 걸 모양이다.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도 너도 나도 한강개발을 언급하고 있다. 한강변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수상교통을 활성화한다, 강남·북 연결 보행자 전용다리를 만든다, 중랑천을 서울의 세느강으로 만든다 등등. 한강은 1980년대에 진행된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최대의 변화를 맞을 것 같다.

낮에 보는 한강은 강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볼품이 없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한강을 가로 지르는 26개의 다리는 각각 특성에 맞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특색 있는 야간조명을 설치했다. 앞으로 워터스크린(얇은 물방울을 스크린으로 이용하는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한강변 여러 곳에서 야간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영상 쇼를 보여준다면 한강은 세느강 못지않은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물을 바라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미국의 조경 학자 울리히는 물로 가득 찬 경관을 바라보는 것이 스트레스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물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자아 재충전, 스트레스 감소, 적대적 상황에서의 공격성 둔화 등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는데, 이런 효과는 불과 4~6분만 물을 바라보아도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복원된 청계천은 도시인을 행복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5일제 실시 이후 주말에는 도로가 막혀서 서울을 벗어나 바닷가나 명승고적을 방문하는 일이 더욱 힘들어졌다. 그래서인지 주말에 서울



청계천 © 진효숙

근교의 가까운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한강을 잘 가꾸기만 하면 서울시민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을 방문하고 한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울은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강은 행주대교 아래에 있는 신곡수중보와 잠실수중보 때문에 강폭이 넓어지고 유속도 느려졌다. 런던의 템즈강이나 파리의 세느강을 가본 사람은 우리의 한강이 얼마나 넓으며 유유히 흐르고 있는지를 실감할 것이다. 더욱이 한강에는 3개의 작은 섬이 있다. 서울시 생태계보전지역 제1호로 지정된 밤섬은 세계적인 도심 속 철새 도래지로서 지난 3년 간 멸종위기의 야생종 매와 천연기념물 원앙, 황조롱이를 비롯해 큰기러기, 가창오리, 참매 등 조류 77종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제2한강대교가 지나가는 선유도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져 있고, 제1한강교가 지나가는 노들섬은 서울시에서 5,000억원을 들여 문화예술센터로 만드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심포니홀, 청소년야외음악당 등이 들어서게 되면 노들섬은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어의 제6편 〈옹야편〉 21절에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자요수 인자요산 (知者樂水 仁者樂山)’

즉 지혜 있는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처럼 느리지만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자도덕경 제8장에서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상선약수 (上善若水)’ 즉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처럼 사는 삶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노자 역시 물을 칭찬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물처럼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고 물으면 사실 대답이 막힌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조금하지 않게, 느리게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현대인의 삶은 느릴 수가 없다.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터넷이 보급되어 정보화 시대가 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더 바쁘고 더 경쟁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여 지난해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보니 올해의 목표는 10% 상향 조정되고 사장님은 시무식에서 올해에는 더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라고 훈시를 한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달력에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서 휴일이 없다고 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본다.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유유히 흘러가는 강의 모습은 아니다. 물은 서두르지 않는다. 물은 다투지 않는다. 물은 바쁘다고 뛰지 않는다. 그렇지만 멈추지도 않는다. 강물은 느리지만 쉬지 않고 바다라는 목표를 향하여 흘러간다. 그야말로 물처럼 흐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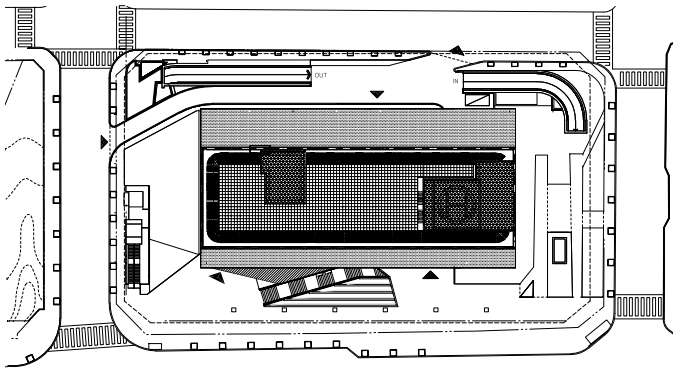
청계천과 한강이 잘 개발되어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사람보다 물을 바라보고 물과 친해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

SK T-Tower

SK T-Tower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특선 수상작〉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5,914.4㎡
건축면적	2,187.73㎡
연면적	60,636.41㎡
건폐율	36.89%
용적률	1,025.23%
규모	지하 6층, 지상 33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THK28/THK36.76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단열바
설계담당	정림_김혁, 김동열, 정원진, 정태용, 이영민, 윤규섭, 채경현 진아_이승열, 정원호
감리담당	황요한, 최상기, 지영규, 이장원
전기설비	정명기술단
구조설계	창민우구조
기계설비	삼신설비
인테리어	(주)민설계, RAD(홍콩)
시공사	SK건설(주)
건축주	SK텔레콤(주)
설계기간	2001. 8 ~ 2004. 12
공사기간	2000. 12 ~ 2004. 12



Location	11, Euljiro2-ga, Jongno-gu, Seoul, Korea
Site area	5,914.4㎡
Bldg. area	2,187.73㎡
Gross floor area	60,636.41㎡
Bldg. coverage ratio	36.89%
Gross floor ratio	1,025.23%
Structure	S.R.C
Bldg. Scale	six stories below ground, thirty-three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1. 8 ~ 2004. 12
Construction period	2000. 12 ~ 2004. 12



1. 남서측 주출입구
2. 남동측 전경



SK T-Tower는 SK텔레콤이라는 기업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한 건축적 시도로 볼 수 있다. 재개발 초기의 여러 계획안들과 최종안 사이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으로 을지로 입구 옛 SK빌딩을 대신하고 있다. 고객에게 인사하는 듯한 외관의 세련된 형태는 푸른색의 커튼월과 맞물리면서 도심에 새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초기계획은 건물을 공공구역, 일반구역, 특수구역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건물은 이 세 부분이 관계를 맺고 통합되어 하나의 얼굴로서 작용한다.

입면 또한 SK텔레콤이라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커뮤니케이션뿐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보 사회화를 추구하겠다는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건물형태상의 굴곡은 사회 각 방면과 소통하려는 의지이면, 커튼월의 불규칙한 각도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과 대화, 소통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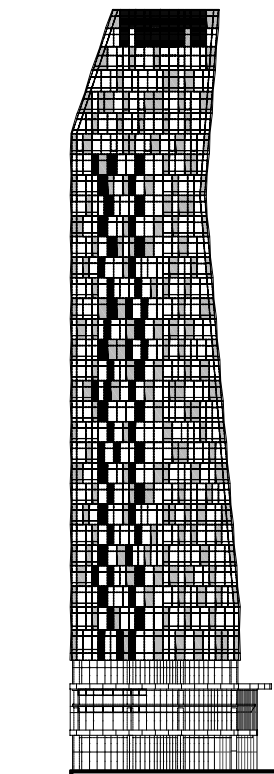
의미부여를 통해 윤곽이 잡힌 형태를 개념에 부합하는 공간구성으로 다듬어 갔는데, 지하주차장과 더불어 지하 1, 2층에 직원복지시설, 1층 로비, 2층 고객용 로비, 사무공간층, 임원층 등으로 배치 되었다.

입면에서의 저층부는 Rib에 의한 커튼월을 사용했고 상층부에는 유닛 타입의 커튼월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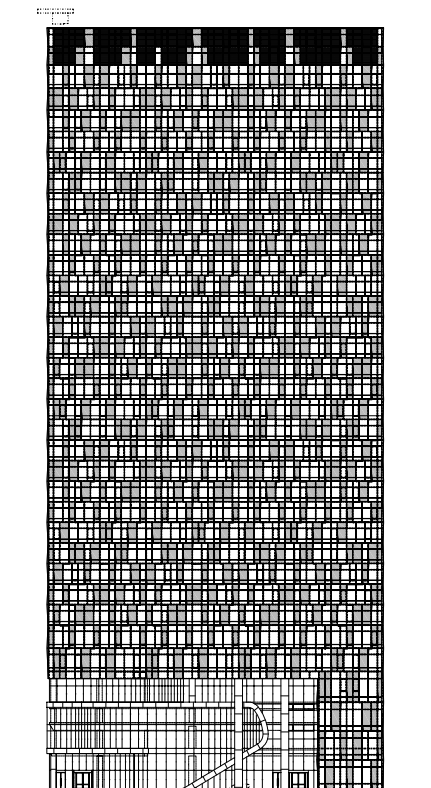
초기에는 공사와 계획설계를 병행하여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다. 오피스빌딩의 기본 구성인 코어와 스펠, 외부의 기본 매스가 결정되고 구조도면이 완성된 후에야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홍콩과 서울을 빈번히 오가며 홍콩 설계팀과 많은 협의를 걸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는 하나의 건축으로 완성도를 높여갔다. 특이한 구조 때문에 공사 중에 건물이 넘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고, 심의 때는 잘 다듬어진 입면을 왜 변경하느냐는 질타를 받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건물이다. 그 우여곡절만큼이나 SK T-Tower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심 속의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상징으로 각인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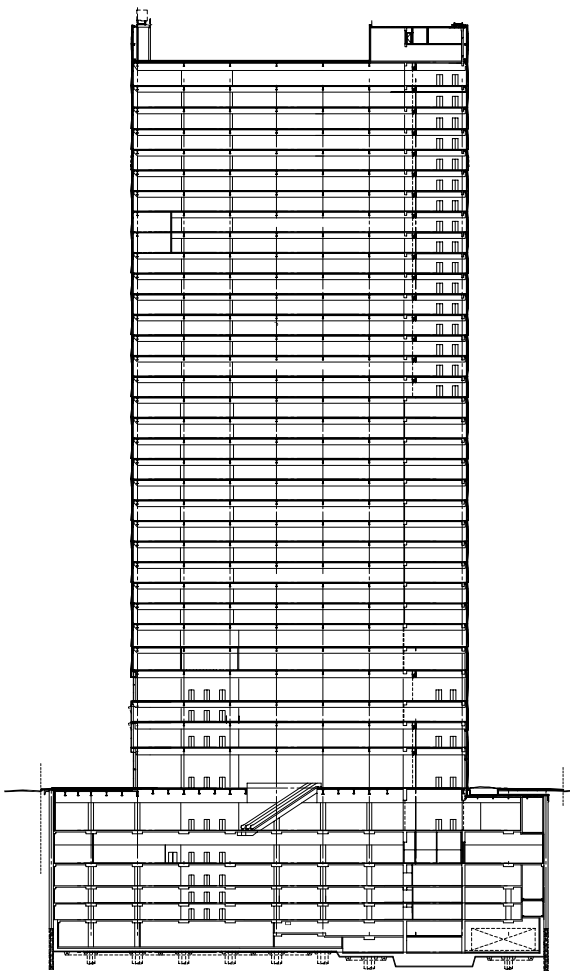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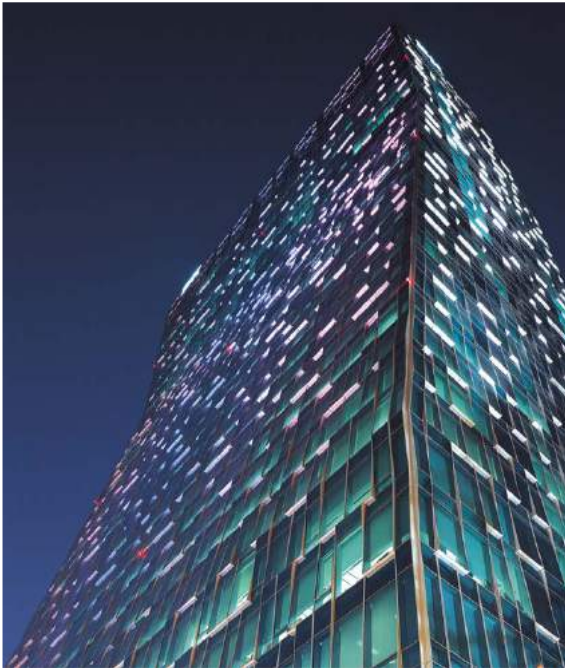
1. 저층부 정면
2. 남동측 상부 야경
3. 남서측 전경
4. 남측 기로면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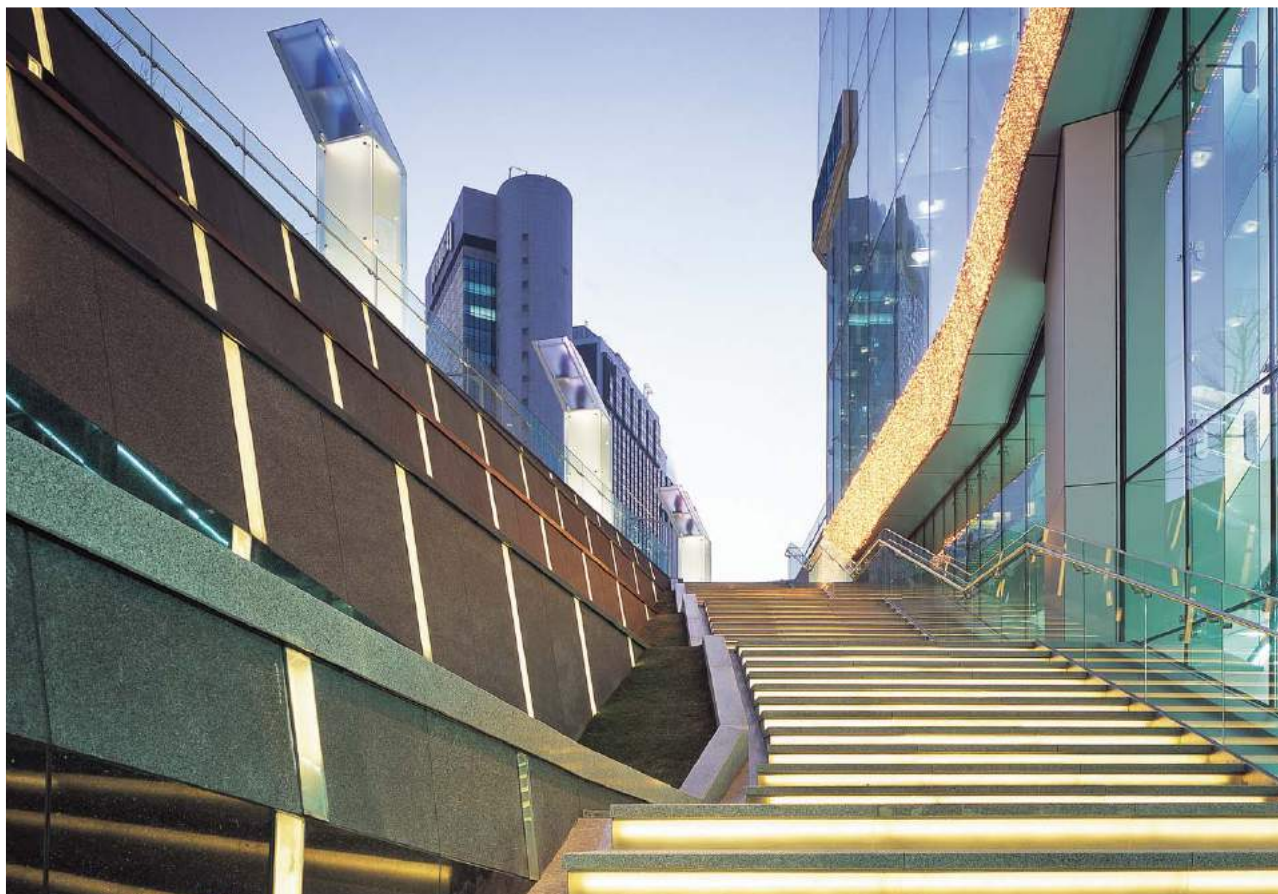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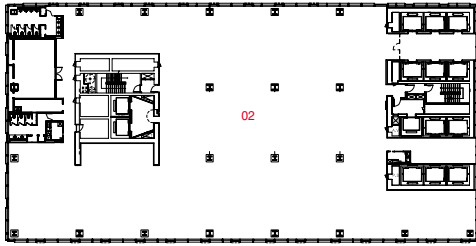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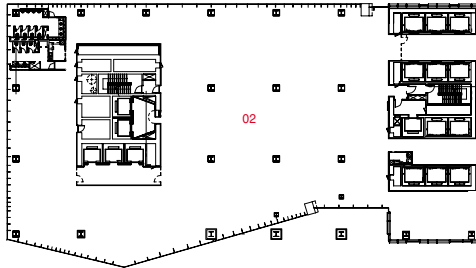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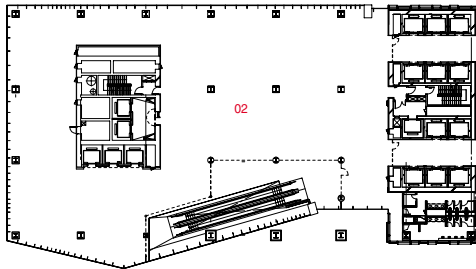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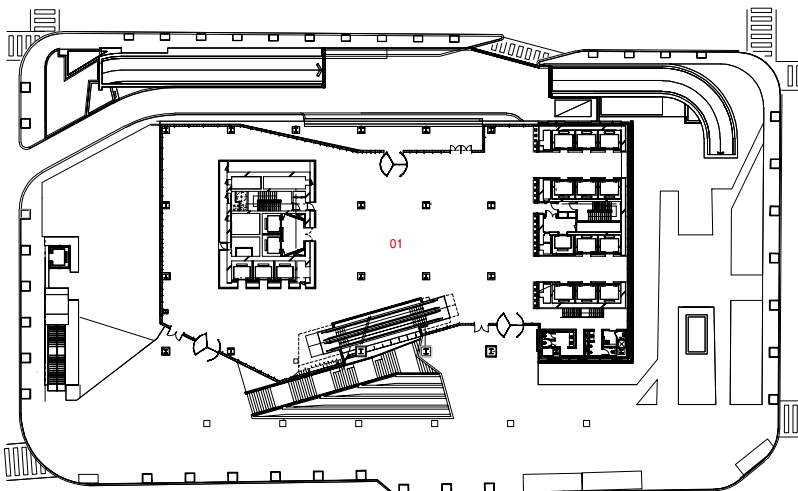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 | |
|---|---|
| 1 | 5 |
| 2 | 6 |
| 3 | |
| 4 | |
- 1. 뽕근기든 계단
 - 2. 1층 로비 좌측
 - 3. 2층에서 1층으로 내려다봄
 - 4. 1층 로비 우측
 - 5. 1층 로비 좌측 코어부분
 - 6. 뽕근기든 계단속 커튼월

- 01_ 로비
- 02_ 사무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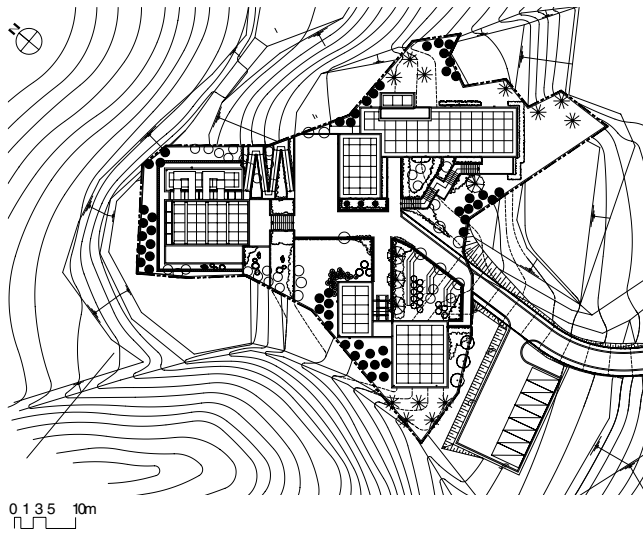
모새골 성서연구소

Mosaegol Bible Research Center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특선 수상작)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929-1번지 외 3필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2,309.00㎡
건축면적	563.61㎡
연면적	795.58㎡
건폐율	24.41%
용적률	34.50%
규모	지상 2층
외부마감	THK, 24 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설계담당	조영학, 이경주
시공사	강산건설(주)
건축주	사단법인 모새골공동체



Location	929-1, Songhak-ri, Gangsang-myeon, Yangpyeong-gun, Gyeonggi-do, Korea
Site area	2,309.00㎡
Bldg. area	563.61㎡
Gross floor area	795.58㎡
Bldg. coverage ratio	24.41%
Gross floor ratio	34.50%
Bldg. Scale	two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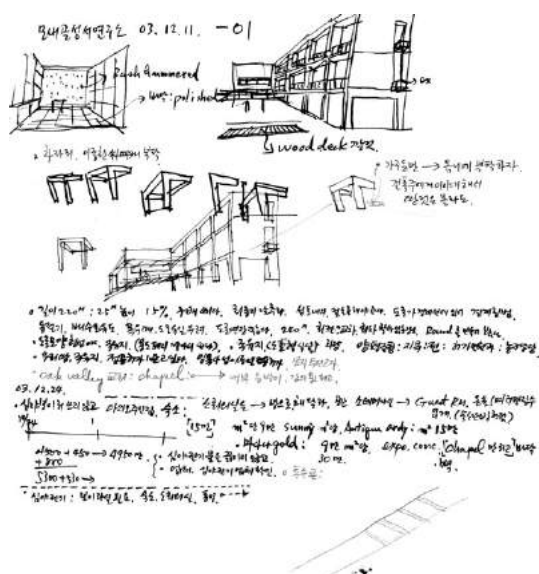


대지구입 시부터 건축주와 같이 보러 다니다가 한눈에 들어온 대지다. 한겨울에 땅을 보러 다닌 샘인데 양평일대에 좋은 듯 싶은 땅은 많지만 막상 햇빛이 제대로 드는 대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겨울에 땅을 보러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 햇빛이 북쪽으로 경사진 땅에 마지못해 비치는 것을 보니 우울한 기분이 절로 든다. 햇빛이 인색하게 비치는 여러 개의 우울한 대지들을 본 뒤에 이 땅을 본 순간 땅은 남향받이인데다가 대지전체에 햇빛이 골고루 비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든 것이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한 후에는 그 좋은 땅에 연면적 850㎡에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 허가를 얻는데 까지 무려 2년이나 걸리게 될 땅이

될 줄은 모른 것이다. 그 후로 지루한 시간이 지나 허가문제에 치진 건축주가 다른 땅을 알아 보기를 술하게 한 후에 드디어 이 땅에 허가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요구사항은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10커플이 묵을 수 있는 숙소 및 식당 그리고 사무실 및 세미나동 이렇게 단촐한 건물 군이다.

계획의 목표는 경사진 전체 대지의 형상을 최대한 존중하여 건축이 들어서게 되는 부분만 최소한 조정하기로 하였다. 배치방식은 옛날 전통 건축의 가람배치를 따라 교회가 들어서는 자리는 대웅전 들어서는 위치로 생각하고 좌측에 숙소동이 마치 요사채처럼 들어서고 우측에 학습을 하는 세미나동 이 들어서도록 했다. 길은 조

금 경사가 급한듯해도 기존 경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대지를 낮추거나 하지 않도록 하였다. 상부 건물 있는 쪽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차가 없는 것이 좋도록 계획하였다. 재료는 건축주가 검소 질박한 수도원 기분을 계속 강조하여서 세 개의 건물 공히 노출콘크리트로 통일하였다. 세동의 건물 중 제일 오랜 동안 생각한 것이 3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의 형상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중에 내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우선 첫째 밝은가 어두운가 알고 싶었다. 어두웠다. 그러면 절망감으로만 짙게 들어차 있어야만 할 터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것은 한줄기 빛이 느껴진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전체가 어두워도 한군데 밝은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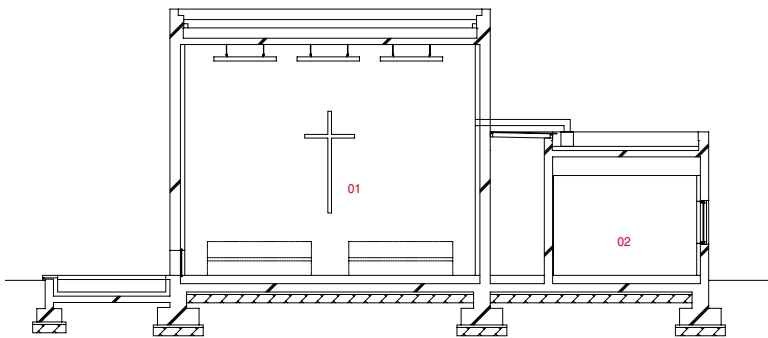


- | | |
|---|---|
| 1 | 5 |
| 2 | 3 |
| 4 | |
- 1. 채물동 수공간
 - 2. 숙소동
 - 3. 채물동 진입로
 - 4. 채물동 내부
 - 5. 채물동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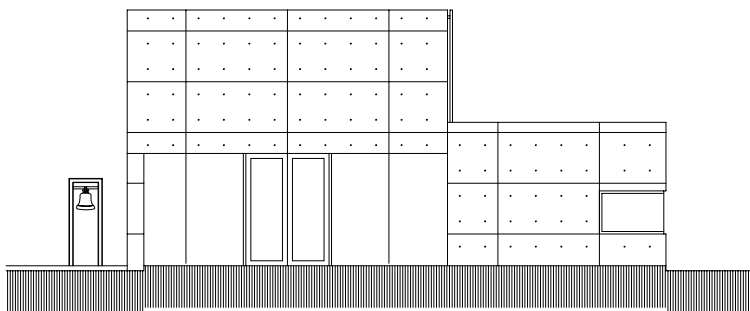


● 채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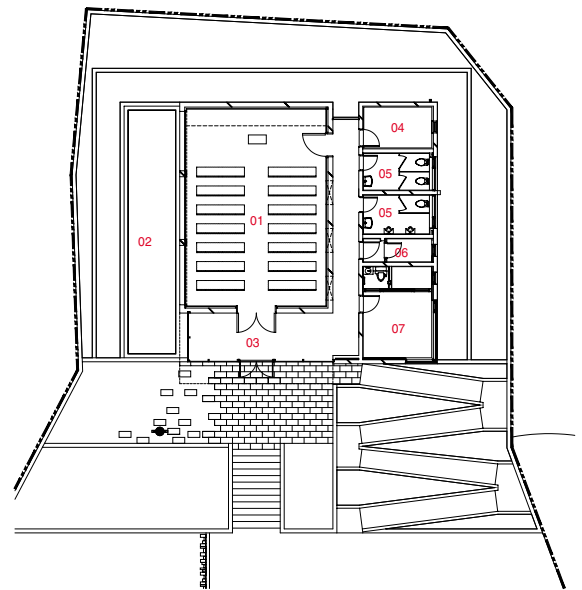


- 01_ 예배당
02_ 목회자실

단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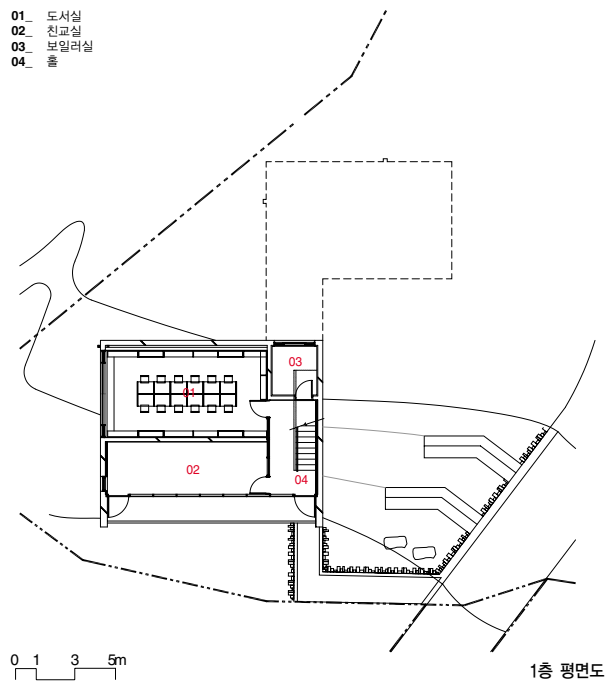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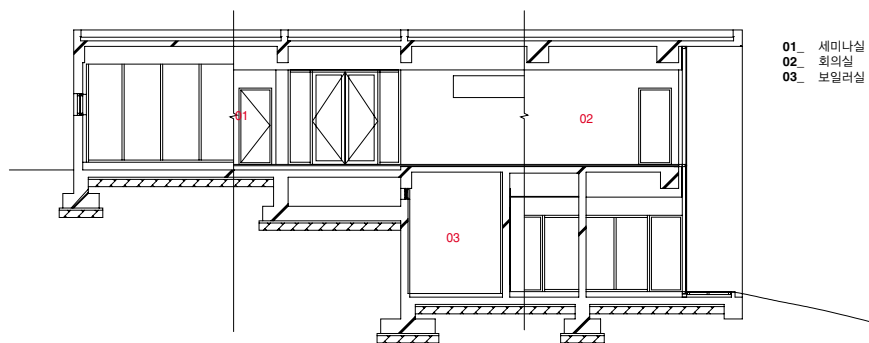
- 01_ 예배당
02_ 수공간
03_ 로비
04_ 보일러실
05_ 화장실
06_ 개인기도실
07_ 목회자실

● 세미나동

- 01_ 도서실
- 02_ 친교실
- 03_ 보일러실
- 04_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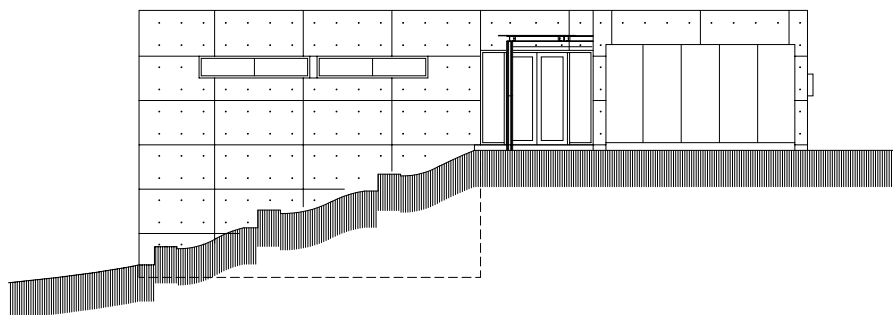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_ 세미나실
- 02_ 회의실
- 03_ 보일러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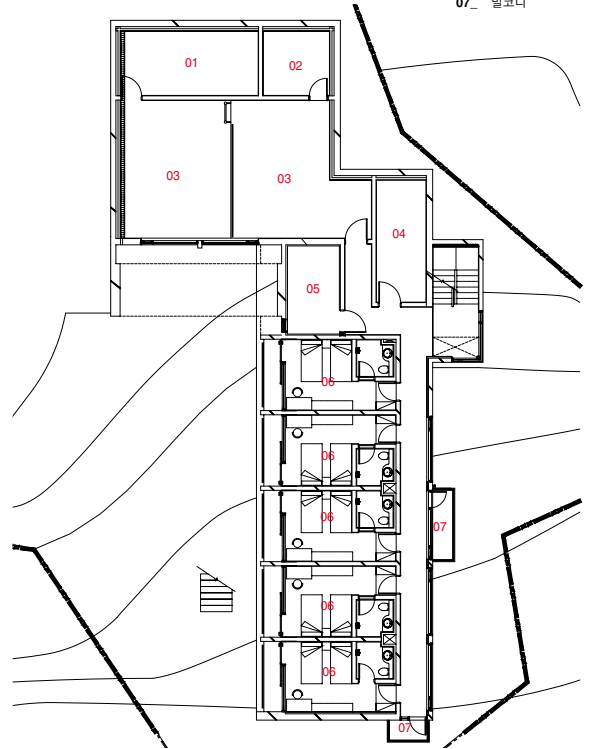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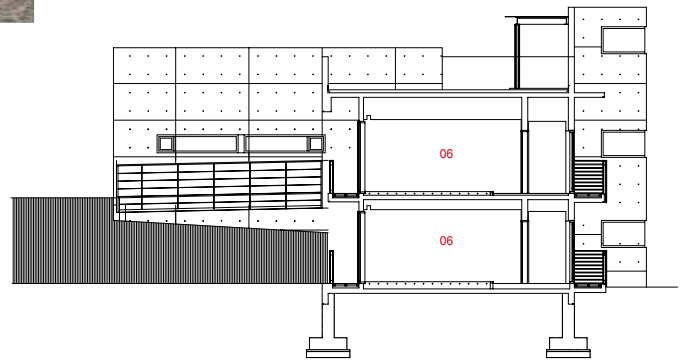
- | | | | |
|---|---|---|---|
| 1 | 2 | 3 | 4 |
|---|---|---|---|
1. 세미나동
2. 세미나동 정면
3. 숙소동
4. 세미나동 & 숙소동

● 숙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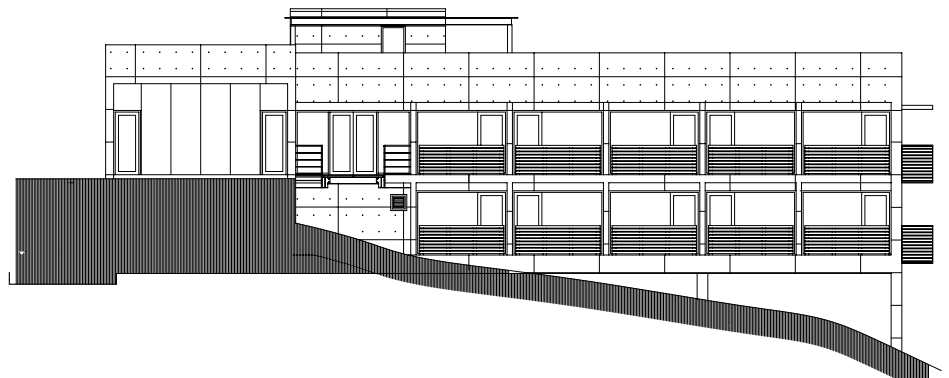
01. 저수조
02. 창고
03. 진료실
04. 관면실
05. 보일러실
06. 숙소
07. 발코니



1층 평면도



단면도



정면도

DBEW디자인센터

Hanssem DBEW Design Center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특선 수상작)

● 배치도

● 건축개요



0.2 8m
1 4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9-4, 9-5, 9-9, 9-10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1,151.05㎡
건축면적	569.78㎡ (증축: 499.70㎡, 기존: 70.08㎡)
연면적	2,277.23㎡ (증축: 2,207.15㎡, 기존: 70.08㎡)
건폐율	49.5%
용적률	65.02%
규모	지하 3층, 지상 2층
주차대수	13대(인근부설주차장)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한옥 목구조, 전통한식기와지붕
내부마감	벽 - 미텍스워 벤자민우퍼페인트 천정 - 석고보드워 페인트
외부마감	바닥 - 목재(부빙가, 체리, 워스우드) 깔기, 화강석 깔기 화강석(장대석, 사고석, 이고석)+기와누워쌓기+회벽 처리, 알루미늄커튼월
설계담당	양원석, 강관일, 김동건, 장석열, 신혜정, 한상원, 김성준, 우현승, 강원경, 남광서
구조설계	(주)만유구조컨설턴트
기계설계	(주)유성설비
전기설계	(주)건창기술단
인테리어	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
시공사	(주)두성PnC건설
감리	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
건축주	(주)한샘
설계기간	1996 ~ 2002
공사기간	2002. 02 ~ 2003. 12

Location 9-4, Wonseo-dong, Jongno-gu, Seoul, Korea

Site area 1,151.05㎡

Bldg. area 569.78㎡

Gross floor area 2,277.23㎡

Structure R.C.

Bldg. Scale three stories below ground, two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1996 ~ 2002

Construction period 2002. 02 ~ 2003. 12



1. 담장밖에서 본 전경
2. 창덕궁후원쪽에서 본 한옥정자

인간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를 하나가 되게 하려는 사대문안 옛 서울구조개혁을 구사하고, 구체적 제안으로 다섯 도시설계를 제안하는 동안 다섯 도시설계의 하나인 북촌지역에 세 건축설계를 하게 되었다.

첫 번째인 '한샘디자인 스튜디오'는 창덕궁 후원 선원전 남측 창덕궁과 담을 같이하고 있는 중앙고등학교 동측 사이트이다. 처음 계획은 유기적 형상의 하우징이었다. 왕궁 바깥에 창덕궁에 대응되는 현대주택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설계도중 여섯 연립주택이 디자인 뮤지움으로 바뀌었고, 사이트 안에 있는 상공의 집이었던 백씨 가옥을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전

혀 다른 각도에서 일이 진행되었다. 창덕궁 후원담과 새로운 전통가옥으로 지은 S화장집과 보존키로 된 백씨가옥 사이에 과거의 공간형식과 다른 현대건축공간을 세 요소 사이에 두는 유리입방체로 이루어진 안이 채택되어 인허가 작업에 들어갔다.

구청심의와 서울시 심의가 통과된 후 최종적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열렸는데 반반 의견이어서 보류되었다. 위원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토론 해보았으나 몇위원은 완강히 현대건축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는 사이 일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날 창덕궁 안에서 이곳을 종일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새로운 절충안을 생각했다. 그 생각은 산마르코 광장에 새벽미사에 갔다가 떠오른 생각이 발전된 것이었다. 산마르코 바질리카와 두갈레궁은 건축가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다. 그러나 그들이 이루는 조화는 환상적이다. 창덕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이어야 한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북촌보존을 그렇게 말하던 내가 오히려 해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구청과 시청을 통과하고 문화재 위원회에 계류 되있는 안을 과감히 버리고 다시 시작했다.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이 뒤섞인 전통건축이기도 하고 현대건축이기도 한 건축형식을 생각하였다. 창조적 파괴, 미학 대신 철학의 계승 등 별 말이 있어



- | | |
|---|--------------------------------|
| 1 | 1. 숙을대문과 주출입구 |
| 2 | 2. 디자인센터쪽에서 본 숙을대문 |
| 3 | 3. 전통한옥(백룡봉가과 함양정지부분) 사이의 현대건축 |
| 4 | 4. 백룡봉가쪽에서 본 모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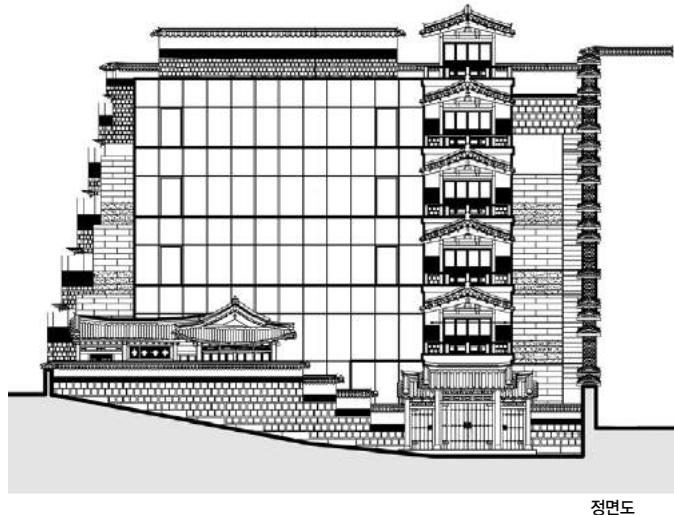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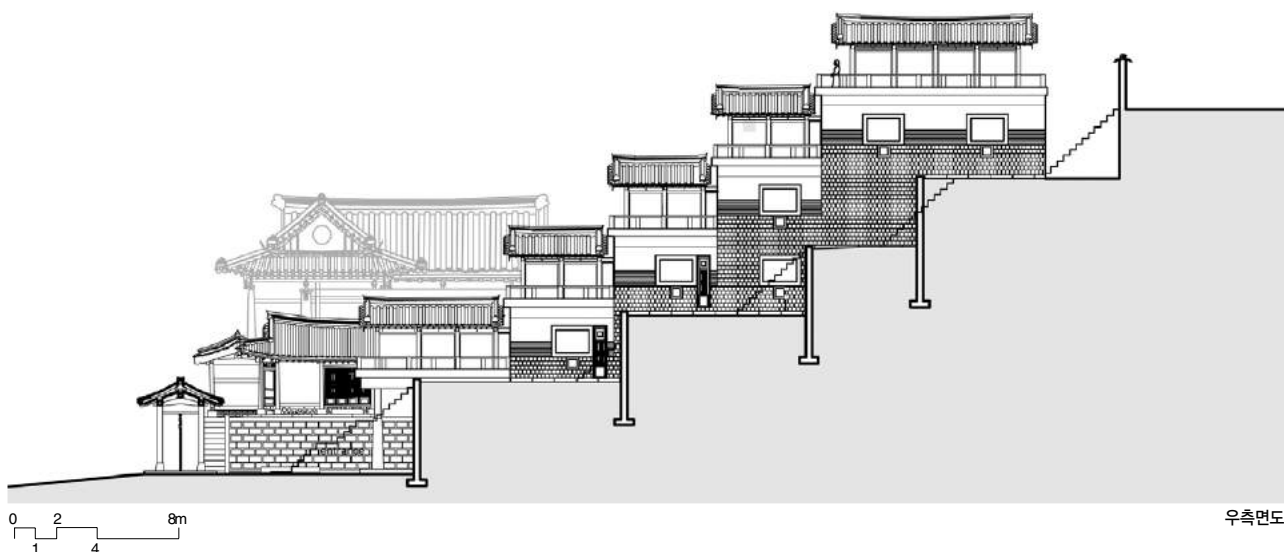
도 역시 옛것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구두 선이다. 세 번째 안은 무난히 구청, 시청, 문화 재위원회를 다 통과하여 현재 완공되었다. 문화 재위원 중 왜 타협하였느냐는 분도 있었으나 과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좋은 건축일 수 없다. 기존건축과 주변을 더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건축이 좋은 건축이고 그러려면 먼저 기존도시와 건축의 문법과 수사학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올해 말이면 어느 길이 옳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DBEW센터는 서울의 정궁인 창덕궁 후원과 담을 같이하고 있는 바로 궁 밖에 선 건축이다. 담 건너 궁 안에는 역대 군왕의 영정을 모신 선원전이 있고 전면에는 후원의 숲이 길게 뻗어있는 곳이어서 옛 건축과 현대건축이 공존하는 건물이 담을 경계로 고궁의 건축과 하나가 되고 전면의 비원 숲과 다시 하나가 되는 변증법적 디자인을 시도했다.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인 계단과 복도 등 궁궐담장과 접속하게 되는 서비스 공간은 옛 건축형식이 되게 하고 사람

이 머물러 일하게 되는 외부와 차단된 주 내부 공간은 현대건축으로 하였다.

영화박물관이 바다와 마주선 집이어서 아무 기억장치가 없는 순수 형태가 된 데 비해 DBEW센터는 궁궐 바로 바깥 사이트여서 과거와 현재가 공생하는 건축으로 만들어 전통건축 군인 궁궐과의 교감을 시도한 것이다. 圖

(주 : 본문중의 <한샘디자인스튜디오>, <DBEW디자인센터>는 같은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한샘DBEW디자인센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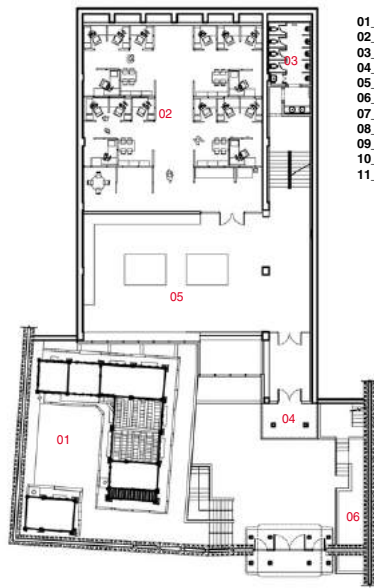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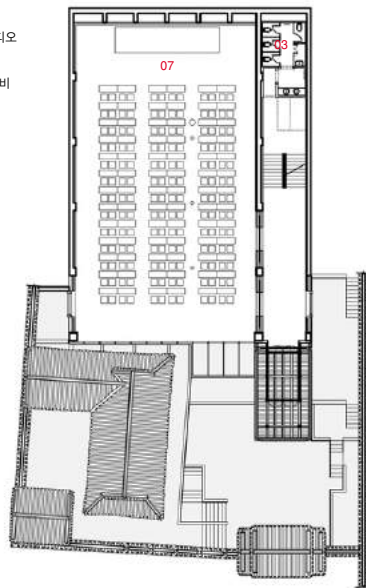
1. 창덕궁후원 담장과 나란히 하고 있는 화계의 모습
2. 솟을대문을 통해서 보이는 주출입구의 모습
3. 내부에서 보이는 대문쪽의 모습
4. 한옥정자의 내부 모습
5. 테라스에서 내려다 본 모습
6. 실내공간의 모습
7. 테라스에서 보는 한옥정자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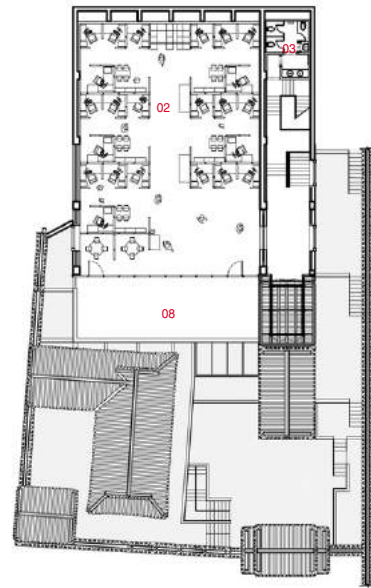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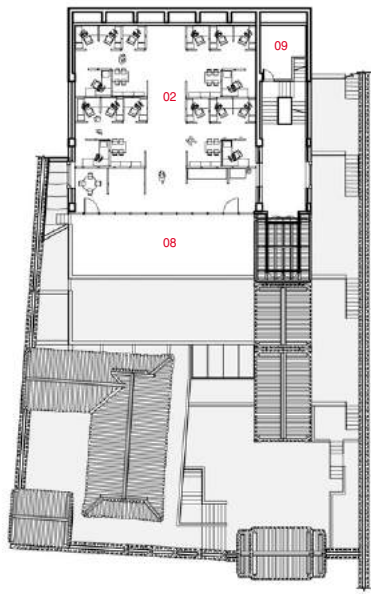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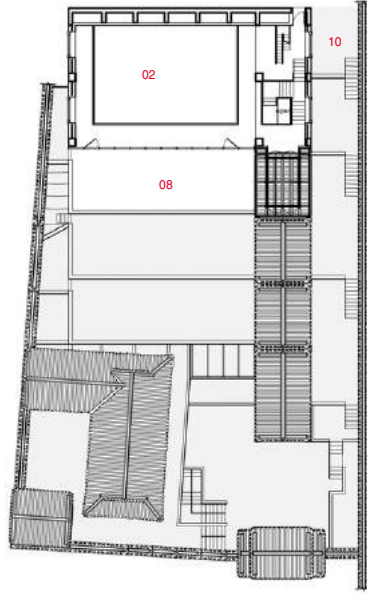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 | | | | |
|---|---|---|---|---|
| 1 | 2 | 3 | 4 | 5 |
|---|---|---|---|---|
1. 한옥정자부와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의 모습
 2. 실내공간의 모습
 3. 한옥정자의 실내쪽 모습과 출입문의 모습
 4. 역사형고정장과 허부의 원기창, 그리고 복문의 모습
 5. 철도와 가구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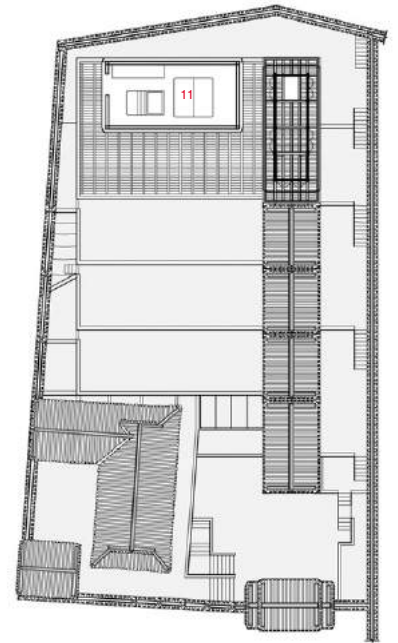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펜트하우스 1층 평면도



펜트하우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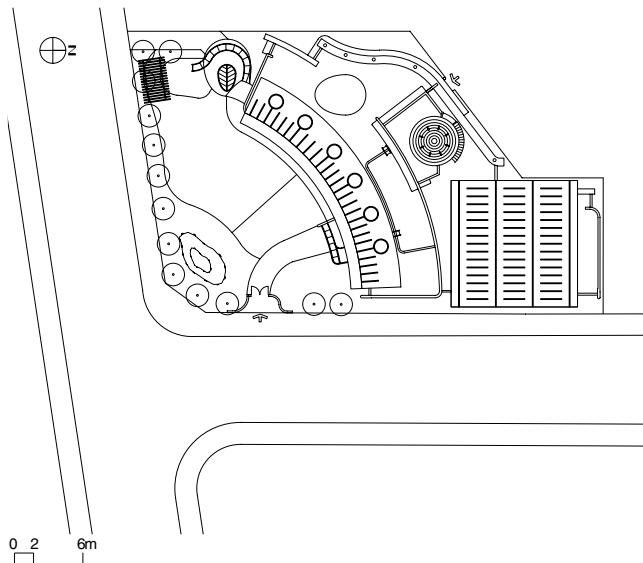


광주 J 유치원

Gwangju J kindergarten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1,413.00㎡
건축면적	492.36㎡
연면적	1,586.13㎡
건폐율	34.85%
용적률	112.25%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내부마감	바닥:온돌마루, 벽: 무늬목위 락카, 천장: 지정품천정지
외부마감	적벽돌 치장쌓기, 외단열시스템



Location	Ochi-dong, Buk-gu, Gwangju, Korea
Site area	1,413.00㎡
Bldg. area	492.36㎡
Gross floor area	1,586.13㎡
Bldg. coverage ratio	34.85%
Gross floor ratio	112.25%
Structure	S,C,R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two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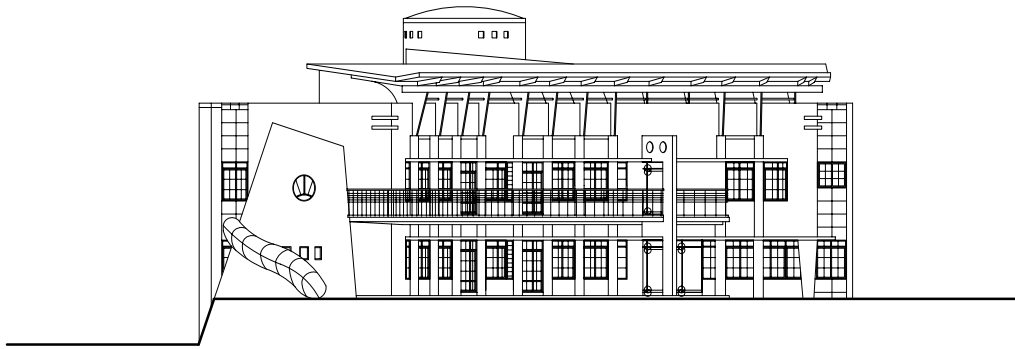




유치원은 어린이들이 가정을 떠나 맨 처음 만나는 새로운 환경
이므로 흥미롭고 즐거운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일부에 자리 잡고 있는 본 유치원도 교육청 현상공모에 의해 설계
된 건물로서 비교적 작은 부지에 많은 기능과 실을 요구하였다.
설계에서는 주변 환경 및 자연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기능 및 정서
공간을 원만히 해결하고, 협소한 부지에서 오는 토지이용상의 문
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가 주로 고민이었다. 유치원과 초등학
교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맺어주고 학교에 인접 배치하여 줌으로
서 전면에 최대한의 놀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실에서 발코니를 통하여 외부로 나갈
수도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울러 옥상은 물놀이장 및 그늘짐을 만들어 줌으로서 휴게공
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건물의 내외부에 사용된 부드러운 곡선
은 공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형태에 표출됨으로 시
각적 조형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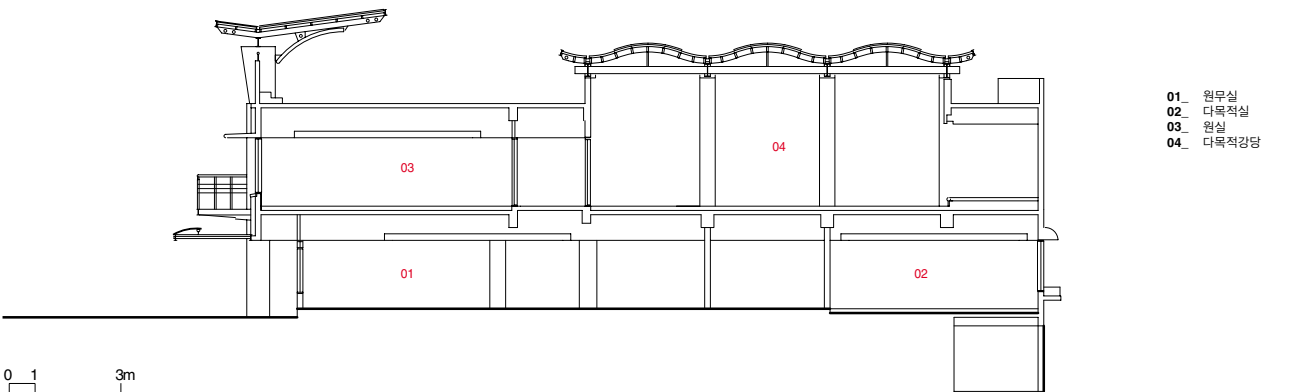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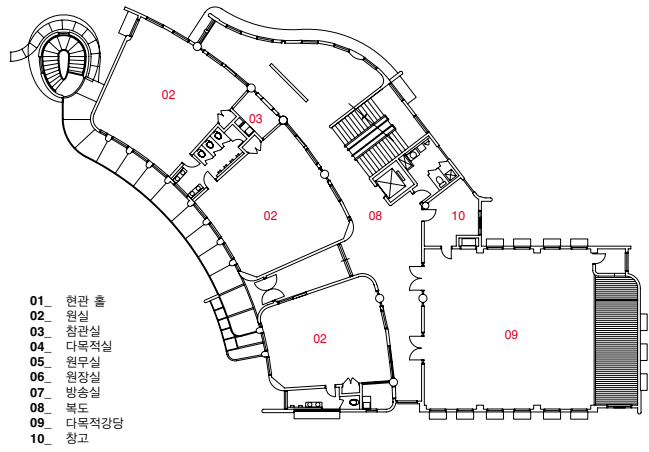
- | | | | |
|---|---|---|---|
| 1 | 2 | 3 | 4 |
|---|---|---|---|
1. 주출입구에서 본 전경
 2. 우측 외부상세
 3. 정면 외부상세
 4. 외부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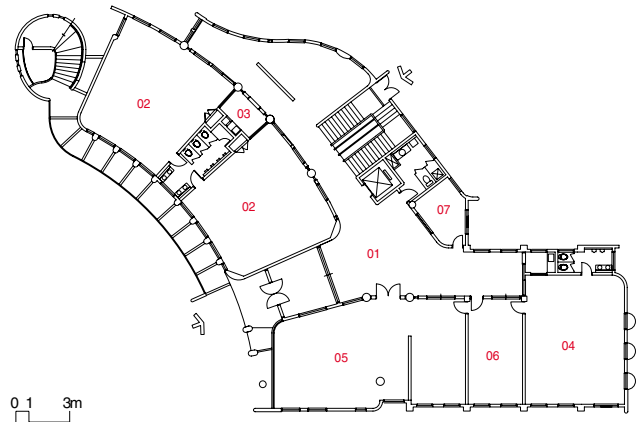
01. 원무실
02. 다목적실
03. 원실
04. 다목적강당

0 1 3m

단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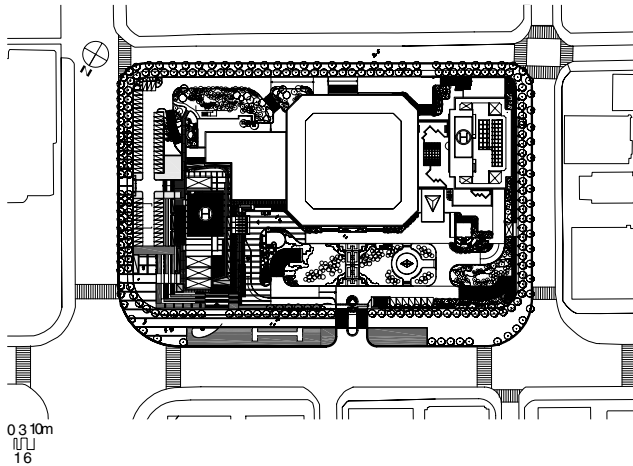
- | | | | |
|--------------|-------|--------------|-----------|
| 1 | 2 | 3 | 4 |
| 1. 계단실 내부 천장 | 2. 원실 | 3. 계단에서 본 복도 | 4. 다목적 강당 |



한국 증권거래소 별관 리모델링

Annex of Stock Exchange remodeling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지역지구	일반 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27,081.00㎡
건축면적	10,472.33㎡
연 면 적	123,111.74㎡
건 폐 율	38.67%
용 적 륜	264.92%
규 모	지하 6층, 지상 21층
주차대수	955대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T24 복층유리, T30 화강석 버너구이, T3.0 AL,그릴, T3.0 AL,쉬트
구조설계	일구조
설비설계	삼신설비
전기설계	전기: 나라기술단, 전기통산: 한국하니웰
토목설계	다솔컨설턴트
인테리어	우원디자인
감 리	ITM 코퍼레이션
설계담당	조민건, 최창섭, 양희범, 백봉주



Location	33,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
Site area	27,081.00㎡
Bldg. area	10,472.33㎡
Gross floor area	123,111.74㎡
Structure	S,R,C
Bldg. Scale	six stories below ground, twentyone stories above ground







이 프로젝트는 1956년 명동에서부터 시작하여 1979년 현 위치에 확장 이전한 한국금융의 중심인 증권거래소별관 리모델링공사로, 증권매매의 전면 전산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대오피스로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계획에 앞서 우리의 고민은 기존 증권거래소 단지의 폐쇄적 구조를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와 미래지향적 중심성과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단지의 조형흐름과 변화의 지표가 되는 열린 이미지 창출의 이중적 구조의 해결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XCHANGE for the FUTURE'라는 계획방향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상징성 및 안전성을 유지(Conservation)토록하고, 열린 공공기관 이미지와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변화(Variation)를 통해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여의도 금융가의 새로운 지표(Evolution)가 되도록 하였다.

'열린공간' 만들기

기존의 폐쇄적 외부공간을 인접가로공원과 연계된 열린마당으로 계획하고, 임대오피스 전용의 진·출입 동선을 계획하여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하였다.

'임대시설 최적화'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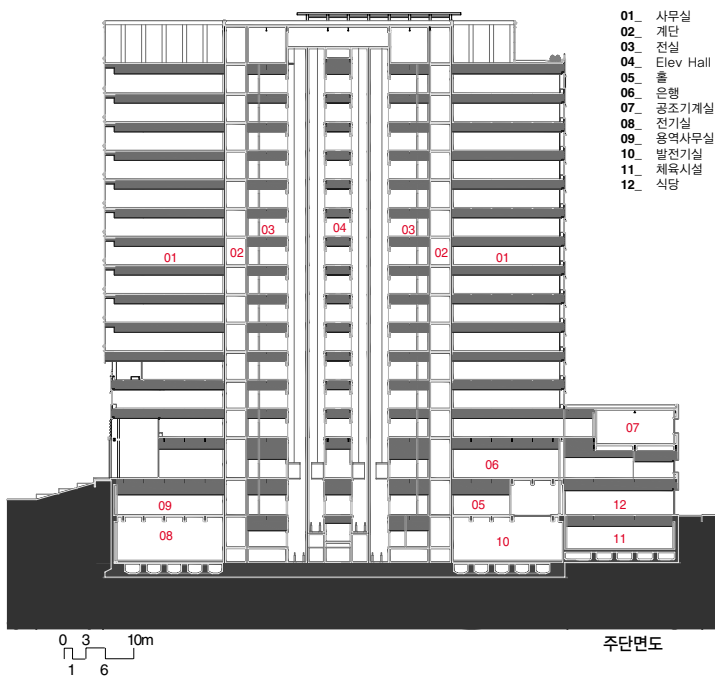
여의도 관련 업무시설의 철저한 임대수요분석을 통한 임대모듈을 계획하였으며,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한 Office Landscape계획을 하였다. 또한, 합리적 코어계획으로 전용률을 확대하였으며(기존 68% → 변경 76%), 코어 후면부에 한강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하였고, 천정고 2.7m(기존2.67m) 확보와 첨단 설비 시스템적용으로 쾌적한 사무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미래지향적 이미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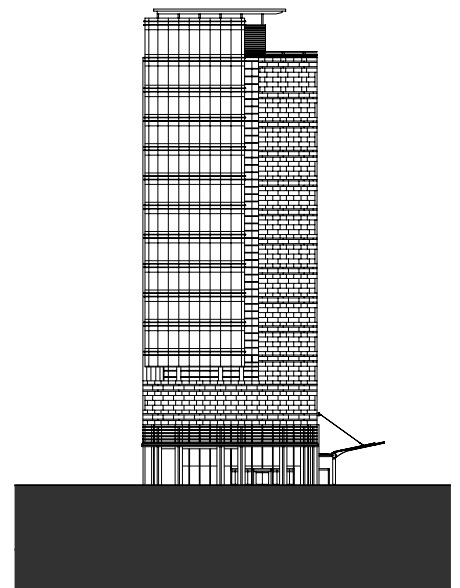
단지내부의 조형흐름과 가로입면을 고려한 이중 구조의 입면계획으로 여의도 증권가의 중심성 및 상징성을 갖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圖



- | | |
|---|---|
| 1 | 3 |
| 2 | |
1. 서쪽전경
2. 단지내부전경
3. 주출입구 캐노피



- 01 사무실
02 계단
03 전실
04 Elev Hall
05 출
06 은행
07 공조기계실
08 전기실
09 용역사무실
10 발전기실
11 체육시설
12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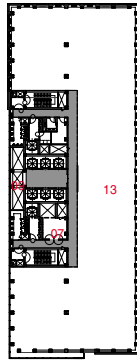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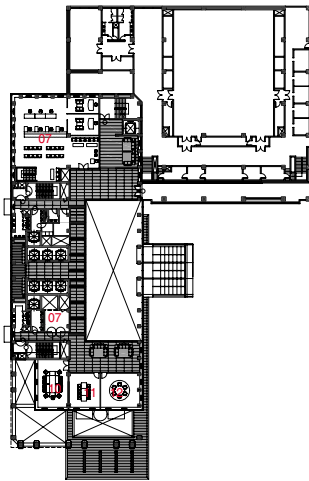
- 1. 빛을 데마로한 수공간 4. 4층 휴게정원
- 2. 옥상정원 5. 사옥 부출입구 전경
- 3. 메인로비 6. 엘리베이터 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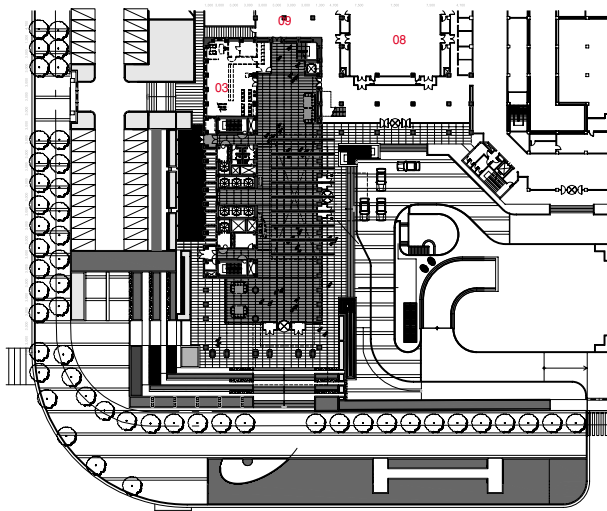


- 01. 식당
- 02. 주방
- 03. 근린생활시설
- 04. 방재센터
- 05. 관리사무실
- 06. 용역사무실
- 07. 공조실
- 08. 국제회의장
- 09. 휴게실
- 10. 세미나실
- 11. 소회의실
- 12. 점검실
- 13.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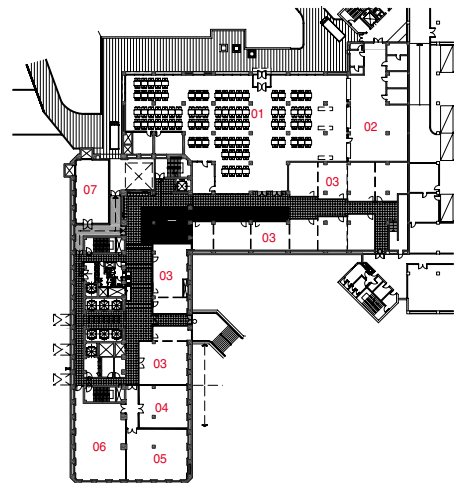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0 3 10m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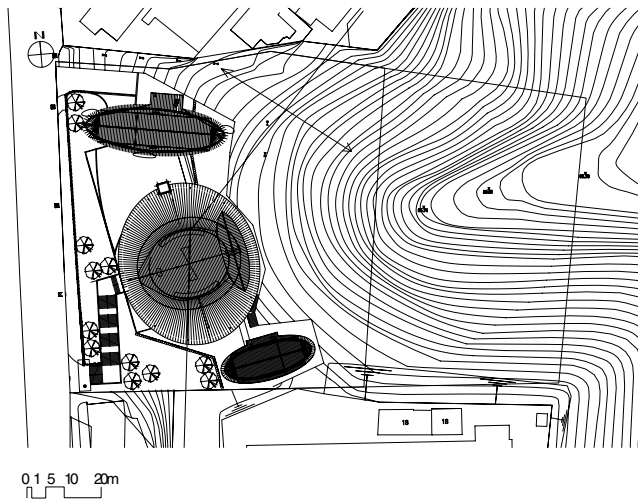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안국선문화원

Ahnkook Zen Culture Center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대지면적 7,365.00㎡
건축면적 1,765.71㎡
연면적 6,778.77㎡
건폐율 23.97%
용적률 72.22%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설계담당 이재근, 장지욱, 이정훈, 정재영, 고민령, 조미영, 松岡, 林響
감리담당 최재훈, 박주하



Location 35-14, Namsandong, Guemjeonggu, Busan, Korea

Site area 7,365.00㎡

Bldg. area 1,765.71㎡

Gross floor area 6,778.77㎡

Bldg. coverage ratio 23.97%

Gross floor ratio 72.22%

Structure R,C, S,C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four stories above ground





안국 선문화원은 주택가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의 사찰이 그러하듯 조용히 다가와 차분히 앉아 있다. 안국 선문화원의 공간 구성은 스님들의 개인생활공간, 스님들이 공양을 드리는 공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당 이렇게 3개의 매스로 이루어져 있다. 일주문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 나오는 외부 중정은 한그루의 소나무로 인해 정적인 느낌을 느끼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가득 차지 않았지만 비어있지 않고, 비어있지만 부족하지 않은 선의 자세, 선의 느낌을 만날 수 있다. 안국 선문화원의 원형의 매스들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서 출발하여 만난 형태이다. 계속 돌아가는 원형에서 우주의 영원성과 우리들 관계의 끝없음, 누구하나도 특별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같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의미로 디자인된 원형의 매스와 돔 형태는 불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표현한다. 원형의 매스를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돔 형태는 종교적 위엄을 위한

공간을 가능하게 했다. 돔의 크기와 선은 일본 오사카예술대 카노 타다마사 교수의 자문으로 우주의 중력을 적용해 원의 크기와 비례하는 아름다운 곡선으로 표현하였다.

전통적인 불교적 세계관에서 본 사찰문화의 공간을 도심지 속에 자리 잡아 두어야 한다.

산지 사찰의 기암배치와 유기적 공간구성의 관계를 콘크리트라는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여 켜를 나누고 땅에 얹혀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실험이자 기존관념의 탈피를 선행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신축하는 건물의 도시형 사찰이라는 전제는 전통적 사찰건축이 현대 건축을 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었고, 건물의 배치와 그에 따른 다양한 얼굴을 가진 공간을 구성하게 되었다.

기암의 배치

가파른 등고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순응되어지고, 공간적 성격에 따라 나누어진 각기 다른 축을 가진 3개의 돔을 엮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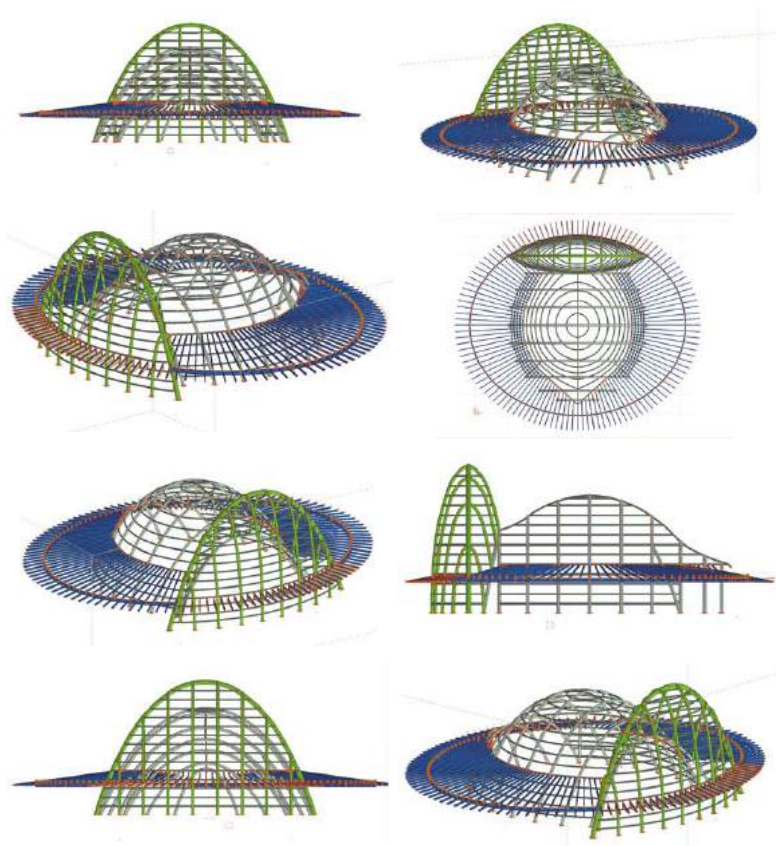
각 돔들은 건축적 연결요소를 만들어 하나의 일체감을 주는 형태를 만들게 되었고, 사용자의 내부동선을 연결하게 되었다.

공간 구성

3개의 돔들은 지형의 높낮이와 켄에 의해서 서로 다른 형태와 스케일의 공간을 구성하게 되었다. 공간과 공간사이 오름과 내림의 사이에서 옛 사찰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려고 한지 모른다. 다만, 생성된 공간이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장소로 성실히 사용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다.

형태

불교의 우주적 세계관, 전통과 현대와의 조화를 재해석하기 위한 방법은 우주의 중력, 자연에 순응하는 만류인력 원형과 곡선으로 표현 되어 지고, 별도로 이루어진 건물들의 성격과 방향에 일체감을 주는 디자인적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외부적 형태에 의해 생성된 4층 법당의 내부공간은 원형의 수평적 모습과 장엄한 스케일 감을 느끼게 되었다. 곡면으로 이루어진 비인간적 스케일, 그 곳에서 부처에 대한 경외심을 더할 수 있었으면 한다.

평면

현대불교사찰의 주 요구조건인 포교와 공공성의 강조는 자칫 전통사찰에서 이루어진 본연의 행동(예배, 수행)을 위한 공간을 제약하게 된다.

신축건물은 각기 다른 별동으로 이루어져 우측에 공양실, 선방, 주방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원 공간,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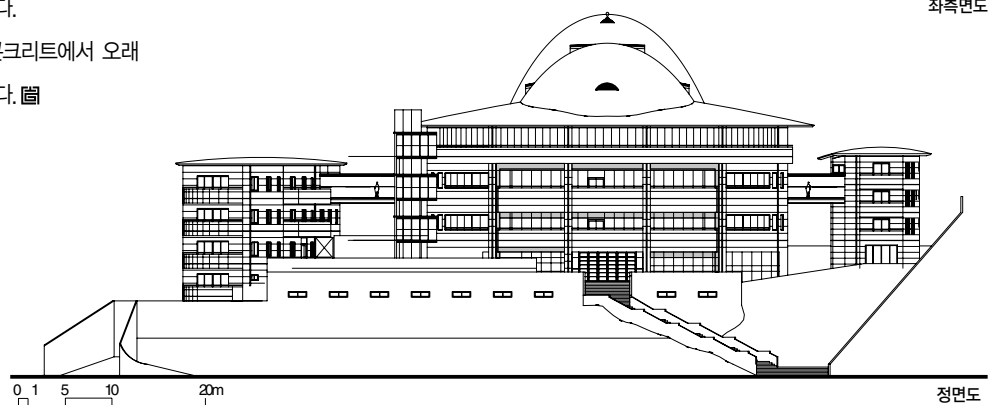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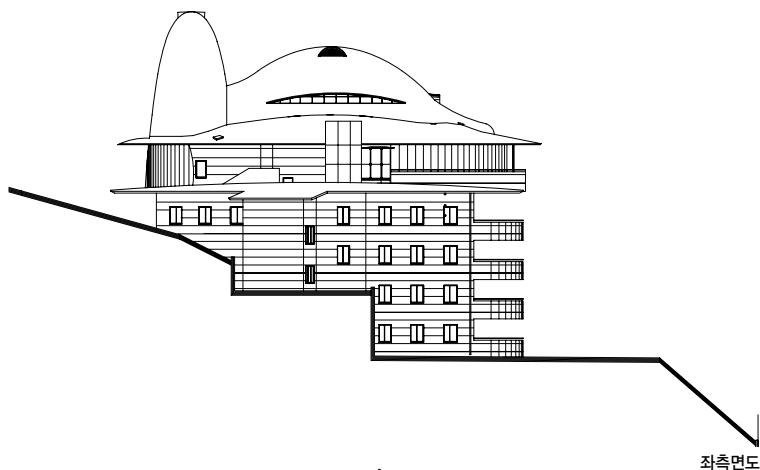
측에 스님의 개인적 활동을 위한 생활공간 그리고 중앙부에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법당과 수행선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료

오래된 목재로 잘 다듬어진 고건축물의 미적인 아름다움은 다양한 현대적 재료를 쓰더라도 비슷한 미적표현은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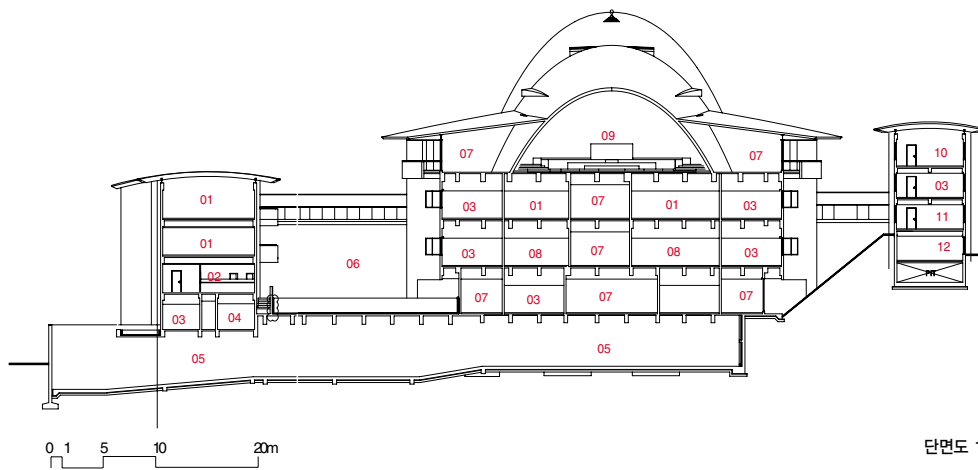
노출콘크리트라는 재료는 그 단순성과 소박함에 건물에 절제감을 주고 시간성을 준다.

시간이 경과되고 풍파를 겪은 콘크리트에서 오래된 목재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다. ㉮



- | | |
|---|--------------|
| 1 | 지붕 동 |
| 2 | 지붕 천정 |
| 3 | 선방으로 가는 길 |
| 4 | A동 발코니 |
| 5 | 엘리베이터 및 연결다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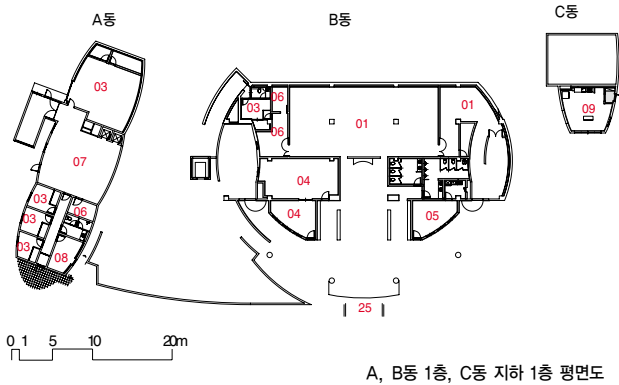


- 01_ 참선실
- 02_ 식당
- 03_ 방
- 04_ 세탁실
- 05_ 주차장
- 06_ 중정
- 07_ 홀
- 08_ 회의실
- 09_ 법당
- 10_ 접견실
- 11_ 거실
- 12_ 다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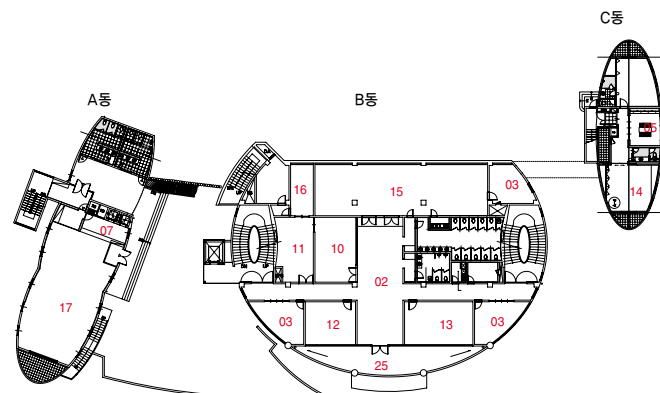
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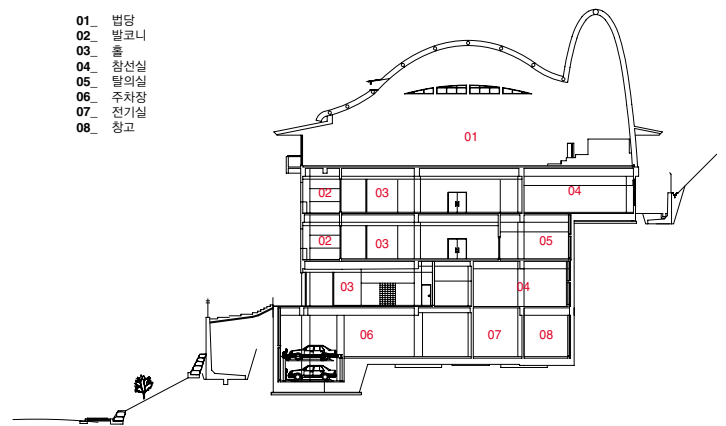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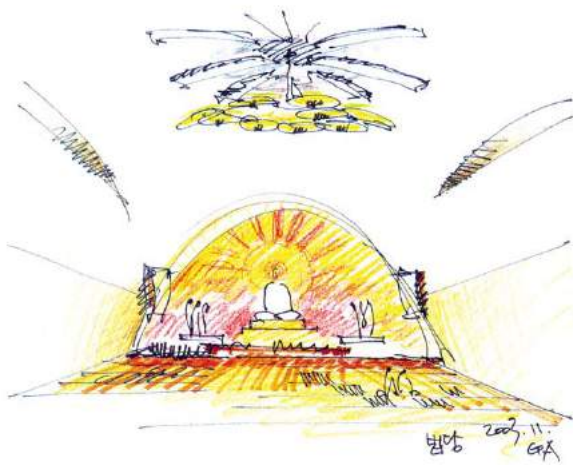
- | | | | |
|-------------|----------|------------|-----------|
| 01_ 참선실 | 08_ 세탁실 | 15_ 탈의실(여) | 21_ 법당 |
| 02_ 홀 | 09_ 다실 | 16_ 인터넷실 | 22_ 주지스님실 |
| 03_ 방 | 10_ 사무실 | 17_ 식당 | 23_ 서재 |
| 04_ 거사실(남자) | 11_ 방송실 | 18_ 초심자실 | 24_ 세미나실 |
| 05_ 접견실 | 12_ 회의실 | 19_ 스님실 | 25_ 발코니 |
| 06_ 창고 | 13_ 대회의실 | 20_ 선방 | |
| 07_ 주방 | 14_ 거실 | | |



A, B동 1층, C동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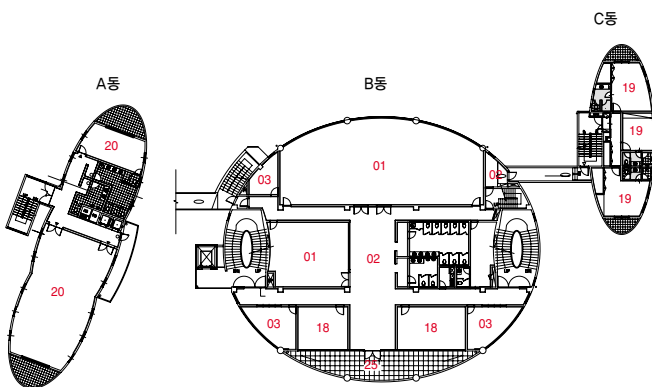
A, B동 2층, C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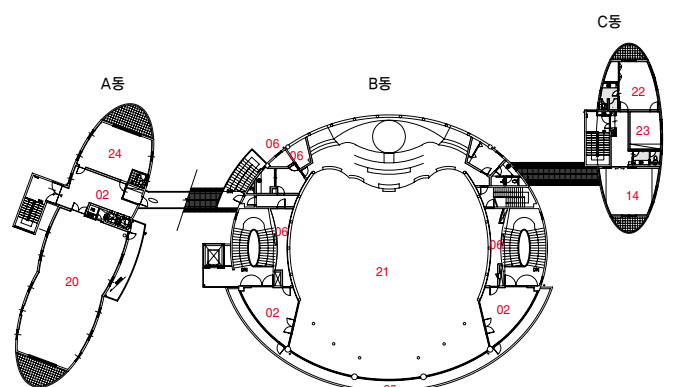
단면도 2



- | | | | | | |
|---|---|---|---|---|---|
| 1 | 2 | 3 | 4 | 5 | 6 |
|---|---|---|---|---|---|
- 1. 연결다리 내부
 - 2. A동 주계단실
 - 3. A동 주계단실
 - 4. B동 선방
 - 5. A동 법당(불단)
 - 6. A동 법당



A, B동 3층, C동 2층 평면도



A, B동 4층, C동 3층 평면도

대구대학교 50주년기념관

50th Anniversary Memorial, Daegu University

프로젝트와의 만남

대구대학교는 1956년 5월1일 개교 이래 2006년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 대구캠퍼스에 있는 재활과학대학을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경산캠퍼스로 이전하여 짓고자 현상설계로 나온 것이 이번 프로젝트와의 인연이 되었다.

1백만평의 넓은 캠퍼스를 자랑하는 대구대는 환경 친화적인 캠퍼스 가꾸기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50주년 기념사업의 밑거름이었고 계획의 기본 모티브와 무관하지 않았다.

디자인 배경

대구대를 상징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같은 의문들은 기념관과 재활과학대 건물에 어떤 상징성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였고, 어떻게 풀어 갈지에 대한 착상의 시발점이 되었다.

대구대의 광활한 학교 부지와 전국을 대표할만한 특수교육시설은 기념관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내 머릿속을 떠날 수 없는 대명제와도 같았다.

이는 건축물이 가져야하는 의무감 같은 것이었는데, 대구대의 특수한 환경과 조건들을 반영하기도 해야겠지만 학교를 바라



보는 학생이나 지켜보는 주변인들에게 학교의 비전을 제시해 줄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대구대학의 장애우에 대한 충분한 배려이고, 50주년을 맞이하는 상징성이며, 대구대가 안고 있는 친환경적인 건축공간 구현 그리고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의 적절한 배치일 것이다.

장애우에 대한 배려, 상징성 그리고 친환경적 외부공간에 대한 열쇠는 필로티 구조에 있다고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필로티 구조는 장애우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고 필로티구조가 의외로 강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으며, 그 내부공간에 수공간과 쉼터를 조성한다면 친환경적 외부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작품의 계획과정

이번 계획안은 배치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교 전체 기념관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50주년 기념관인 강당 매스와 재활과학대학의 실험, 강의, 실습 공간으로 사용될 매스간의 기능적 연결성 및 독립성을 적절히 계획하는 것이었다.

스타디 모형을 통해 우선 7개 대안을 축소하고 다듬어 나가기로 했다.

「대안1」이 강당의 인자성, 상징적 조형성 표현이 우수하고, 재활과학대학에서도 동선의 연결성이나 대형 강의실, 실습실, 연구실 등 내부기능간의 공간구성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외부공간 구성에서도 필로티 계획을 통한 개방감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배치 안으로 결정되었다.

「대안2」의 경우는 대형 강의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재활과학대학의 평면 구성이 원활한 장점이 있지만 강당이 부지 중심부에 배치되어 기념관으로서의 인자성이 떨어지며 전체 건물에 대한 소음의 영향이 우려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안3」의 경우는 강당이 진입도로에 면하여

전면에 배치되고 재활과학대학이 후면에 배치되는 형태로 강당에 대한 인자성과 접근성은 좋으나 반대로 상시 사용공간인 재활과학대학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단점이 있었다.

「대안5」의 경우는 변화 있는 매스계획이 부족하고 강당과 재활과학대학간의 연결성이 낮다는 것과 함께 외부 공간 구성이 어렵다는 평이 있었다.

「대안6」은 동적인 형태 계획이 가능하나 강당에 대한 인자성이 낮고, 재활과학대학의 곡선형 매스 계획으로 강의실, 실습실 등의 내부 공간의 경제적 계획이 어려웠다.

「대안4」와 「대안7」과 같은 주 매스가 'ㄷ'자형 경우에는 기능간의 유기적 연결성은 좋으나 동선이 길어지며 강당 및 재활과학대학의 독립성이 낮은 단점이 있었다.

동측에 계획된 강당매스와 후면 식당 및 코아부분을 제외한 1층은 필로티 공간으로 계획되어 개방된 옥외공간으로 이용되며, 전면도로와 연결



초기 스타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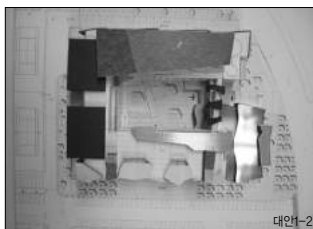
모형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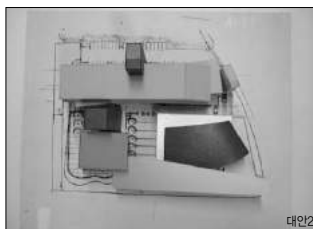
모형사진-2



대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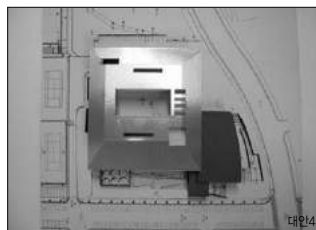
대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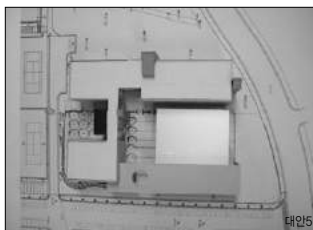
대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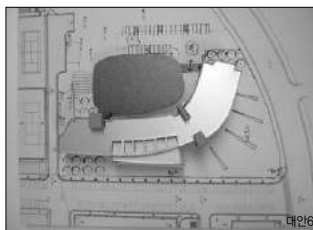
대안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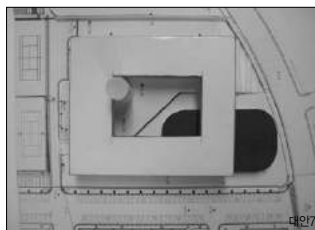
대안5



대안6



대안7



대안8

된 외부공간은 전체 부지에 대한 상징적인 진입
마당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C'자형 배치계획으로 부지 전체에 걸
친 두 가지 형태의 외부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건물 외주부는 적극적인 조경공간으로 캠퍼스
동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공간으로
계획되며 자연산책로, 꽃정원, 지압정원 등으로
계획되었다.

보행동선은 전체적으로 캠퍼스 내의 동선 흐
름을 자연스럽게 수용, 연결하도록 계획되었다.

남측 전면도로와 진입마당으로 유도된 보행동
선은 부지 중앙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동선
축에 의해 부지내 각 방향으로 연결되도록 계획
되었다.

이 진입동선이 동선 축에 의해 진행되면서 각
건물 Zone의 수직 동선으로 연결된다.

필로티로 계획된 1층에 의해 부지 내 자유로
운 동선의 흐름이 가능해지며, 부지 내 레벨의
차이는 재활과학대학으로서의 공간 성격에 따라
경사로 등의 무장애 보행공간으로 구성되도록
계획했다.

계획 건물의 주 주차공간은 캠퍼스 내의 주변
주차장 및 도로변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
며 부지 북측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계획하여 재
활과학대학에 대한 장애인 주차 공간, 긴급, 서비
스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접근성 및 인자성을 계획의 중점사항으로 중
요시 하였으며, 다양한 접근동선을 연결 계획하
므로 사용상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필로티로 계획된 저층 공간은 강당 공간의 독
립성을 높이면서 적극적인 외부공간으로 계획하
여 강당에 대한 연회공간 등의 옥외행사 공간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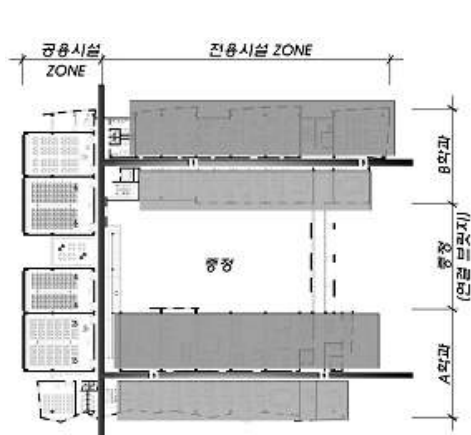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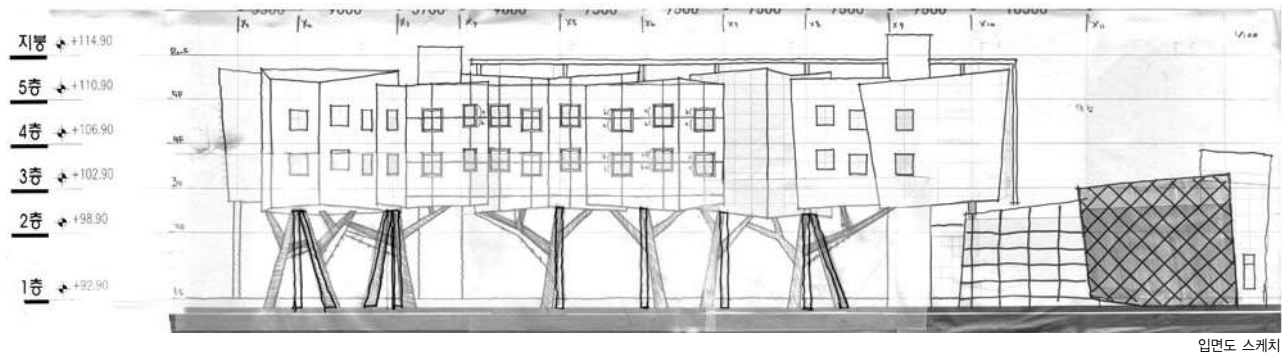
강당의 기능은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되어 다양
한 실의 조합 및 변화에 대응하도록 계획되었으
며, 컨벤션 홀 형태의 공간계획으로 대규모 학교
행사시 의자를 배치하여 사용하며, 가변형 벽체를
이용하여 각종 전시회 및 부분 활용이 가능하다.

재활과학대학의 기준층 평면 공간은 전용시설
Zone과 공용시설Zone으로 크게 나누고, 중정을
중심으로 남, 북측Mass의 전용시설Zone과 서
측Mass의 공용시설Zone으로 계획하였다.

전용시설Zone은 복도를 중심으로 남향은 각
과별 교수연구실을 배치하고 북측에 과별 해당
실습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공용시설Zone은 축선을 중심으로 강
의실 및 컴퓨터 실습실을 계획하였다.

'C'자형태에서의 동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평면 Zoning계획



학과별 평면 Zoning계획

하여 브릿지를 계획하였고 브릿지의 구조체를 디자인화 하였다.

평면은 중복도형 계획으로 실사용율이 높은 교수 연구실, 학생회실, 학과 사무실 등은 남향으로 배치하고, 교수연구실과 강의실은 서로 이격함으로써 교수 연구실의 독립성을 높여 쾌적한 연구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다.

입면계획은 50주년 기념 건물로서의 상징성 및 독특한 형태미를 기본 계획 개념으로 전체 캠퍼스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수행할 오브제로서의 입면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양하고 변화 있는 입면요소들의 조합으로 조형미를 더하였으며, 재료 및 형태를 통한 미래 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캠퍼스 각 방향으로의 다양한 입면성을 고려하여 4면 전체에 대하여 변화 있는 조형계획을

하였다.

저층부 필로티는 동선의 연계 및 기념관 외부 행사·휴게마당, 재활과학대학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한 접근 공간 등의 기능적 역할 뿐만 아니라 조형적으로 외벽의 분절 매스와 변화 있는 입면 요소와 연계되어 '숲'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친환경적 공간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하였다.

또한 필로티를 경관조명으로 활용하여 야간에는 주변 지역에 대한 독창적인 인지성을 갖는 공간으로 공간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며, 중정 마당의 다양한 야간 행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작품에 담긴 건축적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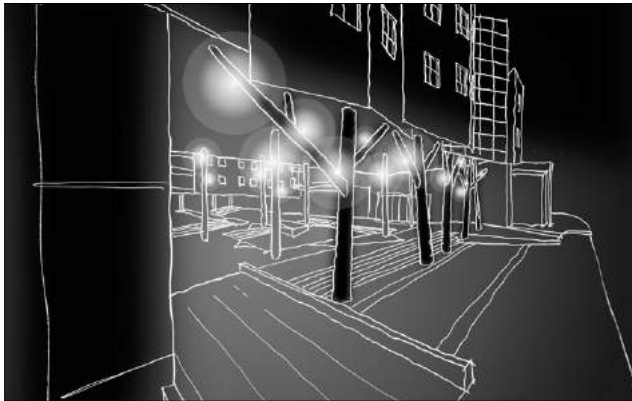
장애우에 대한 특별한 배려, 다양한 접근성,

이제껏 다른 작품에서 선보이지 않은 외부환경 구상 그리고 명쾌한 외장을 표현하므로 50주년 기념관 인지성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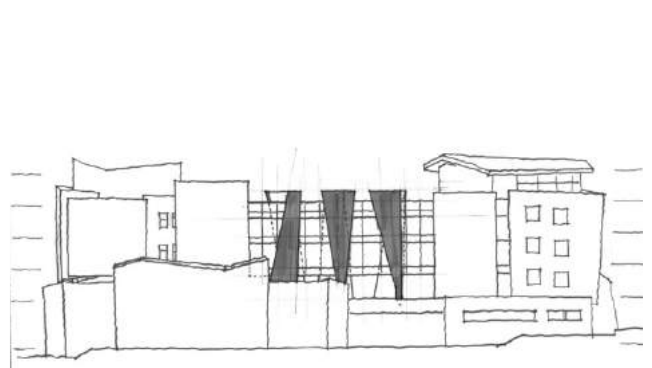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번 공모전에는 유난히 세간의 관심과 눈총을 많이 받았던 프로젝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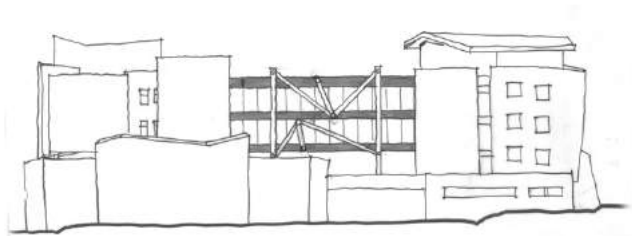
'2005년 인기대학 10'이란 타이틀의 잡지 기사를 복사 배부하면서 발주자측 요구가 특별한 디자인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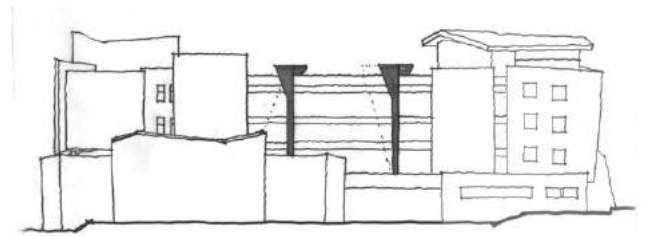
야간조명시설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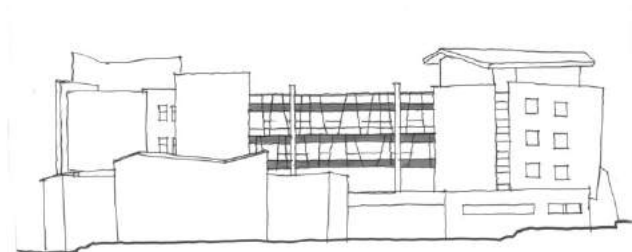
연결브릿지 스케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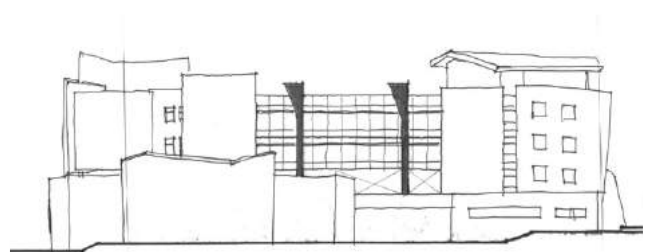
연결브릿지 스케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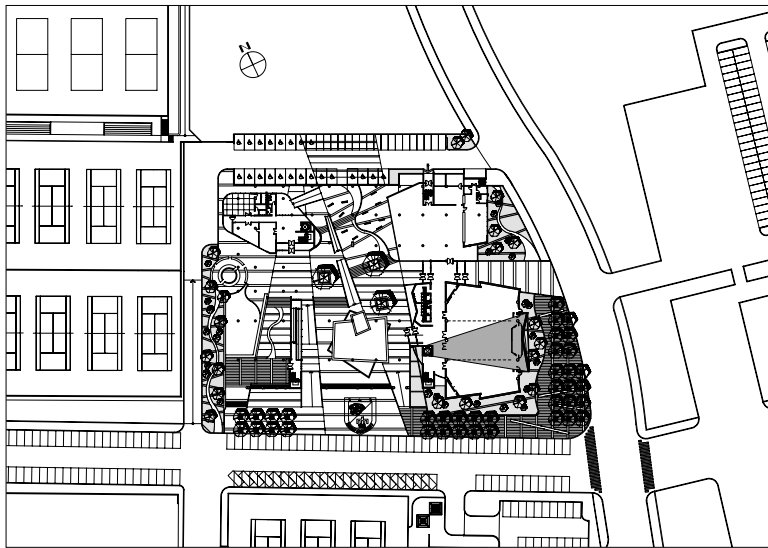
연결브릿지 스케치-3



연결브릿지 스케치-4



연결브릿지 스케치-5



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

대학교 경산 캠퍼스 내

용도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1,561,487.00㎡

건축면적 4,606.94㎡

연면적 11,690.92㎡

주차대수 40대(장애자주차 22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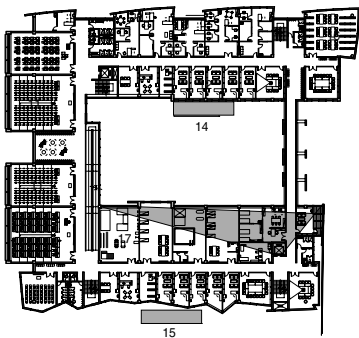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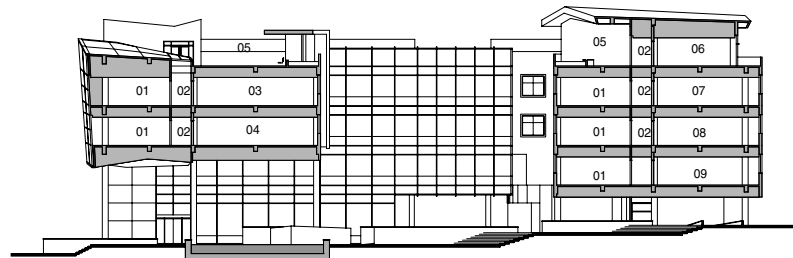
외부마감 알미늄시트, 타타늄아연판, 화강석, 고밀도

목재압축패널, 컬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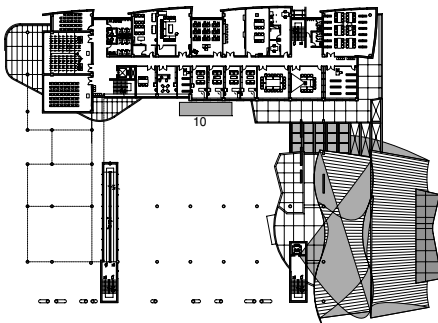
- | | |
|-------------|-------------|
| 01_ 교수연구실 | 06_ 실험실습실 |
| 02_ 복도 | 07_ 직업적응훈련실 |
| 03_ 제2연어임상실 | 08_ 심리검사실 |
| 04_ 전기광선실습실 | 09_ 이동기기실습실 |
| 05_ 옥상정원 | |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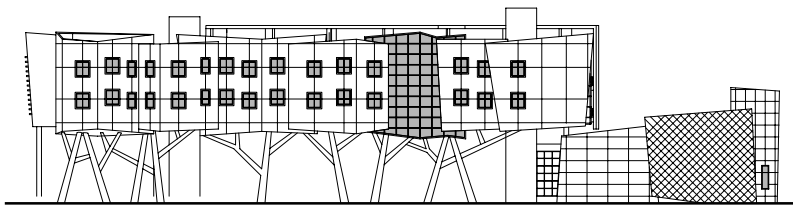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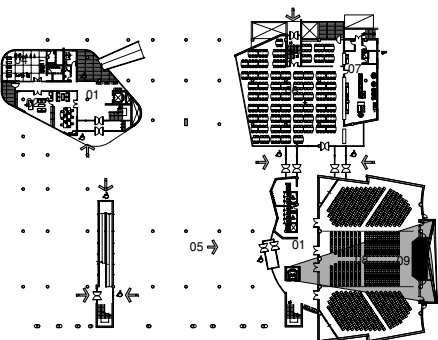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 | |
|-------------|-------------|
| 01_ 출입 | 10_ 재활공학과 |
| 02_ 학장실 | 11_ 강의실 |
| 03_ 재과대학정실 | 12_ 교수연구실 |
| 04_ 제1연어임상실 | 13_ 학생도서관 |
| 05_ 강당주출입구 | 14_ 재활심리학과 |
| 06_ 식당 | 15_ 물리치료학과 |
| 07_ 주방 | 16_ 대학도서관 |
| 08_ 강당 | 17_ 운동치료실습실 |
| 09_ 무대 | |



남쪽입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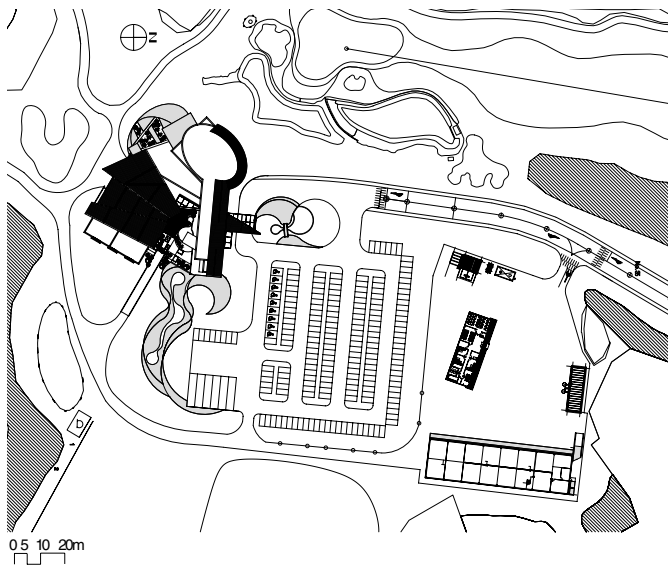
서쪽입면도

제피로스골프장 클럽하우스

Zephyros CC. Club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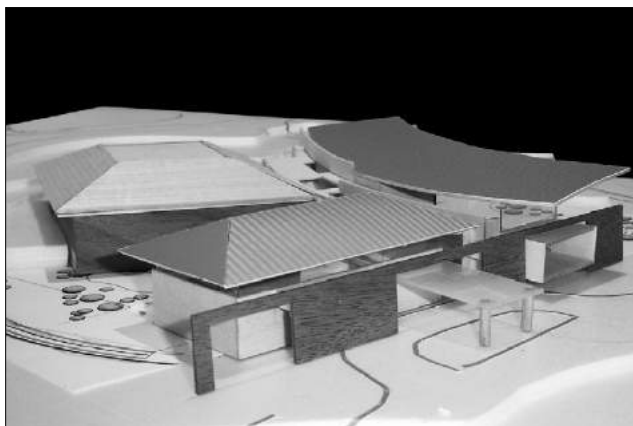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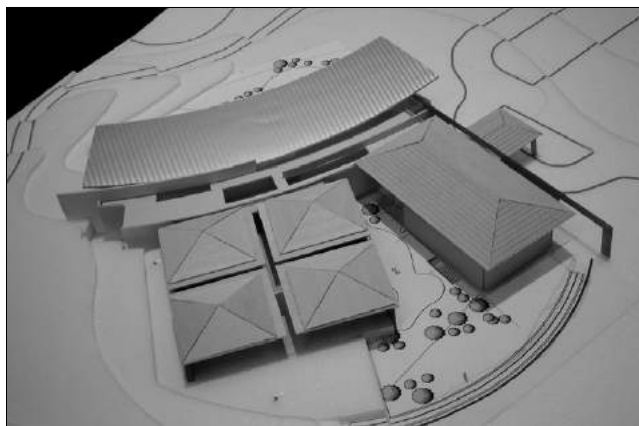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산 26번지 일원
지역지구	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운동시설
대지면적	959,076㎡
건축면적	4,217.14㎡
연면적	6,185.54㎡
건폐율	0.21%
용적률	0.21%
주차대수	207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마감	라임스톤, 징크, 적삼목
설계담당	배기철, 김완덕, 이승찬, 이도형, 신경화





골프 클럽하우스, 왓치모르게 그 우아한 모습과 함께 고풍스런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폭신한 카펫과 휘황찬란한 고급 마감재로 뒤덮인 로비 그리고 아름다운 그린을 조망할 수 있는 레스토랑 등등……. 클럽하우스야 말로 골프장의 핵심이요 중심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각자의 개성보다는 오히려 클럽하우스간의 보편성과 유사성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진다.

클럽하우스는 외관의 이미지보다 훨씬 기능적인 건축물이다. 골프장에서 클럽하우스는 주 공간이기 보다는 그저 주변 보조적 공간에 불과하다. 클럽회원들이 운동 전후에 사용하는 준비공간으로서 주변에 묻혀있어야 한다. 클럽하우스의 목적은 회원간의 사교의 장으로서 존재하는가? 클럽하우스 설계에서 잔디밭을 대신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는 무엇인가? 무늬목 일색의 내장재보다 현대적인 기능적인 재료의 사용은 불가능한 것일

까? 이러한 물음들, 우리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18홀의 사용자를 수용하기에도 작은 면적의 클럽하우스를 의뢰 받은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작은 공간을 가장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 동선계획과 기능적 공간배치는 디자인을 행하는 절대적 요소였다. 그 결과 제피로스 클럽하우스는 흔치않은 매우 특이한 건축외관과 매개공간을 얻게 되었다.

사교공간, 휴식공간, 지원공간으로 구분된 세계의 기능적 매스는 다소 장식적인 기존의 건축물 모습과 분명히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그 서로 다른 공간 사이사이에 외부공간을 끼워 넣음으로서 각기 다른 프레임이 펼쳐지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이런 조작을 통해서 각각의 테마 외부정원을 가질수 있었고, 매우 기하학

적인 구조를 지닌 독특한 외관형식을 가진 설계안을 만들어 낼수 있었다.

클럽하우스로 진입하면서 느껴지는 그 거대한 내면에는 1,200여평 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공간을 전혀 눈치챌 수 없으며, 긴 로비를 수평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길게 열린 사우나 동 사이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정원은 제주의 독특한 지역적 향수가 묻어나는 조경공간으로 계획되는데, 단순 시각적 만족을 위함이기 보다는 시각적 확장을 통해 로비에서는 감각적으로 공간성을 느낄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이 제주 토속 정원을 거쳐 올라가면서 사우나 동과 레스토랑 동 사이에 열리게 되는 또 하나의 사이공간을 만나게 되고 이 인위적 조작 속에 야외 테라스 공간휴식과 커피, 식사를 함께 즐기는 공간연출이 앞선 자연스러움과는 상반된 차별감을 느끼게 한다. 남동쪽엔 타원형의 레스토랑을 배치시킴으로서 수공

간을 매개체로 하여 코스와 제주바다를 아우를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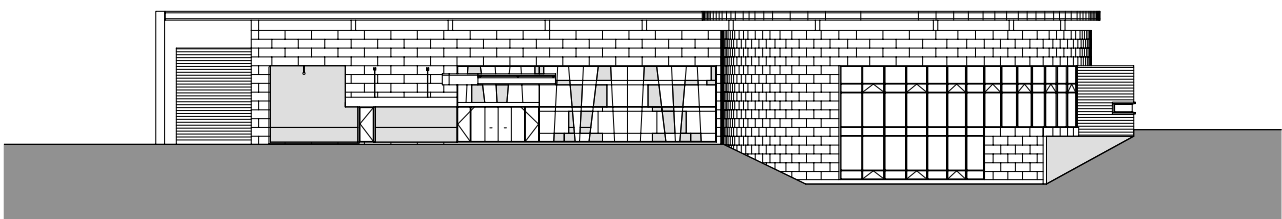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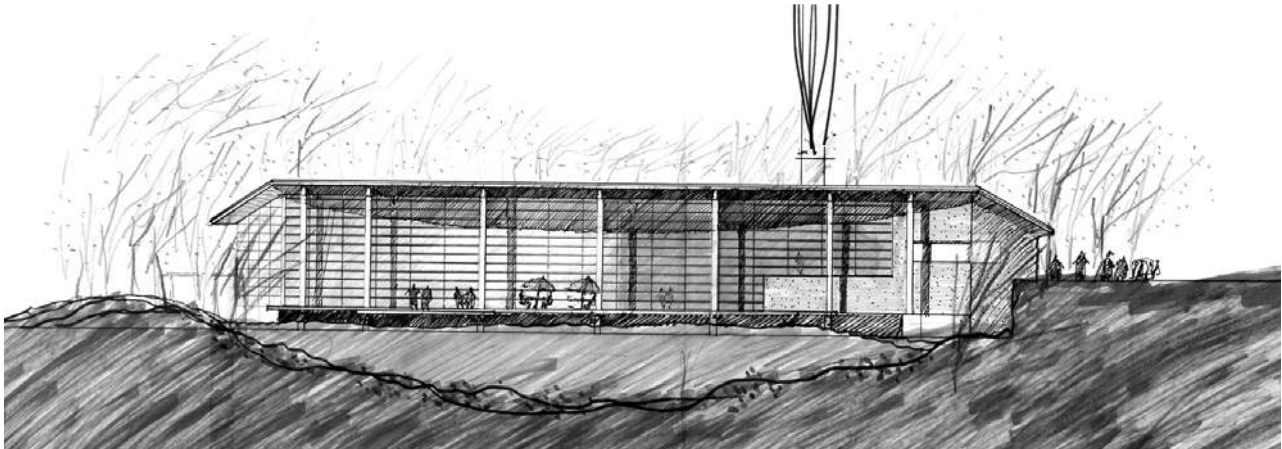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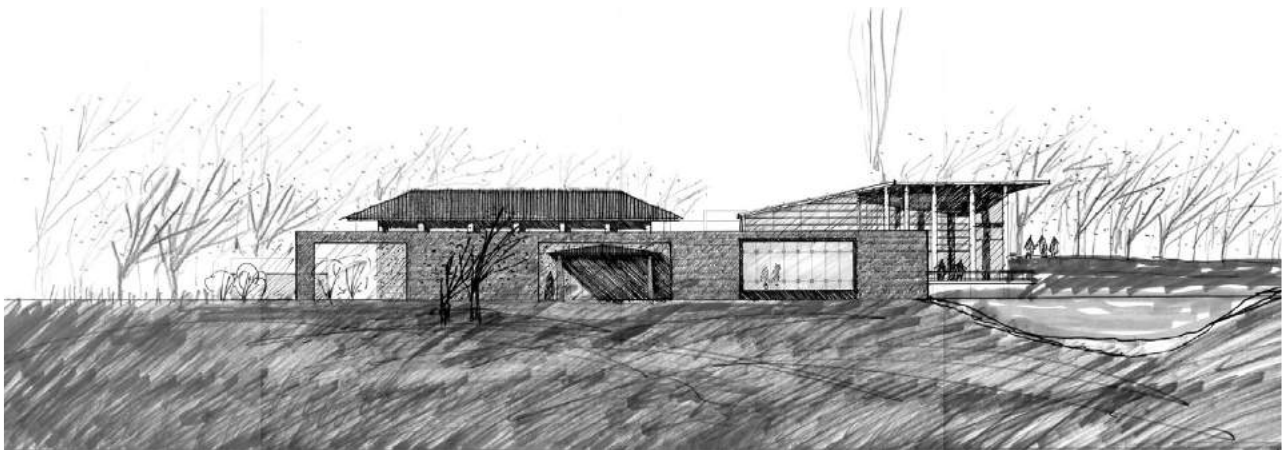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레벨의 조정은 수공간의 연출과 함께 마지막 18번 홀에서 매우 드라마틱한 배경을 만들어 준다. 이를 위해 건축주와 코스 설계자 그리고 공사자 등 관계자들과 수없는 대화와 설득, 충돌과 실험을 통해 확정 될 수 있었으며, 그 실험에 참여한 모두에게 감사한다.

9m 이상 높이를 허용하지 않는 제주도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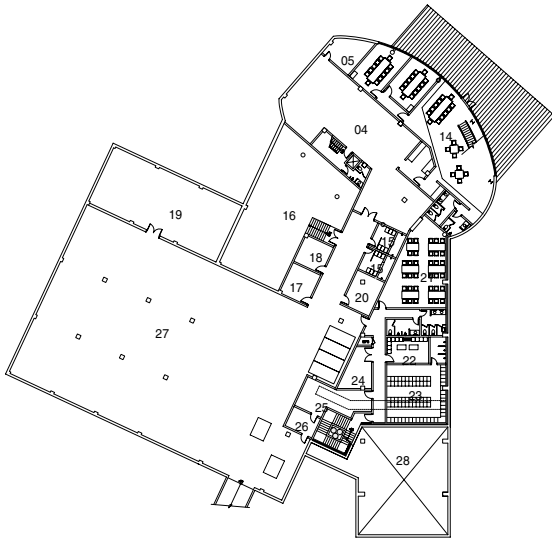
규정으로 수직적 구성감이 결여된 점을 보완하고자 사우나동은 사선을 위주로 하는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되었다.

철골조로 구성된 클럽하우스는 외관의 형태부터 기능적 솔직함을 드러내고 있으나 제주색을 드러낼 석재 마감과 악센트의 부분적인 목재료들, 매우 현대적인 징크 루프 등 자날칠 정도의 절제된 형태미를 제주 토속미에 결합하는 것이 앞으로 설계를 보완하고 마무리하면서 공사감리 과정에서 정중 해야할 남아 있는 숙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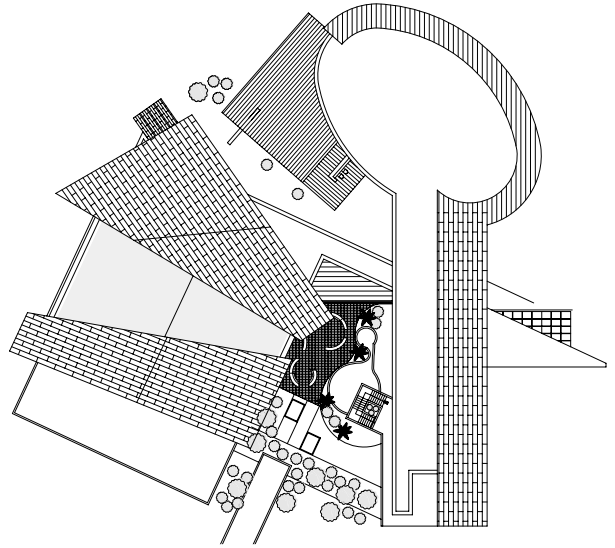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상쾌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그 안에 인공적인 건축물과 조경을 넣어 자연과 어울리게 한다는 것은 건축인들의 이기심이 아닐까 생각도 해본다. 새로운 형태의 탐구는 오래된 건축의 질문이었고 비록 그것이 우리만의 형태적 호기심일 지라도 이를 통해 새로운 건축적 전형을 만들고 그속에서 사용자들에게 자연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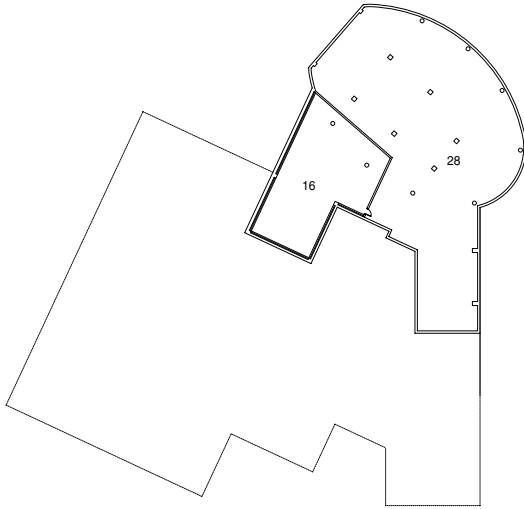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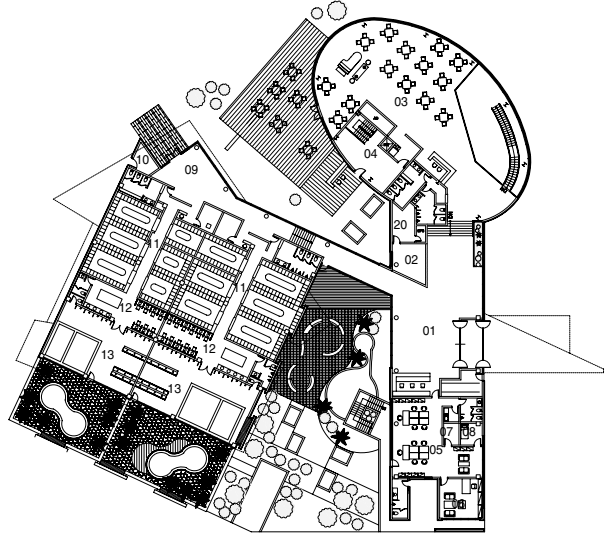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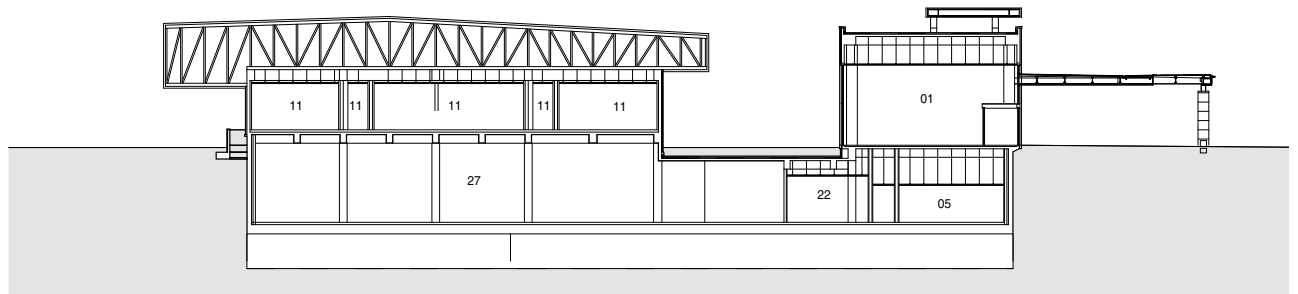


PIT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 | | |
|-----------|-----------|------------|
| 01. 로비 | 10. 경기진행실 | 19. 물탱크실 |
| 02. 프로샵 | 11. 락커룸 | 20. 창고 |
| 03. 레스토랑 | 12. 파우더룸 | 21. 직원식당 |
| 04. 주방 | 13. 사우나 | 22. 캐디휴게실 |
| 05. 사무실 | 14. 단체실 | 23. 캐디락커룸 |
| 06. 사장실 | 15. 직원락커룸 | 24. 세탁/린넨실 |
| 07. 통신실 | 16. 기계실 | 25. 골프백보관소 |
| 08. 숙직실 | 17. 전기실 | 26. 캐디마스터실 |
| 09. 스타트루비 | 18. 중앙감시실 | 27. 카트고 |
| | | 28. pit |



단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서울북부지방법원청사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법원행정처에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설계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설계안 즉, 공모지침에 충실하면서도 청사의 외관은 부지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법원의 정형적이고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친근감을 갖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의 확보와 설계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설계경기를 실시한 바 당선작으로는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공동 우수작으로는 '(주)준원건축사사무소'와 '(주)동우E&C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금두연)

대지위치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26번지 일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로구획별 높이제한구역(90m)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27,722.41㎡
건축면적	5,190.24㎡
연면적	37,442.62㎡
건폐율	18.72%
용적률	105.01%
규모	지하1층, 지상12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24 컬러복층유리, 알루미늄패널, 화강석 물갈기, 목재패널
설계팀	김 상, 이흥주, 조 일, 류무열, 구자혜, 이인수, 장우준, 문지윤

신축될 북부지방법원청사는 크게 청사동, 법정동민원동으로 이루어진 유기체이다.

이전의 법원은 경직된 배치와 입면의 답습으로 도시를 위협하는 하나의 점으로 인식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인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다가가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도시적인 매개체가 되어야 하며, 추후 새로운 청사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부지방법원 신청사는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개발에 하나의 실마리가 됨과 동시에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동시에 표출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북부지방법원청사를 위한 3가지 큰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흐름 삼입하기

장소성을 배제한 기본형의 청사공간이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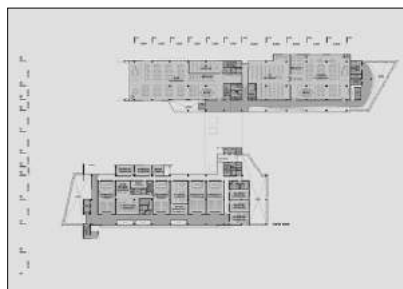
라 주어진 대지 주변의 인문, 자연환경을 토대로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수락산과 도봉산을 잇는 경관축을 실마리로 대지의 동서 출입구를 잇는 강한 흐름을 보행동선, 매스의 문(門)형 배치로써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

주변에 다가가기

삼입된 흐름을 중심으로 주민에게 개방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을 실현한다. 기존의 경직된 입면구성 요소들을 지양하고, 커튼월시스템을 이용한 파사드구성, 사선을 적용한 매스계획, 실내 오픈공간인 민원동 콘코스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을 적용하여 물리적, 시지각적으로 휴먼스케일에 다가서도록 하며 주변 도시맥락에 비전을 제시하도록 한다.

양질의 공간 구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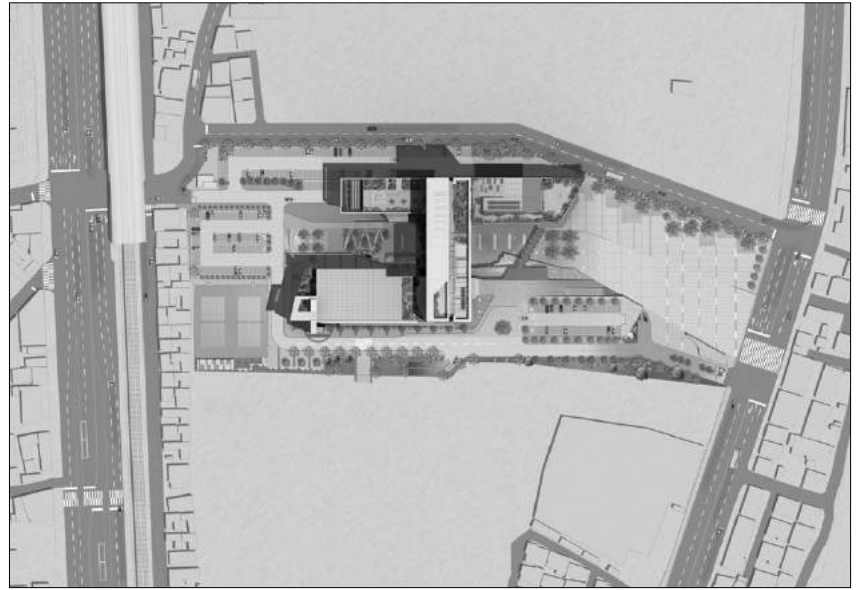
민원공간, 법정공간, 청사공간이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상이한 이용자 동선이 얹혀있는 법원청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적절한 기능의 충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간을 창조하며, 다양한 변화와 요구치들을 수용하면서 양질의 사무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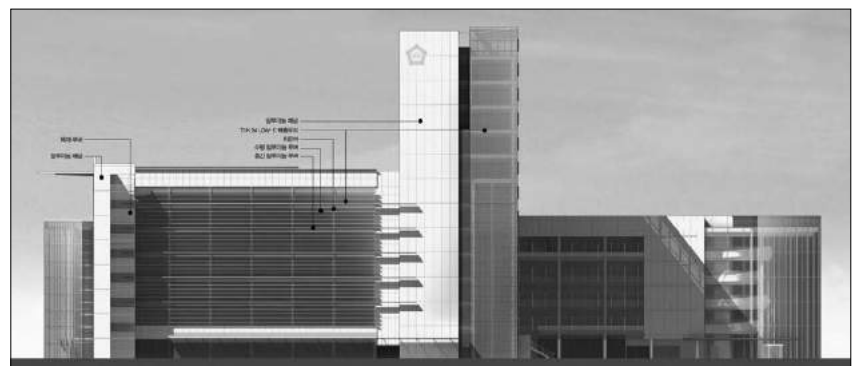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남측입면도

서울북부지방법원청사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우수작 / (주)준원건축사사무소(조형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6번지 일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27,722.44㎡
건축면적 5,311.39㎡
연면적 37,452.45㎡
건폐율 19.16%
용적률 112.08%
규모 지하 1층, 지상 15층
설계팀 나 상, 이옥화, 김일래, 홍병선

서울북부지방법원 청사 부지는 도봉산을 배경으로 하며 앞에는 중랑천이 흐르는 그리고 수락산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최적으로 갖춰진 곳이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 맞춰 자연과 순응되게 배치하고 법원특유의 업무구역에 따른 동선 흐름이 서측의 대중교통(도봉역)과 동측의 자동차 진입동선 축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업무구역별 건물 이용측면에 있어서도 일반 민원동은 접근의 편리화로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법정동은 다양한 재판이 동시적 또는 집중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 하였으며, 청사동은 능률적인 재판연구 및 집무환경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내부의 기능은 최고의 법률서비스에 충족될 수 있도록 동선의 구분 및 단축을 하는 실 배치를 고려 하였고 외관은 저층부의 기반부적인 석재, 고층부

의 AL커튼월+유리재료 등을 조화되게 사용하여 투명성과 개방감, 안정감을 줌으로서 친근감이 있는 법원이 되도록 의미를 더하였다.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배치도



좌측면도

서울북부지방법원청사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우수작 / (주)동우E&C 건축사사무소(홍호용 · 남효철 · 김태명)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6번지 일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 도 공공의 청사
대지면적 27,722.44㎡
건축면적 6,490.05㎡
연 면 적 37,191.37㎡
건 폐 율 23.41%
용 적 률 103.27%
규 모 지하 1층, 지상 13층
설 계 팀 심재한, 최준섭, 유선아

풍경이 있는 법원

전면도로를 중심으로 좁고 긴 방향성을 가진 대지 조건은 법정동, 청사동, 민원동의 프로그램을 담아내기에는 불리한 조건으로 보였으나 대지를 읽고, 불륨을 앉히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수락산과 뒤로는 도봉산이라는 자연경관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흐름에 따라 자연이 열려지기도 하고 사람이 모아지면서 동선을 이어주는 다양한 위계의 외부공간은 주변 자연경관을 즐기며 각각의 독립된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풍요로운 풍경이 있는 법원을 계획하였다.

열린 법정의 상징성

법원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다소 경직되고 권위적인 느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을 집행하는 법정의 불륨을 투명한 외피에 담아냄으로써 시민에게 열려진 공정한 법원의 상징성을 부

여하였다.

다소 경직되고 불안정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의 일반인들은 투명한 외피에서 쏟아지는 햇빛의 풍요로움을 온몸으로 받으며 열려진 아트리움을 통해 오르내리는 모습 속에서 스스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더불어 사는 법원

추후 인접한 검찰청과 함께 법조타운을 형성하여 새로운 도시의 상징적 장소로 제공되는 법원은 일반인들과 더불어 다양한 개방적 마당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시설이 배치된 시민마당은 대지를 열어주는 영역으로, Public, Private 공간이 연결되는 민원마당은 목적동선과 행위를 이어주는 장으로써, 대지내 레벨차를 이용한 판사 및 직원들의 사적 영역은 자연을 바라보는 사색의 영역으로,



끝으로, 추후 건립될 검찰청 및 광역등기소와 연계되는 청사마당을 통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더불어 사는 법원 만들기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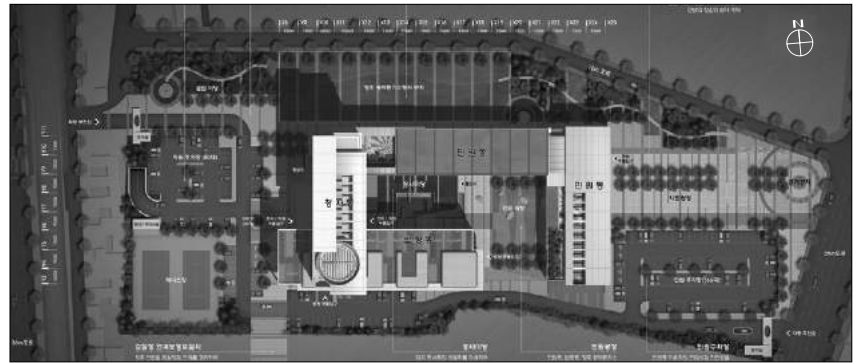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배치도



우측면도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Cartoon Valley

부천시는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건립하여 그동안 시에서 육성해온 만화관련 시설을 집적화하고 필수 인프라 기능을 추가 확보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으로써 만화산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아시아 최고의 만화산업 중추기지를 확보함으로써 21세기 문화컨텐츠 중심국가, 동북아권 최고의 만화영상산업 기지로 육성코자 현상설계경기(턴키)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 '현대건설+(주)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무명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에드종합건축사사무소 + NBBJ + 김광배(고려대)'의 안을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현대건설 + (주)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무명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에드종합건축사사무소 + NBBJ + 김광배(고려대)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부천영상문화단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유원지)
용도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17,752㎡
건축면적 5,282.81㎡
연면적 23,094.21㎡
건폐율 29.75% (법정: 30.00%)
용적률 83.68% (법정: 120%)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배치계획

정지되어 있는 빈 대지에 자유롭고 동적인 만화의 곡선을 대입하여 만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창작 및 지원시설인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계획한다.

전시 및 지원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문화의 흐름을 유도하고, 다양한 콘텐츠의 전시와 체험이 가능하게끔 배치한다.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문화의 씨앗이 되어 도시로 퍼져 도시의 흐름에 편입되게 한다.

· Landmark

시 경계에 위치하여 도시 진입으로의 관문이 되어 부천시의 랜드마크이자 새로운 문화적 명소이며, 도시성장 거점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 Access

주변 녹지축에 순응하여 자연스런 접근을 유도하고, 주변 공간구조를 고려한 입구계획 및 외부공간을 배치한다. 대중을 Cartoon Valley로 흡입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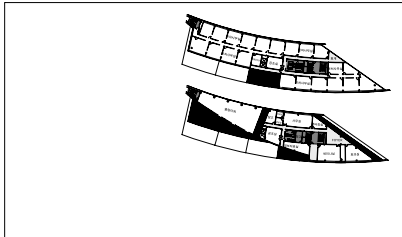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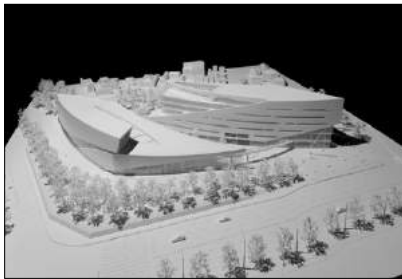


·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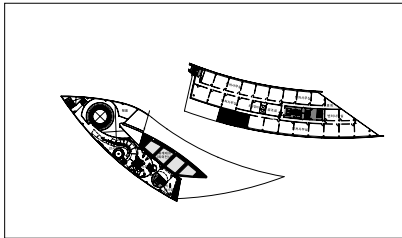
만화산업의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위해 역동적인 배치를 하였으며, Cartoon Valley를 공유하며, 분리된 관련시설을 집적 배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

· Con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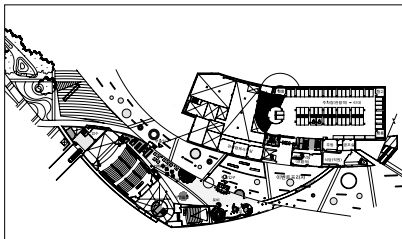
Cartoon Valley를 통해 퍼져나가는 Culture Seed로서 장래 부천 영상문화단지의 character가 되어 단지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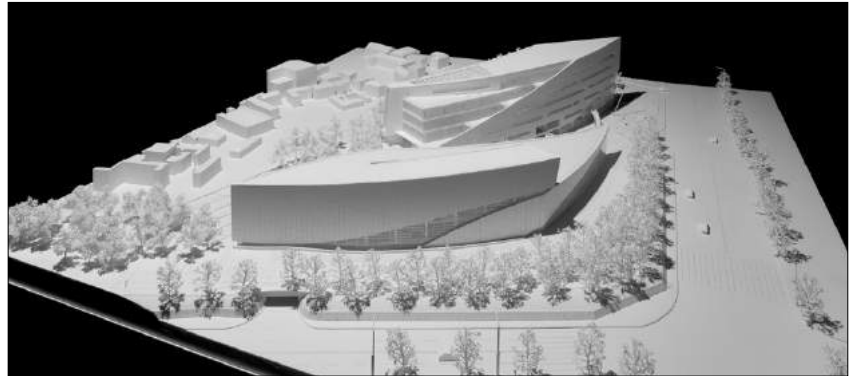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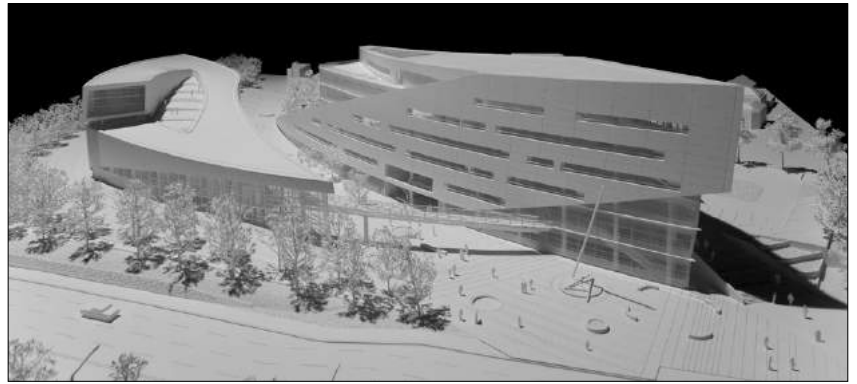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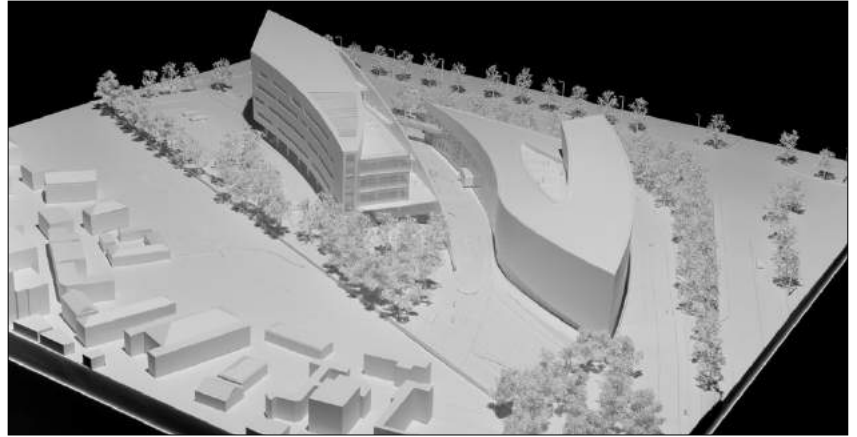
4,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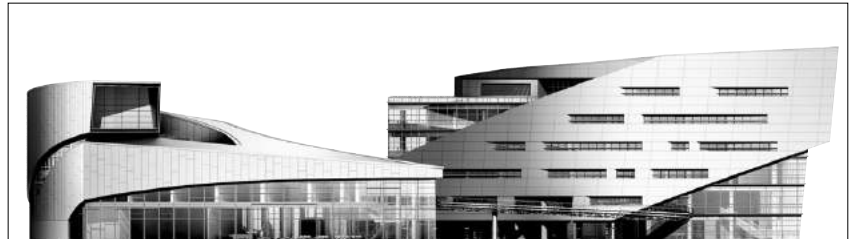
3,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입면도



입면도

박 시 익
명당건축사 사무소
by Park Si-ik, KIRA

풍수지리로 본 피라미드와 그리스 건축미술의 기하학과 철학-03(완)

Geometry and Philosophy of Pyramid
and Greek Architectural Art Seen
through Fengshui

-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기하학적 구조와 풍수지리

파르테논 신전 입면의 기하학적 구성

파르테논 신전은 외관상으로 수평선의 기단, 원형의 수직 기둥, 수평선의 처마 벽, 삼각형의 지붕 등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외형적으로는 잘 나타나 있어 구분하기에 쉬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파르테논의 입면도에서 외형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몇 가지 기하학적인 요소를 찾아냈다. 이들은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파르테논 신전의 형태를 더욱 신비하게 만들어 준다. 필자가 찾아낸 파르테논 신전 입면의 기하학적인 요소는 원형 피라미드, 삼신 아치, 무지개 등 몇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된다.

파르테논 신전은 지면을 이루는 수평선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때 수평선은 바닷물을 상징한다. 파르테논 신전 동쪽 측면 형태는 수평선의 중심부에 원형을 배치한 형태다. 중심원의 형태는 외형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파르테논 신전 입면도의 중심적인 기준이 된다. 중심원은 태양을 상징한다(이하 태양이라 칭함).

파르테논 신전은 지면에서부터 1층 바닥까지는 수평선의 계단이 있다. 신전의 외관상 여러 층의 수평선 계단 위에 수직선의 기둥이 올라서 있어 전체적으로 수평선과 수직선이 균형미를 이룬다. 특히 파르테논 신전의 외형은 계단을 포함하여 비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 네 면에 있는 계단의 수평선은 상징적으로 보면 강이나 바다 등 여러 종류의 물을 상징한다. 물은 생명의 필수품이다. 신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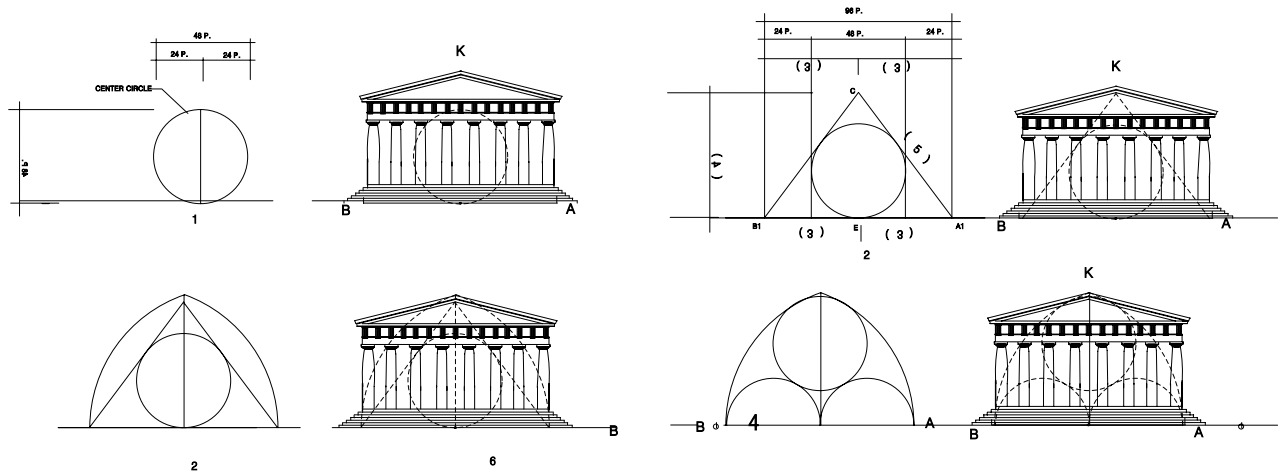


그림 18. 파르테논 신전 입면도 1

네 면을 계단으로 감싼 형태는 파르테논 건설 당시 물을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계단의 규모를 제외한다면 정확한 비례를 구할 수 없다. 바다는 물의 원천이다. 태양과 수평선을 결합하면 파르테논 신전의 입면은 수평선 위에 떠 있는 태양, 즉 태양과 바다를 상징한다.

파르테논 신전 입면도의 중심부에 원형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원형은 태양을 상징하며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신전 입면의 구조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나타낸다. 평면도에서 태양의 지름은 파르테논 동쪽 측면 폭 96피트의 1/2인 48파르테논 피트(=16Me')이다. 태양의 지름이 신전 폭의 1/2이라는 점은 신전의 외형이 태양과 비례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태양은 밝고 따뜻한 빛으로 생명력을 만들어 준다. 반면 원형을 받쳐 주고 있는 수평선은 바다를 상징한다.

태양과 물을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사상이 파르테논 신전 건물의 외형에 담겨 있다. 파르테논 신전의 형태에는 수평선 위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고 낮에 뜨겁게 비취고 저녁에는 저무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건물의 중심부에 있는 중심원은 파르테논 신전이 태양의 가장 강한 기운이 머물고 있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즉, 파르테논 신전은 태양신이 영원히 축복해 주는 행운의 공간이다. 일반적인 책에 출간된 파르테논에 대한 평면도에는 거의 계단이 생략되어 있다. 설혹 계단이 그려져 있더라도 매우 조금만 그려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필자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기단이 매우 많았다. 계단이 중요한 공간의 역할을 함에도 그려지지 않은 것은 정확한 도면이 아니다. 필자는 파르테논 신전 평면도에 계단의 높이와 폭을 그려야 보다 정확한 평면도가 된다고 생각한다.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언덕의 지표면은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데,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필자는 파르테논 신전의 지면에서부터 1층 바닥까지 평균적인 계단의 높이는 3.21833미터(=10Pa.ft.)라고 생각한다. 계단의 높이 3.21833미터는 동서 축 사이에서 중간 지점의 높이 또는 동쪽 측면의 높이로 가상한다.

파르테논 신전 입면에는 태양이 있고 이 태양의 하부와 좌우 양면을 외접하여 삼각형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삼각형은 3:4:5의 피라미드 비율을 이

루고 있어 이하 필자는 가칭 '피라미드'로 칭한다. 피라미드는 태양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피라미드의 밑변 길이(A1B1)는 신전의 폭과 동일한 96파르테논 피트다. 파르테논 신전은 피라미드 하변 폭을 건물의 폭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 피라미드의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은 3:4다. 직각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가 3:4이며 나머지 한 변 길이는 5이다. 이와 같이 파르테논 신전 입면은 3:4:5 비율의 삼각형, 즉 피라미드 삼각형이 태양을 외접하는 길이로 구성되어 있다.

피라미드의 정점은 신전 내부에서 천장의 높이에 해당된다. 3:4:5 비율의 피라미드는 신비한 기운, 즉 행운의 기운을 의미한다. 파르테논 신전의 형태가 3:4:5의 비율을 이룬 것은 3:4:5의 비율의 신전이 행운의 공간임을 나타낸다. 피라미드 삼각형의 높이는 식 $48(=96Pa.ft. \times 1/2):x=3:4$ 에서 x 는 64Pa.ft.가 된다. 파르테논 신전 중심부의 계단 하부에서부터 처마 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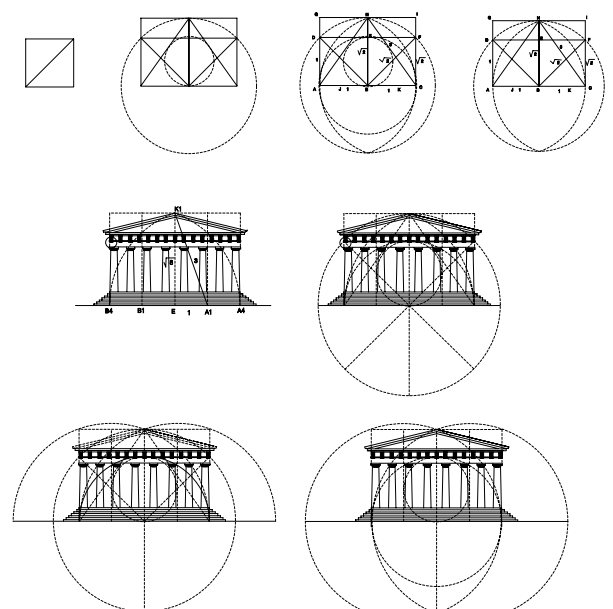


그림 19. 파르테논 신전 입면의 피라미드 비율

까지의 높이는 64Pa.ft.(=20.597미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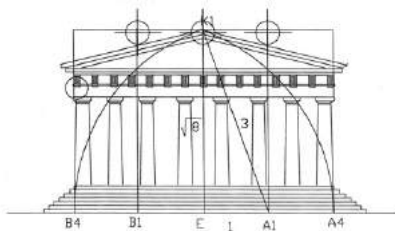


그림 20. 삼신아치

〈그림 20〉의 파르테논신전 삼선아치 하부 AB의 1/4 되는 점을 원의 중심점으로 하고, 나머지 3/4되는 A와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두 개 그려 두 개의 원호가 만나

는 점을 K1로 정한다. 이때 원호 AK1B는 아치를 이루는데, 이 아치를 필자는 가칭 '삼신 아치'라고 이름 한다. 삼신 아치는 세 개의 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삼신은 종교적으로 삼위일체, 즉 창조주 하느님을 상징한다. K1은 파르테논 신전 지붕 상부를 나타내는데, 삼신 아치로 파르테논 신전의 지붕 높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1-B1의 길이는 40이다. 삼신 아치의 반지름 A1-K1의 길이는 30이다.

직각삼각형 EA1K1에서 EA1의 길이는 10이며 대각선(=반지름) A1K1의 길이는 30이다.

피타고라스 법칙에 의해 $\sqrt{3^2 - 1^2} = \sqrt{8}$

신전의 폭이 30.88미터며 EA1의 길이는 신전 폭의 1/40이다.

루트 $8 \times 30.88 \times 1/4 = 21.83$ 미터다.

21.83미터 - 3.21미터(기단 높이, 10Pa.ft.)=18.55미터,

기단 위에서부터 지붕 상부까지의 높이는 18.55미터가 된다.

파르테논 신전 외형을 이룬 3/4 아치 외부에는 두 개의 반원이 감싸고 있다. 두 개의 반원은 A1B1의 중심점 E를 원의 중심으로 한다. 큰 반원의 지름은 50Pa.ft.이며 작은 반원의 지름은 48Pa.ft.다. 두 개의 반원은 마치 신전을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와 같은 형태를 이루어 '파르테논 무지개'라고 이름 한다. 파르테논 무지개 중에서 지름 길이가 50Pa.ft.인 원호는 무지개의 외부선이며 지름 길이가 48Pa.ft.인 원호는 무지개의 안선이 된다. A1B1의 수직선과 무지개 안선이 만나는 점은 지붕선을, 반원은 신전의 지붕면을, 반원과 벽의 수직선이 만나는 교점은 처마 벽의 위치를 나타낸다. 지붕은 하늘을 대신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그리스 신전들은 공통적으로 동쪽을 향하는 배치를 하고 있다. 풍수지리 이론으로 분석하면 태양빛의 소리의 일종이다. 아침에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은 기상나팔 소리와 같아 이 소리를 듣고 사람이나 나무 등 각종 생명체는 잠에서 깨어나 활동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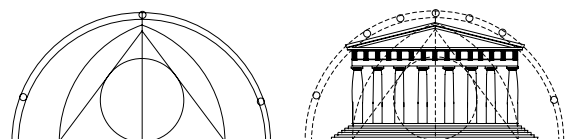


그림 23. 무지개

다. 정오의 태양은 빠른 음악으로 사람의 활동력을 강력하고 빠르게 한다. 저녁의 태양은 사람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잠자리에 들어가 늦게 한다. 이와 같이 태양은 여러 종류의 소리로 사람의 움직임을 다르게 한다. 산이나 나무도 태양과 같이 움직이며 동시에 동일한 소리를 발생한다. 태양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서도 소리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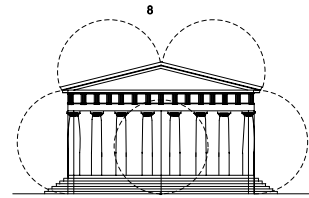


그림 24. 음악

태양이나 산이나 바다 등 자연은 모두 고유한 소리를 내고 있다. 산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산신의 말씀, 태양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태양신의 말씀, 바다의 파도 소리는 해신의 말씀이며, 신전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소리는 신전의 공

간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함께 어울려 신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전달된다.

태양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사람에게 들리지 않듯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리 역시 매우 작은 소리여서 사람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소리들은 장기적으로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한 사람들은 이 신전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중요시 생각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가 발생하는 신전에 되도록 건설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의 형태에 따라 소리와 진동이 다르듯이 건축물에도 소리와 진동이 있으며 이 진동은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피아노 건반의 소리는 피아노 내부 피아노선의 굵기나 길이 등에 따라 다르게 된다. 예컨대 저음의 피아노선은 고음의 피아노선에 비해 길이가 길다. 동일한 재료에서도 길이에 따라 음의 고저가 달라진다. 건축물에 있는 공간, 예컨대 기둥에서 발생하는 소리도 길이가 길면 저음이, 길이가 짧으면 고음이 나온다. 저음은 고음보다 안정된 소리를 발생하여 명당의 소리가 된다.

그리스인은 악기뿐만 아니라 건축물 역시 아름다운 진동으로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한 듯하다.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아름다운 진동과 소리는 사람에게 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를 가까이 하게 만든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며 사랑으로 움직일 때는 즐겁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아름다운 건축물 역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다. 웅한 건축물에서는 공포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불안하게 된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아름다운 진동으로 인해 건물 내부에 생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즐거움을 준다. 이러한 공간미의 개념이 파르테논 신전에서도 나타난다.

그리스인은 하늘과 태양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바로 정하는 곳이 신전이라고, 그리고 신전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음악이 되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인은 신전을 거대한 울림의 공간, 즉 음악이 발생하는 악기라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공간에서는 아름다운 음악과 진동이 있다고 생각했다. 신전의 공간을 구성하는

벽, 지붕, 천장 등 건축물의 각 부분은 소리 발생의 근원이 된다고 믿었다. 그리스인은 아름다운 소리가 발생하는 신전을 지으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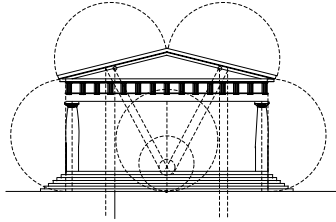


그림 25. 파르테논 신전의 기묘임

파르테논 신전 건물은 계단을 포함한 벽면의 높이와 지붕 경사면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 같은 길이의 구조는 시각적으로 안정되고 아름다운 형태를 이룬다. 같은 길이의 구조는 소리와도 관련된다. 즉, 빗방울이

지붕 위에 떨어지면 소리가 난다. 빗방울이 벽면을 부딪치면 역시 소리가 난다. 건물에서 울리는 소리는 재료의 길이에 의해 달라진다. 벽면과 지붕을 같은 길이로 하면 재료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같다. 같은 길이의 건축 구조에서는 아름다운 진동, 즉 소리를 만든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된다. 그리스 신전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소리가 울리도록 하기 위해 벽면과 지붕면의 길이를 같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르테논 신전은 남쪽 벽의 높이와 지붕 경사면의 길이가 같다. 북측 벽면과 지붕의 길이도 같아 전체적으로 남쪽과 북쪽 외벽 2면과 지붕 2면의 길이가 갖고 따라서 4면의 면적도 같다. 길이가 같으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같게 된다. 같은 소리가 발생하는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갖게 된다.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한 사람들은 안정된 소리, 즉 아름다운 소리가 실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벽과 지붕의 길이를 같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르테논 신전의 실내 바닥에서 지붕으로 수직 상승한 기운이 천장과 지붕에 반사되어 신전의 중심부에 모이는 형태를 이룬다. <그림 25>에서 실내의 바닥 1/4 지점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기운이 경사면의 지붕에 부딪힌 후 반사되어 되돌아 나와 신전의 실내 중심에 모인다. 지붕의 경사 각도에 따라 반사된 기운의 방향을 달라진다. 파르테논 신전의 지붕 경사는 반사된 기운이 실내 중심에 많이 모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파르테논 신전은 지붕이나 천장에 의해 지상에서 발생한 기운과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변화되어 실내의 중심부에 모이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북과 같은 악기는 공통적으로 중심부가 비어 있어 아름다운 소리가 여운을 길게 만들어 준다. 파르테논 신전의 창고의 기둥 배치는 중심부를 비어 두고 기둥을 좌우 측면에 배치하고 있다. 신상실 역시 중심부를 비어 둔 것은 동일하다. 풍수지리 이론으로 분석하면 명당에서는 아름다운 소리가 발생하지만 흉지에서는 무섭고 흉한 소리가 발생한다.

파르테논 신전의 입면도는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향해하는 배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의 평면도는 신상실과 보물창고 등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 방은 배의 선실과 기관실을 연상케 한다. 입면의 형태 중에서 수평선과 계단은 바닷물과 파도를 의미하며, 신전 주변의 기둥들은 세워 놓은 배의 노를 상징한다. 좌우 양단의 기둥을 높히면 노의

형태가 된다. 신전의 입면은 태양신을 배의 중심부에 두고 있다. 신전의 높이에 적용된 피라미드의 3:4:5 비율은 행운을 의미한다. 또한 태양신이 배의 중심에 있는 만큼 항상 쾌청한 날씨를 맞이하게 된다. 파르테논 신전은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 동쪽으로 진행하는 배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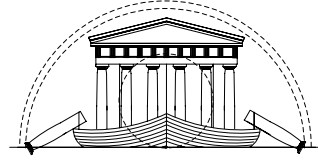


그림 26. 배

필자는 파르테논 신전 입면도를 분석하면 이 신전의 입면에는 평면도와 다른 단위 길이, 즉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파르테논 신전 남북 축 길이는 30.88미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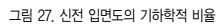
96(=95.95)파르테논 피트로 계산하고 있다. 즉, 파르테논 건설 시에 사용된 척도 1파르테논 피트는 32.1833센티미터라는 말이다. 그런데 평면도에서는 15파르테논 피트(4.8275미터)를 1단위 길이로 사용했고, 입면도에서는 3파르테논 피트(96.5499센티미터)를 1단위 길이로 사용하고 있다. 평면도와 입면도에서 각각의 서로 다른 단위 길이(모듈)를 사용하고 있다. 입면도에 사용된 단위 길이를 평면도의 모듈과 구분하기 위해 필자는 편의상 'Me'로 쓴다. 파르테논 신전 남북 축의 길이 96파르테논 피트는 32Me'가 된다. 건물의 폭은 좌우 첫 번째 기둥의 외부선을 기준선으로 한다. 기둥의 직경 1.9미터는 2Me'가 된다. 전면의 길이에서 외곽 기둥 중심 간의 길이 90Pa.ft는 30Me'이다. 입면의 형태는 32Me'를 8Me'씩 4등분한 점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 입면은 중심원의 지름이나 건물의 폭 등이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비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특히 무지개 형태의 반원에 의한 입면도는 태양이 동쪽에서 올라와 서쪽으로 지는 동안의 12시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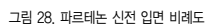
태양이 떠 있는 12시간은 새벽 2시간, 아침 2시간, 낮 4시간, 오후 2시간, 일몰의 2시간으로 구분된다. 이들 시간 간의 비율은 1:1:2:1:1을 이룬다. 12시간 중에서 새벽 2시간과 일몰 2시간은 작업하기에 좋지 못한 시간이다. 태양 기운이 사람의 활동에 알맞은 시간은 아침 2시간, 낮 4시간, 오후 2시간으로 모두 8시간이다. 이것은 그리스인이 아침 8시부터 저녁 4시까지 하루 8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8시간 근무시간도 태양의 밝기로 구분되는데, 아침의 2시간은 따뜻한 시간, 한낮의 4시간은 가장 밝은 시간, 저녁의 2시간은 약간 서늘한 시간 등 전체적으로 2시간:4시간:2시간=1:2:1이 된다. 입면도에 나타난 시간 개념은 평면도의 시간 개념에 비해 약간의 차이가 있다.

12시간대의 공간은 신전 각 부분에서 길이의 비율로 나타난다. 즉, 직경48Pa.ft의 중심원 좌우에는 24Pa.ft의 피라미드가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피라미드 좌우에는 역시 폭 24Pa.ft의 외부공간(무지개)이 있어 전체적으로 24:24:48:24:24=1:1:2:1:1의 비율로 중심부를 크게 하고 그 좌우를 작게 하는 비율을 이루고 있다. 이 비율 중 중심부의 1:2:1은 신전의 외형

기단에서부터 처마벽(테니아) 중간 까지를 벽면의 높이로 하고 양 측면 기둥의 중심선까지의 길이를 건물의 폭으로 할 때 높이에 대한 폭의 비율 2:4의 사각형을 이룬다. 벽면 2×4 비율의 사각형은 1:2:1 비율에 의해 전면 중심부에 2×2의 정사각형을, 그 좌우에는 2×1의 사각형을 각각 배치하여 모두 3개의 사각형 형태를 이루게 한다. 기둥 8개 중에서 우측 2개 기둥은 아침, 중앙의 4개 기둥은 낮을 그리고 좌측 2개 기둥은 저녁을 상징한다. 중심부의 정사각형은 하루 12시간 중에서도 가장 태양의 빛이 밝고 뜨거워 생명력이 가장 많은 4시간을 의미한다.



신전은 전체적으로 행운이 가득 찬 공간, 즉 지상의 극락을 의미한다.



파르테논 신전 입면도의 기하학적 제도

수평선을 그리고 좌우 양쪽 끝은 A(우측 끝)와 B(좌측 끝)로 각각 정한다. AB 사이의 길이를 48.25센티미터로 하면 그림은 실제 건물에 비해 축척 1/100이 되며 AB 사이의 길이를 24.125센티미터로 하면 그림의 축척은 1/200이 된다. AB 사이 각 점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AB 사이를 50등분한다. 중심점 E에서 A와 B까지는 각각 25등분점(단위 거리)이 된다. E에서부터 A 사이에는 중심에서부터 외부로 나가면서 8등분점(A1)+8등분점(A4)+8등분점(A6)+1등분점(A)=25(A)의 간격으로 구성된다. A1과 A4 사이에는 세분하여 A1+2등분점=A2, 그리고 A2+5등분점=A3을 각각 정한다. 중심점 E로부터 B까지는 E-A에 대칭되게 B1-B6을 정한다. 그림에서 A4-B4 사이의 중심부 8×4=32 단위 길이는 건물의 외곽선이다. A5-B5 사이의 40단위거리는 외부 기단의 위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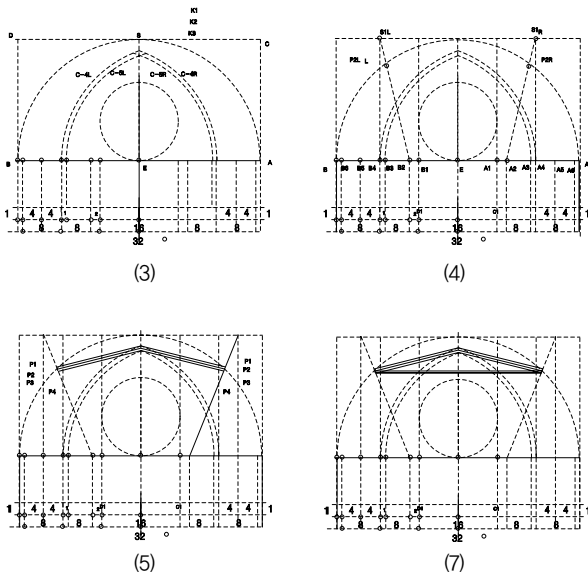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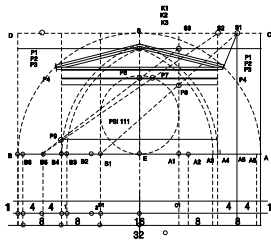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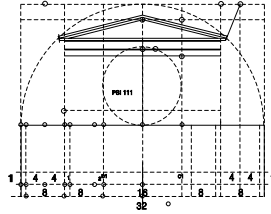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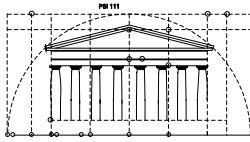
그림 29. 파르테논 신전 입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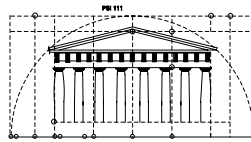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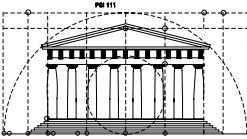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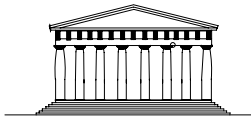
(9)



(10)



(11)



(12)

그림 29. 파르테논 신전 입면도 2

상에 A1과 B1 사이에 그린다. 중심원은 태양을 상징한다. 이때 원의 밑변이 수평선 E에 접하도록 한다. 수평선은 지반선이 되며, 수평선은 바다의 수면을 상징한다. 중심원의 지름은 신전 입면도 폭의 1/20이 된다.

그림 (2)

E를 원의 중심점으로 하고 E-A를 반지름(단위 길이 25)으로 하는 반원 C-6, 일명 무지개를 그린다.

그림 (3)

무지개의 외접 사각형 ABCD를 그린다. ABCD 내부에 큰 삼신 아치와 작은 삼신 아치를 그린다. 즉, A1을 원의 중심점으로 하고 반지름이 A1B4인 원(C-4L 원 반지름 길이 24)과 반지름이 A1B3인 원(C-5L 원 반지름 길이 23)을 그린다. 같은 방법으로 B1을 원의 중심점으로 하고 반지름이 B1A4인 원(C-4R 원 반지름 길이 24)과 반지름이 B1A3인 원(C-5R 원 반지름 길이 23)을 그린다. 두 원호의 교점 K1과 K3을 정한다. K1과 K3의 중심점 K2를 정한다.

그림 (4)

A2와 S1R을 그리고 B2와 S1L을 각각 연결한다. C-6과 A2-S1R의 교점 P2R을 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C-6과 B2-S1L의 교점 P2L을 정한다.

그림 (5)

K2에서 P2L과 P2R을 각각 연결한다. K1과 K3에서 K2-P2L과 나란한 선을 상하로 그려 B2-S1L상에 P1L과 P3L을 각각 정한다. 이 선은 지붕선이 된다.

그림 (6)

P2, P3의 수평 연장선은 박공벽이 된다. P2-P3의 1/4되는 선 P4를 P3 하부에 정한다. P4의 수평 연장선은 받침돌의 하부선이 된다.

그림 (7)

B5와 S3의 연장선이 ES의 연장선과 만나는 교점 P6, B4의 수직선과 만나는 교점 P9를 정한다. B5와 S2의 연장선이 원 C-1과 만나는 교점 P7을 정한다. B1-S1의 연장선이 A6의 수직선과 만나는 교점 P8을 정한다.

그림 (8)

P7의 수평 연장선은 중심 보의 선이 된다. P8의 수평 연장선은 기둥 상부선이 된다. P9의 수평 연장선은 기단선이 된다.

그림 (9)

P9의 수평선과 P8의 수평선 사이에 8개의 기둥을 설치한다. 기둥을 그리기 위해 건물의 폭을 15등분한다. 15등분 중에 기둥을 8개 그리고 그 사이 공간이 7개를 차지한다.

그림 (10)

P5의 수평 연장선과 P7의 수평 연장선 사이에 장식을 그린다.

그림 (11)

지면선과 P9의 수평 연장선 사이에 계단을 그린다.

그림 (12)

보조선들을 지우면 파르테논 신전 입면도가 된다.

파르테논 신전 단면도는 신전의 내부 실내에서 바닥의 폭과 천장까지 높이가 3:4:5의 비율로 된 것을 나타낸다. 실내공간을 3:4:5의 비율로 한 것은 3:4:5의 공간이 행운을 기약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

협회소식 kira news

2005년도 종무식 개최



우리협회는 구랍 30일(금) 오후 4시 회의실에서 본협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식을 갖고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 업무를 종료했다.

이철호 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 여러모로 고생 많았다”고 치하하며 “앞으로도 더욱 충심 어린 마음과 믿음으로 서로를 돕고 능동적인 자세로서 회원을 위한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 생각해서 더 한층 노력과 성실함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05년도 우수직원 표창에 이어 협회 임직원들은 조촐한 다과회를 갖고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2006년도 시무식 개최

우리협회는 2006년 1월 2일(월)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본협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2006년도 새해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이철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우리 건축사들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해주길 재삼 당부 드리고 새해에는 보다 나은 건축사들의 한해가 되기를 빌고, 전국 회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따뜻하고 풍성하며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참석하신 송기덕·우남용 역대회장의 덕담이 섞인 인사말이 있었으며,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자는 구호와 함께 조촐한 다과회를 갖고 서로 덕담을 나누었다.

2005년도 건축사시험 최종합격자 소양교육 및 자격증 교부



2005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최종결과가 구랍 27일에 발표됨에 따라 이를 뒤인 29일 13시부터 18시까지 약 5시간동안 강남역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최종합격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자격증 교부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소양교육에서는 총 192명의 합격자를 대표해 이형철, 최명철 합격자가 이철호 회장으로부터 건축사 자격증을 수여받았으며, 합격자들은 ‘협회안내 및 회원가입 절차’ 안내에 이어 ‘한국근대 건축 50년’과 ‘국제화에 따른 건축사의 위치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소양교육을 끝으로 건축사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이사회

■ 제15회 이사회

2005년도 제15회 이사회가 지난 12월 14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설계자의 감리금지 규제법안 수정에 관한 건, 2005년도 업무실적관리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2006년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회관 냉난방설비공사 시행에 관한 건, 비품 처분 승인의 건, 정회원고무인 사용 및 디자인료 지급에 관한 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안)에 관한 건, 서울건축사회 파업관련 건의사항에 관한 건 등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설계자의 감리금지 규제법안 수정에 관한 건

의원입법안	제14회 이사회 승인안	제15회 이사회 승인안
제4회 이사회 승인 (안) 제15회 이사회 수정(안) 제21회(建築 物の工事監理) ① 建 築主는 大統領승이 정하는 用途·규모 및 構造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建築主 또는 大統領 승이 정하는 者를 工 事監理者로 지정하 여 工事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건축물의 설 계자를 공사감리자 로 지정하여서는 아 니된다. (후단삭설)	第21條(建築物의 工 事監理) (建築主는 大統領승이 정하는 用途·규모 및 構造 의 建築物을 建築하 는 경우에는 建築主 또는 大統領승이 정 하는 者를 工事監理 者로 지정하여 工事 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 領승으로 정하는 者 모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 물의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야 한다. (후단수정 삭설)	第21條(建築物의 工 事監理) (建築主는 大統領승이 정하는 用 途·규모 및 構造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建築主를 工事監理者로 지정 하여 工事監理를 하 게 하여야 한다. 단 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 자가 아닌 다른 건 축사를 공사감리자 로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수정삭설)
② ~⑧ (생략) ⑨ 第1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 劃承認對象 및 建設 技術管理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 理對象建築物의 工事 監理에 대하여는 前 항(전단)에 한한다. 내 지 제8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⑧ (생략) ⑨ 주택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 劃承認對象 및 建設 技術管理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 理對象建築物의 工事 監理에 대하여는 제8항 내지 제8항의 規定에 불구하 고 각각 당해 法令 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 설계자의 감리금지 규제법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제14회 이사회(05. 11. 8) 승인 이후 법제위원회(11/16)에서 수정·보완하여 건설교통부 등에 제출(11/18)된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2005년도 업무실적관리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93,500,000원 → 128,700,000원
- 제3호의안 : 2006년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회 계 구 분	2006. 1~2월 세입예산	2006. 1~2월 세출예산
일반회계	460,000,000	460,000,000
건축연구원 회계	14,000,000	14,000,000
기금관리운용회계	1,500,000,000	1,500,000,000
회관건축특별회계	1,070,000,000	1,070,000,000
업무실적관리회계	21,000,000	21,000,000
건설기술자회계	100,000,000	100,000,000
건축사시험회계	550,020,000	120,000,000
장학회 회계	25,000,000	25,000,000

- 제4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위원회 회의비 : 8,000,000원
 - ▷ 제세및공공요금 : 9,000,000원
 - ▷ 경 조 비 : 6,000,000원
 - ▷ 계 : 23,000,000원
- 제5호의안 : 회관 냉난방설비공사 시행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함.
 - ▷ 공사금액 : 일금 298,000,000원(부가세별도)
 - ▷ 공사기간 : 계약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단, 회관 공사준공일까지)
 - ▷ 계약자 :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윤종용)
- 제6호의안 : 비품 처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의안 : 정회원고무인 사용 및 디자인료 지급에 관한 건
 - 정회원 고무인을 원안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당선자에게 디자인료(1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함.
- 제8호의안 :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관한 건

- 주 40시간 근무제는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시도건축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상정하기로 함.

▲ 협의사항

- 제1호 :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안)에 관한 건
 -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대로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서울건축사회 파업관련 건의사항에 관한 건
 - 서울건축사회 사무국이 폐쇄될 경우에는 서울건축사회에 위임한 정부위탁업무를 본 협회에서 수행하기로 함.
 - 서울건축사회 파업과 관련한 본협회의 입장을 서울건축사회 회원에게 서신 형태로 알리기로 함.

▲ 기타사항

- 예산에 가편성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국제사업비 등)

위원회 회의

■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간담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간담회 회의가 태국 로터스 호텔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30일 오후 6시 30분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 개정 추진방향 및 일정에 관한 건,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관한 건, APEC 건축사제도 도입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 개정 추진방향 및 일정에 관한 건
 - 정관개정은 공람기동간 제1회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일정은 법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함.

- 아울러, 이번 정관개정은 협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시·도건축사회 회장들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함.

• 제2호 :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관한 건

- 예산편성소위원회에서 제시한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안)은 먼저 예산편성위원회를 거쳐 안을 확정된 후 이사회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함.

• 제3호 : APEC 건축사제도 도입에 관한 건

- APEC 건축사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없이 건설교통부에서 제안한 추진일정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은 기본틀을 마련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국제위원회에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한 후 이사회에서 협의 예정

■ 제7회 정보관리위원회

제7회 정보관리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9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 정보전산 사업계획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 정보전산 사업계획에 관한 건
- "2006년 정보전산 사업계획"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타위원회와의 합동회의 및 관련 업체와의 실무접촉을 통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함.

▷ 건축설계 정보도구 사용자그룹운영 : 주요 CAD업체와 실무접촉

▷ 개산건적시스템 개발 : 관련업체와 협상

▷ 웹기반 건축사자격시험 기획사업 : 교육시험위원회와 합동회의

▷ 법규체크리스트 DB제작 : 건축위원회, 법제위원회와 합동회의

■ 제8회 정보관리위원회

제8회 정보관리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25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산건적 시스템' 도입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개산건적 시스템' 도입에 관한 건

- '개산건적 시스템'은 협회에서 투자를 최소화하고 개발업체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함.

- 'CAD 프로그램 수요조사'는 팩스와 본협 회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실시하기로 함.

■ 제1회 건축문화·자재전시추진위원회

제1회 건축문화·자재전시추진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10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재전시계획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자재전시계획에 관한 건

- 경향하우징' 06. 2) 참가시 협회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하며, 총회, 교육, 세미나 등의 개최에 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제2회 건축문화·자재전시추진위원회

제2회 건축문화·자재전시추진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23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회 명칭에 관한 건, 자재전시계획에 관한 건, 경향하우징' 06. 2)참가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전시회 명칭에 관한 건

- 위원들은 차기 회의까지 파격적인 제목과 전통적인 제목을 각각 1개씩 작성하여 제출

하고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자재전시계획에 관한 건

-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안으로 프로젝트전 시관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계속 연구·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경향하우징' 06. 2)참가에 관한 건

- 많은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2회 예산편성위원회

제2회 예산편성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14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년도 업무실적관리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건, 예산편성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5년도 업무실적관리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2005년도 업무실적관리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건

-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안)을 결정하고, 세부 추진목표와 2006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 선정 등은 예산편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한 후, 예산편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협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제3호 : 예산편성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관한 세부 추진목표와 2006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 선정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예산편성 소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강성익

- 위 원 : 문숙경, 이양원, 이철호(대전), 한명수(가나디순)

■ 제1회 예산편성소위원회

제1회 예산편성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관한 건, 2006년도 사업계획 선정에 관한 건, 2006년도 예산편성 추진일정 계획(안)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관한 건
 - 2006년도 예산편성 6대 기본방향(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1차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차기 소위원회에서 기본방향(안)을 작성하여 예산편성위원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 아울러,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예산편성 본회의 (안)이 마련되면, 시도 회장 회의와 이사회에 협의안건으로 제출하여 기본방향을 확정받아 구체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함.
 - 제2호 : 2006년도 사업계획 선정에 관한 건
 - 각 위원회 등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은 신규 사업을 위주로 통합, 반영, 유보,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구분하고,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함.
 - 계속(지속)사업에 대하여는 2005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기로 함
 - 제3호 : 2006년도 예산편성 추진일정 계획(안) 건
 - 2006년도 예산편성 추진일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 ▷ '05. 11. 28 : 2006 예산편성 기본방향(안) 작성(제2회 예산편성 소위원회)
- ▷ '05. 12. 7 : 2006 예산편성 기본방향(안) 마련(예산편성위원회)
- ▷ '05.12월중순 : 2006 예산편성 기본방향 확정(시도회장 회의 및 이사회)
- ▷ '06. 1. 30 :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마련(예산편성위원회)

▷ '06. 2월중순 :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시도회장회의및이사회)

▷ '06. 2. 21 :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제40회 정기총회)

■ 제2회 예산편성소위원회

제2회 예산편성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관한 건, 2006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관한 건
 -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안)의 추진배경, 추진목표 등을 수정하여 소위원회(안)을 확정함.
- 제2호 : 2006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건
 - 각 위원회 등에서 제출된 신규사업중 2006년에 추진할 사업과 보류할 사업을 분류하고, 계속사업은 200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를 기준으로 추후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제3회 예산편성소위원회

제3회 예산편성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 2006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 부문의 소관 회계와 예산과목 등을 협의하고, 계속사업 부문은 2005년도 추진실적과 성과 등을 검토하여 예산 반영 · 보류 · 목존치할 사업으로 분류하기로 함.
- 가. 신규사업 부문 협의내용
 - ▷ 2006년도에 추진키로 한 17개 신규사

업의 소관회계로

- 일반회계에 10개 사업, 건축사시험관리회계에 1개 사업을 배정하고,
- 5개 사업은 “(가칭)「건축문화진흥사업회계」”와 “(가칭)「건축자재전시사업회계」”로 특별회계를 각각 신설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 “APEC 건축사제도 시행사업”은 이사회의 사업 확정후 결정키로 함.

▷ 기타 예산과목은「문화활동지원사업비」목을 신설하여 여성건축사 간담회 및 여성건축사대회 후원금, 건축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계상키로 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종전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예산과목을 배정함.

나. 계속사업 부문 협의내용

▷ 계속사업 23개중

- 「전통건축자료집 발간사업」은 목존치
-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지원」사업은 종전 “보조금”목에서 “문화활동지원사업비”목(신설)으로 이관
- 「건축사사무소 DB정보 개선」사업은 “건설기술자회계”에 예산반영
- 임원 및 시도회장 연수사업은 보류하기로 하고, 기타 19개 사업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분류함.

※ 기타 회계의 신규사업은 해당회계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키로 함.

■ 제3회 예산편성위원회

제3회 예산편성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도 임시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미수금 결산 및 예산편성 특례기준(안) 건,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안) 건, 2006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도 임시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 2006년 1~2월 협회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임시예산(안)을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기로 함.

- 제2호 : 미수금 결산 및 예산편성 특례기준
(안) 건
- 연구·검토하여 다시 논의기로 하고 유보
함(회계사의 자문등)
- 제3호 :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안) 건
- 예산편성위원회의 2006년도 예산편성 기
본방향(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회장회의
와 이사회에 협의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함
- 제4호 : 2006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건
- 예산편성 소위원회에서 협의·검토하여 제
출한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협의하고, 소위
원회에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함

■ 제13회 법제위원회

제13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
서 지난 11월 16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
의에서는 정관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
'발코니' 및 '공사감리분리' 관련 토론회 개최여
부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
-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05. 11.
15~30)과 병행하여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함
▷ 일 시 : 2005년 11월 25일 14시
▷ 장 소 : 대한건축학회 대회의장
▷ 좌 장 : 전영철 법제위원장
▷ 토론자 : 최찬환교수 또는 박경립교수,
강희달 법제위원, 심우석 법제위원, 박서
홍건축사 또는 이종정 건축사, 김영수고
문 또는 유남용고문
- 제2호 : '발코니' 및 '공사감리분리' 관련 토
론회 개최여부에 관한 건
<'발코니' 관련 토론회 개최여부>
- 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 법이 순조롭게 적
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
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

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 ▷ 날 짜 : 2005년 12월 15일경
- ▷ 장 소 : 과학기술회관 또는 건설회관
- ▷ 좌 장 : 김광현 교수
- ▷ 발표자 : 전영철(위원장), 두성규(건설산
업연구원)
- ▷ 토론자 : NGO(소비자단체, 주부연합클
럽),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소방방재
청, 보험회사, 주택협회, 건설협회, 건축
학회 등
- 감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토론회 개
최여부에 대한 건
- ▷ 토론회보다 이명규 국회의원, 보좌관 및
건교부 담당자에게 우리의 의견을 관철
시킬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함
- ▷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이명규 국회의원 및 건교부에
제출하기로 함.

■ 제14회 법제위원회

제14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
서 지난 11월 25일 오후 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
의에서는 정관개정 관련 공청회 진행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개정 관련 공청회 진행에 관한 건
-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공람기간 중 수
렴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법제위원회에서
재정리하기로 함.

■ 제15회 법제위원회

제15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
서 지난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
의에서는 법제위원회 정관 개정(안) 확정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법제위원회 정관 개정(안) 확정에 관

한 건

- '05. 11. 25일 개최된 『정관 개정(안)에 관한 공
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에서 현재 개정
안의 내용을 논의할 당시와 개인별 의견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위원들
에게 개인별로 일일이 확인하였으나, 정관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할 내용은 없음을
확인함.
- 회원 공람기간에 수렴된 의견과 공청회에
서 제안된 의견들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결정된 내용 일부를 정관 개정(안)에 반영
하기로 함. 아울러 논의된 내용들과 법제위
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관개정(안)
을 회원들에게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기로 함.
- 법제위원회에서 확정된 정관 개정(안)에 대
하여 건교부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
기로 하고, 동시에 시·도 건축사회 회장들
과 대의원 사전협의(서면건의 형태)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시·도 건축사회 회
장회의가 예상되는 12월 14일 이전에 오늘
회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전달하기로 함.

▲ 기타사항

- 발코니 관련 토론회 개최가 어려움에 따라
별도의 협회 의견을 정리하기로 함.

■ 제16회 법제위원회

제16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
서 지난 12월 20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
의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바람
직한 방향에 관한 건,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관
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건
- 발코니 구조변경시에 건축사의 구조안전확
인업무에 따른 적정 대가의 기준을 정하기
로 함.

▷ 세대수, 층수, 동수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정하여야 함

- 개정된 시행령 및 발코니 설치 기준상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위원별로 작성하여 '06. 1. 10 제출하기로 함.

- 제2호 :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
 - 과학기술부에서 기술사 우대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중인 "기술사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의 반대 의견을 정리한 후 건교부 및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함.

■ 제4회 건축소위원회

제4회 건축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22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의 산정에 대한 해설집(최종보고서)'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의 산정에 대한 해설집(최종보고서)'에 관한 건
 - 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상호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여부, 피로티의 공간 인정여부 등과 같이 상이한 해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질의를 하여 회신내용을 건축법 해설집에 수록하기로 함.
 - 옥상부분에 기둥과 보만을 설치하였을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여부, 상부층의 벽면이 아래층 바닥층까지 경사져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여부, 발코니 관련 해석부분 등의 수록여부는 11월 30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준공완료한 후 원고교정 과정에서 협의하여 수록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설계PQ 평가기준'에 관한 건
 - 건축설계용역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PQ)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달청,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함
 - ▷ 폐지사유 : 신진 및 소규모건축사무소에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건축설계용역업의 활성화 및 건축물의 질적향상 도모

■ 제6회 국제위원회

제6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23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3차 아카시아 포럼 참가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제13차 아카시아 포럼 참가에 관한 건
 - 각 행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참가대표단의 역할을 분담함.

행 사 명	담당자
Fellowship Meeting	이근창, 김지덕
UIA 제4지역 회의	심재호, 이영수
아카시아 이사회	심재호, 이근창, 김지덕, 최재희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정재욱, 이영수, 신준규
아카시아 포럼	민규암, 오근석
Country Report 작성	김지덕

- ▷ 아카시아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문 작성 및 홍보물 제작 방안에 관하여 협의함.
- ▷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유치계획 및 홍보물 등을 요청하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기로 함.
- ▷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겸업에 관한 안건을 아카시아 이사회에 상정 및 각 회원단체 회장의 반대 서명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상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에는 일정기간 이상의 사전 통보가 필요하나, 사전조율 절차가 전혀 없었고, 각국의 법제도 및 현실이 상이하여 모든 회원단체의 지지 및 공감대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추진하지 않기로 함.

■ 제6회 여성건축사위원회

제6회 여성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2월 6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계획(안)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계획(안)에 관한 건
 - 내년 대회의 건학지는 청계천, 중앙박물관, 리움박물관으로 결정하고 대회를 위한 식 및 건학지에 관한 정보는 역할을 분담하여 다음 회의까지 조사해 오기로 함.

■ 제7회 홍보소위원회

제7회 홍보소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2월 15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회 동아 빌딩·리모델링·전원주택박람회 후원에 관한 건, 2006건축산업전시회 참가 홍보계획 추진에 관한 건, 정회원 고무인 사용 추진계획에 관한 건, 2006년도 홍보계획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제2회 동아 빌딩·리모델링·전원주택박람회 후원에 관한 건
 - 본협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협회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추후 협의하기로 함. 아울러, 협회 요구사항 작성 등 본 사안 추진은 이규환 위원이 전담하기로 함.
 - 홍보방향은 '리모델링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로 설정하기로 함.
- 제2호 : 2006건축산업전시회 참가 홍보계획 추진에 관한 건
 - 2006 경향하우징페어 행사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함.
 - ▷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부스(8~10부스) 인테리어 공사는 협찬을 받아 추진
 - ▷ 본협회 참여조건으로 경향하우징페어 사무국으로부터 예산지원(건축상담비, 장치물 및 전시비 등을 받아 진행
 - ▷ 건축상담은 신청 회원 및 법제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
 - ▷ 예산계획은 이규환 위원이 작성하여 각 위원간 E-mail을 통해 협의

- 제3호 : 정회원 고무인 사용추진계획에 관한 건
 - 제15회 이사회('05. 12. 14)에서 사용키로 한 정회원 고무인을 의장등록 하기로 함.
 - 향후 정회원 고무인 관련 추진사항은 회원 지원팀에서 추진하기로 함.

- 제4호 : 2006년도 홍보계획에 관한 건
 - 향후 언론홍보활동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기로 함.
 - ▷ 본협회 이근창 부회장의 ARCASIA 회장 당선과 아카시아의 설계검업 반대 결의 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건축전문잡지에 배부
 - 대한건축사협회가 사회적으로 기술집단 이미지가 강한 만큼 대중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방안을 연구하기로 함.

■ 제5회 건축자재인증준비위원회

제5회 건축자재인증준비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자재인증규정(안)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자재인증규정(안)에 관한 건
 - 인준 및 추천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위원들은 자재인증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05. 12. 26일까지 협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제4회 교육시험위원회

제4회 교육시험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2월 27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향하우징페어('06. 2) 세미나 개최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경향하우징페어('06. 2) 세미나 개최에 관한 건

- 건축세미나는 4일 12강좌, 시민건축대학은 6일 12강좌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강사선정은 각 위원들이 검토해서 '05. 12. 29일까지 협회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위원장 합동회의

위원장 합동회의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1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향하우징페어('06. 2) 참가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경향하우징페어('06. 2) 참가에 관한 건
 - 건축사가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수로증을 발급키로 하고, 건축작품전시는 홍보위원회와 회원협력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함. 아울러, 행사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협회발전위원회 신건영위원장이 검토해서 협회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9-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5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3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9152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시지역건축사회/(041)532-9200 · 서산시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시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 33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6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 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6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2005년 12월 31일 현재)

공사진행 현황

우리협회 회관신축공사는 12월초 토목가시 설스트럿 8, 9단의 해체와 동시에 지하 2층 바닥 슬라브 철근 및 거푸집조립작업이 진행되어 12월중순경 지하 2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다.

현재는 토목가시설스트럿 6, 7단을 해체하면서 지하층 기둥, 벽체 철근 및 거푸집 조립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06년 1월중순경 지하 2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가 타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별도공사인 냉난방설비공사는 이사

회('05. 12. 14)의 승인을 거쳐 '05. 12. 27일 협찬업체인 삼성전자(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5. 12월말 현재 31.74%(계획 49.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05. 12. 21일 개최된 제18회 위원회에서는 회관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제출된 공사 변경내역서 대해 회관건립위원중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공종별 세부적 내역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별도 공사인 주차관리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사수행과 품질향상을 위해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시점에서 공사를

발주기로 하고, 공사건적 제출업체의 설치현장을 방문·확인한후 업체를 결정기로 하였다.

또한 신축회관의 구체적인 사용 및 임대계획의 결정을 위해 전문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신축회관의 임대수지 및 용도분석을 의뢰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관건립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 논의하여 건축공사비 관련항목(추가 소방시설공사, 협회사용층 인테리어공사, 각종인입분담금, 각종지출세액 등)과 기타항목(회관시설 비품구입 등)으로 분류하여 2006년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지하 1층부 철근배근 및 형틀조립작업



지하 2층 바닥콘크리트타설후 보양



지하 2층부 철근배근 및 형틀조립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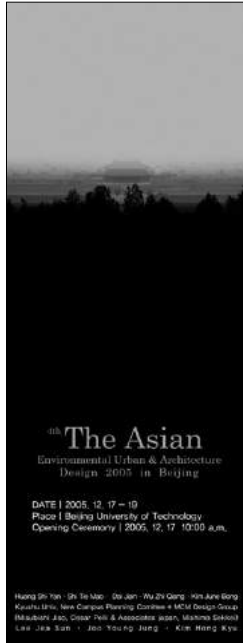


공사 전경



투시도

제4회 아시아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전시회 개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아시아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는 'The Asian Environmental Urban & Architecture Design 2005'라는 주제아래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도시, 단지, 건축 디자이너 관련 전문가 10여명이 참가하여 지난 2005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북경공업대학교 후원으로 북경대학교 본관 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영정 건축사(예조건축사사무소), 이재선 교수(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흥규 교수(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최찬환 교수(서울시립대), 강대호 교수(전주대)가 참가하였고, 일본에서는 규슈대학의 New Campus Planning Committee와 MCM Design Group(Misubishi Jiso, Cesar Pelli & Associates japan, Mishima Sekkei)이 참가했다. 중국에서는 Wu Zhi Qiang 교수(상해 동지대학)를 비롯하여 Huang Shi Yan 교수(대련대학),

김준봉 교수(북경공업대학), Dai Jian 교수(북경공업대학), Shi tie Mao 교수(심양 건축공학 대학)가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3개국 관계자들의 유대 강화와 작품 교류, 향후 합작 작품 설계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같은 장소에서 '2005 International Society of Ondol's(Gudul, Floor Radiant Heating System) General Meeting and Symposium'이 개최되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테이프 커팅



일본측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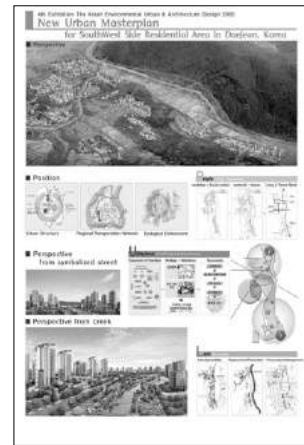


김흥규

'아시아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전시회'(The 1st Invited Exhibition)는 처음 2001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초청으로 연세대 김흥규 교수, 주영정 건축사를 포함한 한국인 4인이 환경을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2002년 두 번째 전시회는 중국 연변에서 일본 교수 3인과 중국교수 3인, 한국 전문가 4인이 참가하였다.

이 전시회는 2003년 제 3회 전시회를 시작으로 중국,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전문가 15인이 중국 대련과 심양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전시회로서의 면목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전시회의 개념은 환경을 고려한 도시, 단지, 건축, 설계들로서 그 동안 각 분야에서 연구 및 디자인 한 작품을 중심으로 기존의 특정한 분야에 국한된 전시회가 아닌 복합적인 전시회로 구성되어졌다. 전시되는 작품으로는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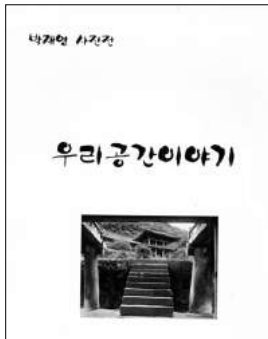
이재선



주영정

중국, 일본 3국에서 건축, 도시, 단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출품하여 총 17개이다.

건축사진가 박재영, 개인 사진전 개최



건축사진가 박재영이 '우리공간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는 2006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일주일 여간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갤러리에서 개인 사진전을 연다.

박작가는 지난 수년간 고건축을 답사하며 카메라에 담은 이야기보따리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대중에게 선보이려 한다.

그는 홍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월간 플러스 사진기자, (주)무형종합건축사사무소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 스튜디오 아키펫토를 운영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과 아울러 동양공업전문대학에서 사진학을 강의 중이다.

문의 : 010-9908-8802

제15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에서 해외건축 여행기금으로 미화 \$10,000을 수여하는 '제15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를 개최한다.

한국의 젊고 유능한 건축인에게 교육과 해외 건축기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성된 이 기금은 수령자 본인이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목적이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자격요건 : 만35세 미만의 한국에서 건축학

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

• 선정방법

- 제출된 포트폴리오 심사 후 예선 통과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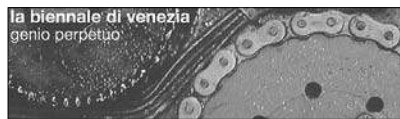
- 예선 당선자는 여행 목적 및 계획을 재단에 제출하고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수상자 1명을 선발

• 접수마감 : 2006년 4월 30일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6-5 로프트빌딩 3층1호 (주)맥스트랫 내 "김태수 해외 건축여행 장학제" 담당자 앞

• 문의 : WWW.TSKAF.ORG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개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10회 국제건축 전시회(베니스 건축 비엔날레)'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도시」 - 도시의 변화, 전 세계 여러 지방의 변화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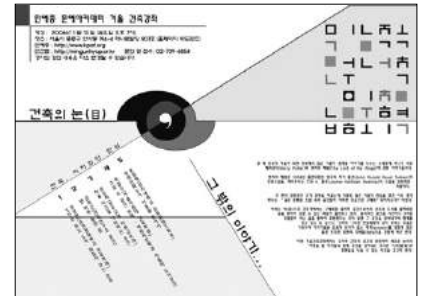
전시기간은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이며 2년마다 개최된다. 각 국은 전시 참가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한국 담당위원은 Davide Croff이며 전시회 총지휘는 Richard Burdett(런던 정경대학, 런던 시장 보좌관)이다. 2004년에 개최된 9회 국제건축 전시회에서는 '청계천 프로젝트'가 공식 초청되어 대상인 최우수 시행자 상을 받기도 했다.

• 주소 : Palazzo Querini Dubois, San Polo 2004, 30125 Venezia, Italy

• 전화 : 39-041-2728310, 팩스 : 39-041-2728324

• 홈페이지 : www.labiennale.org, E-mail : davide.croff@labiennale.org

2006년 민예총 겨울 건축강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서 올바른 문화예술 교육의 위상을 실현하고 그 위상의 현실화를 위해 시작한 문예아카데미 강좌 중 건축강좌가 '건축의 눈(目), 그 밖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강좌는 2006년 1월 13일(금요일) 오후 7시에 개강하며, 내용은 해리포터(Harry Potter)와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에 관한 이야기들로서 반지의 제왕은 1954년 출판되었던 영국의 작가 톨킨(John Ronald Reuel Tolkien)의 장편소설을, 해리포터는 조앤 K. 롤링 (Joanne Kathleen Rowling)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두 편의 영화 모두 크게 흥행을 하였는데 이렇듯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글로 표현된 소설 속의 공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화 되어지는가?' 이었다. 이와는 역(逆)으로 건축계에서는 구체화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건축과 도시를 활자화된 글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책들이 출판되고 있다. 물리적인 공간을 사진이나 3차원 모델링이 아닌 글을 통하여 표현한다는 것이 일면 그 공간을 담아내기에 한계를 짓고 있는 듯 싶으나, 오히려 그러한 전달매체가 갖지 못하는 수많은 가치수의 이야기들을 담음에 보이지 않는 체계(system)를 경험케 함은 물론 또다른 표현의 디테일(detail)을 경험케 하곤 한다.

이번 겨울건축강좌에서는 도시와 건축의 공간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의의 지평을 열 저자들과 함께 공간을 담아내는 또다른 시각(視角)과 표현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계획되었다.

- 1강 / 거꾸로 읽는 도시, 뒤집어 보는 건축 / 양상현(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 2강 / 반 바퀴 돌린 꿈 / 김희곤(건축연구소 흥간)
- 3강 / 서울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 심승희 (청주교대 사회교육과)
- 4강 / 소설 속의 공간 산책 / 박철수(서울 시립대 건축학부)
 - 박완서문학과 서울의 도시공간
- 5강 / 생태문화도시 서울을 찾아서 / 홍성 태(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 6강 / 강좌 좌담회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 로빌딩 901호 (홈페이지 약도참조)
- 문의 및 접수 : 02-739-6854
- 민예총 : <http://www.kpaf.org>,
- 민건협 : <http://mingunhyup.or.kr>

2006 Raemian Design Fair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21세기의 신개념 주택개발 및 젊은 건축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출을 위한 공동주택 디자인의 장을 마련키 위해 '2006 Raemian Design Fair'를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원)의 관련 학과 학생(부전공자 포함)이며, 2인 이내 응모 가능하다.

공모내용 주제는 'Interactive Communication (소통)'으로서 응모작품은 공동주택 설계(사이트 분석, 배치계획, 주동 및 입면계획, 단위세대

계획 등)에 관한 창작품으로 하되 공모주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공모일정
 - 참가신청 : 2005. 12. 26(월) ~ 2006. 1. 31(화) 까지
 - 작품접수 : 2006. 2. 24(금) 10:00~ 18:00까지
 - 1 차 예비심사 : 2006. 2. 27(월) ~ 2006. 3. 1(수)
 - 2 차 공개심사 : 2006. 3. 3(금) 수상작 후보 설명회 및 최종수상자 선정
 - 최종 수상자 발표 : 2005. 3. 10(금), 오전 10시 이후 당사 홈페이지 게재
 - 수상작 설명회 및 시상식 : 2006. 3. 23(목) 예정
 - 수상작 전시 : 2006. 3. 23(목) ~ 3. 31(수) 예정
- 문의 : www.raemia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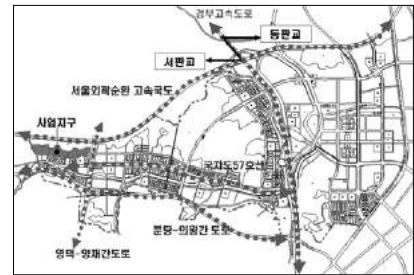
제7회 고건축 사진공모

한국의 고건축을 소재로 한 흑백사진으로 캘린더를 제작해온 (주)기린산업이 2007년 캘린더 제작을 위한 사진을 공모한다.

작품 주제는 '수원 및 경기의 고건축'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다양한 계절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이면 된다. 1인 3작품 이하 제출이 가능하며, 건축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 주요내용
 - 작품부문 : 무광 인화지 흑백사진
 - 작품규격 : 11"×11", 11"×14"
 - 접수마감 : 2006년 9월 1일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51-3 (주)기린산업 4층 홍보팀
 - 심사발표 : 2006년 9월 15일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문의 : 02-2106 7155

판교지구 공동주택 국제 설계경기



대한주택공사는 성남판교지구의 일부인 저층 연립주택 지구에 자연과 조화되고 창의적이며 바람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기존의 공동주택 단지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저밀도 단지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최선의 계획을 얻기 위하여 국제 지명현상 설계경기를 시행한다.

지정된 3개 블록 내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배치와 건축 설계 기본계획을 이 설계경기의 범위로 하며, 모든 설계는 대한민국 건축관련 법률 및 경기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한국의 문화와 주거생활양식에 적합한 주거형식이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비용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번 설계경기의 응모는 주최자로부터 지명을 받은 건축사 또는 건축사가 소속한 법인으로 한정된다. 지명을 받은 응모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고 대한민국 내에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이하 한국 건축사)와 공동응모 하여야 한다.

초청 건축사는 등록이 마감된 상태이며, 올 1월 6일에 공동응모자 통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설계경기에 들어가게 된다.

- 지명 건축사
 - 벤 반 버클(Ben Van Berkel)/UN Studio/네덜란드
 - 제임스 데 스테파노(James R. DeStefano)/DeStefano + Partners/미국
 - 크리스틴 할리(Christine Hawley)/Christine Hawley Architects/영국
 - 페카 헬린(Pekka Helin)/Helin & Co Architects/핀란드

- 위니 마스, 야곱 반 리스, 나탈리 드 브리스(Winy Maas, Jacob van Rijs, Nathalie de Vries)/ MVRDV/네덜란드
- 마크 맥 (Mark Mack)/MACK Architect(s)/미국
- 마이클 지스코비츠, 칼라 코발스키 (Michael Szyszkowitz, Karla Kowalski)/Szyszkowitz - Kowalski/오스트리아
- 아마모토 리켄(Riken Yamamoto)/Riken Yamamoto & Field Shop/일본
- 켄 양(Ken Yeang)/T.R.Hamzah & Yeang International/말레이시아
- 응모작접수 : 2006년 2월 9일 ~ 2006년 2월 11일 (마감시간 17:00)
- 응모작 접수 : 2006년 2월 12일
- 심사 : 2006년 2월 13일 ~ 2006년 2월 15일
- 당선작발표 : 2006년 2월 15일
- 문의 : 대한주택공사 031-738-4172

건축사진아카데미, 전시회 개최

건축사진아카데미(APA)는 청암건축사진강좌를 수료한 건축관련 실무자 및 전공자들의 모임으로 오는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6회 사진전시회는 '클라우드스케이프(Cloudscape)'라는 주제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아련함을 안개가 자욱한 서정적인 풍경의 모습으로 담아낸다.

이와 더불어 제8회 건축사진아카데미를 2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16주간 진행한다. 실무자들을 위한 이 강좌는 건축사진의 이론과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카메라의 기초부터 각종 모델 촬영, 전통건축물 촬영 그리고 흑백사진 작업에 이르기까지 실제 응용을 목적으로 하며, 소수의 인원으로 건축답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 건축사진전시회
- 기간 : 2006년 2월 15일~28일

- 장소 : 광화랑(5호선 광화문 역)
- 문의 : 석정민 011-9891-1740
- 건축사진아카데미
- 참가인원 : 선착순 12명
- 참가비용 : 30만원
- 접수 : 2006년 2월 8일
- 문의 : 02-444-7088

노들섬 청소년야외음악당 설계경기 변경공고

노들섬 청소년야외음악당 신축 설계용역 설계경기(현상설계) 공고문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공고(2005. 12. 29) 되었다.

- 당초 :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 완료 후 위원명단은 공개
- 변경 :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아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함.
- 심사위원 : 최윤경, 김혜정, 이강업, 황기원, 이규목, 박헬렌주현, 이장직, 김동환, 이준희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발족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건설 분야에 대해 국가차원의 선진화방안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구립 21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김진애(서울 포럼 대표) 위원장과 관계부처 장관 11명, 민간위원 14명 등 25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건축문화와 건설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설산업을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앞으로 건축문화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위원들은 건설정책, 건축, 도시계획·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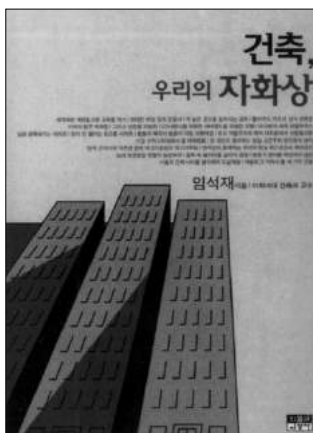
분야에서 고루 참여하며, 건교부, 재경부, 문화관광부 등 11개 관련부처장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활공간 향상과 건축문화 접촉기회 확대, 지역성과 문화적 정체성 제고, 좋은 건축정책과 공공의 역할 강화 등을 목표로 선진제도 혁신기반을 마련한다. 또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기존법령 정비, 필요한 선진제도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민간위원 명단(가나다 順)

- 위원장 / 김진애(52)(서울포럼 대표)
- 위원(건설정책) / 권오경(46)(한미파스스 상무)
- 위원(건설정책) / 김중희(40)(SOC건설경제연구원장)
- 위원(건설정책) / 임정순(59)(경기대 산업정보대학원장)
- 위원(건설정책) / 이학기(48)(동아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위원(건축문화) / 감미선(40)(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위원(건축문화) / 김혜정(51)(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위원(건축문화) / 정기용(60)(기용건축 대표)
- 위원(건축문화) / 조성룡(61)(조성룡도시건축 대표)
- 위원(건축문화) / 최 일(50)(목포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
- 위원(도시·조경) / 김혜란(43)(경화엔지니어링 상무)
- 위원(도시·조경) / 박철수(46)(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위원(도시·조경) / 성종상(44)(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위원(도시·조경) / 윤태태(56)(경희대학교 토목공학부 교수)
- 문의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031-436-8900

건축, 우리의 자화상

저자 임석재(이화여대)교수는 서양현대 건축사, 한국현대 건축사, 서양 건축사, 현실비평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양의 저서를 집필해오고 있으며, 신간 '건축, 우리의 자화상'은 건축과 도시에 관한 20개의 키워드로 현 시대의 모습을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것을 정리하여 엮어낸 것이다.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곁들여 서구 하이테크 양식의 대형 공간들이 즐비한 가운데, 그 속을 다시 상업시설로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 현실을 비판한다.



임석재 지음/282쪽/12,000원/인물과사상사 발행
02-471-4439

공간의 문화정치학

이 책은 공간을 둘러싼 물리적, 상징적, 문화적 권력관계에 담은 책으로써 '공간의 문화정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정립해온 저자 이무용씨가 10여 년간 연구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공간의 문화 정치학은 공간의 생성·변천·소멸과정을 '공간·주체·권력'이 만드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서 이 책에서는 9개장, 총 38편의 글로 공간정치경제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는 다양한 이론에서부터 도시문화, 문화도시, 문화공간과 공간문화 등 일상공간과 관련된 폭넓은 문화적 논의를 망라했다.



이무용 지음/282쪽/20,000원/논형 발행 02-887-3551

제주 건축의 맥

신간 '제주건축의 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제주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 김태일이 쉽 없이 연구하여 축적해낸 제주건축에 대한 맥이다. 저자는 제주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화되어 왔던 제주인의 삶의 모습을 건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재조명하고,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의 제주 건축 뿐 아니라 개발과 보존이라는 첨예한 논쟁 속에 처해있는 제주의 모습을 통해 제주인의 삶과 거주문화에 대해 들려준다.



김태일 지음/229쪽/13,000원/제주대학교 출판부 발행 064-754-2114

2006년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

건축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0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3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대 한 건축 시험 회 회 장

1. 시험일자 및 장소	가. 시험일자 : 2006년 3월 19일(일) 나. 시험장소 : 2006년 2월 28일(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2. 시험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지 작성방법	시험과목	대지계획	건축설계 1	건축설계 2
	배 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시험시간	09:00~12:00(3시간)	13:00~16:00(3시간)	16:30~19:30(3시간)
	출제범위	○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 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 평면설계 : 100점	○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 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2과제 선 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답안지 작성방법	○ 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3. 응시자격	가.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건축사법 부칙(제6503호(2001.8.14))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4. 응시원서 접 수	금년도부터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1. 기 간 : 2006. 1. 16 ~ 1. 25 (사작일 09:00~24:00, 평일 00:00~24:00, 마감일 00:00~18:00까지) 2.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3. 기 타 : 응시수수료(80,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이 소요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5. 합격예정자 발 표 및 제출서류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06. 5. 12(금)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나.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06. 5. 17 ~ 5. 20 (09:00-18: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6. 응 시 자 지 참 물	가. 응시표,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나.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 규격초과 제도판은 시험실 반입 및 사용 불가함)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보조책상지급)함.			
7. 주의사항	○ 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2매,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 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필관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고,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 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581-5711~4)이나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02-504-91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 3과목(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 합격

00053	이형철	00081	유제현	00098	주성진	00105	신승국	00139	신수경	00171	김희형
00185	신환봉	00243	이효상	00313	김재철	00326	이우진	00361	현근식	00390	김재욱
00396	전재성	00443	황동식	00465	김학건	00486	송희열	00546	이재영	00565	박영준
00574	문성준	00578	민경일	00581	장희정	00599	서정무	00645	박광석	00648	최승철
00658	임수현	00663	김병일	00693	이미영	00721	송용훈	00781	조 일	00783	홍석정
00833	김아연	00840	구영모	00874	권계숙	00875	이원석	00876	박창호	00877	공순제
00893	이신균	00920	김종석	00956	류해욱	00965	정운기	00973	김학희	01032	전용태
01105	표창식	01247	신동일	01316	윤용일	01341	서장원	01350	차용주	01390	박노욱
01433	김정아	01497	전성배	01528	이강영	01547	오승욱	01553	김세연	01554	류 경
01592	우종호	01596	임유청	01597	조진영	01613	이은휘	01642	채윤정	01678	엄장용
01693	최덕웅	01706	김형진	01709	엄상태	01716	조문희	01744	박익선	01814	송상호
01820	장경배	01824	정태희	01844	홍명수	01866	조일권	01868	김지훈	01895	남궁돈
01924	최종식	01930	곽영인	01933	최홍연	01940	이용수	01951	김형락	01979	양우걸
02194	윤태권	02394	이종숙	02552	이현승	02593	신승현	02600	이주랑	02604	한만경
02759	한진숙	02942	정성훈	02982	최명철	03264	지영환	03331	신현주	03444	조일환
03491	오진욱	03570	심재승	03686	김승욱	03703	박진남	03992	최준석	07555	민현준
07649	이병규	11034	신미아	11118	김종도	11233	이기상	11269	이태윤	11297	김영관
11312	이민하	11358	전유현	11365	김종숙	11496	김해성	11691	곽영국	11694	이기환
11765	한상범	11850	김변철	12034	고경호	12063	이용규	12157	안장식	12186	김홍래
12249	임정완	12314	황성연	12543	백인기	12608	심강희	12675	오관용	12683	허경희
12711	양우권	12747	지혜진	12896	양혜숙	13041	석영석	13050	이유정	13090	경희연
13138	김광수	13214	문인수	13403	김태진	13607	이범형	13747	원희선	13757	김진원
13795	정필훈	13949	윤창식	20135	김귀용	20222	이성대	20351	안병이	20409	김종한
20429	남승희	20454	박무순	20594	신영병	25052	변상섭	25060	탁진호	25111	조부일
25131	박민경	25149	이장원	25179	정현숙	25207	박삼조	25257	유재호	25324	임대원
25478	정보용	25484	윤석환	30015	정상택	30063	김승수	30095	봉환성	30103	이환욱
30256	윤정태	30276	김상수	30278	김경욱	30470	김세환	30561	김동식	30625	최수용
30677	조에스더	35031	장부근	35036	황성욱	35162	정은영	35166	서유미	35261	백영례
35263	김상우	35310	박시영	35326	손지연	35375	김종호	35385	박진호	35439	한민자
35481	정광렬	40024	최홍준	40043	임재훈	40059	이형근	40158	정원재	40203	정희철
40298	구양희	40427	유호기	40502	이승환	40505	진준식	45047	정무권	45201	최상근
45242	김태진	45285	서정우	45308	서정근	45336	박장호	45403	권오석	45412	남영진

□ 2과목 합격

○ 대지계획, 건축설계1

00055	이민아	00066	김민수	00131	이병진	00236	장재영	00242	조시연	00293	전성주
00320	김인화	00352	최병용	00378	이명락	00557	권현철	00586	오효열	00589	오영균
00670	서창균	00770	최윤영	00772	임미정	00822	정근양	00858	이용석	00936	이정남
01016	공태섭	01100	이용배	01241	남궁영선	01277	김한철	01338	성유석	01394	정신주
01405	최수호	01622	김태성	01662	서정석	01680	안병호	01837	신대곤	02090	이종혁
02462	김남식	02465	김세원	02878	김인철	03121	반우형	03177	이용희	03295	정기정
03400	노석균	03417	김용균	03509	이지원	03706	류호준	11039	김천우	11089	박윤섭
11146	임도현	11603	신명재	11712	신구섭	12097	이재하	12132	안기성	12354	정지철
12407	임철환	12480	조영학	12498	하태경	12810	서동준	12841	이태윤	12894	고정준
12962	최순미	12992	홍승규	13312	김동균	13610	고덕휴	13686	최 철	13835	김영준
13870	이충재	20109	서성덕	20166	이상규	20459	김일호	20466	김유신	20500	조승현
25363	정현석	25458	송종웅	25492	하명희	30087	오순철	30173	박명호	30489	최세호
30605	박병엽	30654	진수성	35194	정영철	35335	정광수	35372	여병구	35419	김병림
35431	신영은	35786	김민호	40330	문정원	40654	서정호	40674	전병관	45168	이현주
45204	곽인항	45281	전남진	45296	우병용						

○ 대지계획, 건축설계2 합격

00004	신용배	00026	문영희	00031	정은영	00058	김윤철	00095	송환규	00117	황하석
00124	정달원	00137	오종상	00162	노관식	00230	권단현	00245	김남환	00275	장세균
00288	권성만	00319	최정원	00323	김진식	00377	김팽식	00401	김진상	00403	박강수
00418	맹성윤	00428	조현모	00434	안종식	00446	한준희	00478	최종오	00514	엄기윤
00538	이승원	00542	최성윤	00567	서지영	00602	전소현	00643	김대식	00664	안성철
00668	김성훈	00692	정우희	00715	최진혁	00716	박기원	00718	김택빈	00732	황정현

00749	류무열	00794	이기환	00797	조필용	00802	여해윤	00824	김현주	00826	김경태
00865	정소영	00918	곽호일	00924	유광우	00970	임규희	00975	안재호	01006	강윤정
01013	윤성욱	01061	김충기	01076	김동우	01150	서남근	01165	이수미	01173	김영채
01190	김희정	01256	박 철	01259	전영배	01337	오영호	01401	고영완	01499	신경철
01502	김금석	01503	신재건	01512	김한섭	01537	신이섭	01546	이정륜	01548	김옥남
01551	정연욱	01594	박준수	01623	유지아	01644	이호경	01649	임은정	01679	이주호
01711	김관규	01758	구상우	01759	임진홍	01774	정경원	01778	이평주	01781	배문기
01799	염창원	01818	최진웅	01865	이상의	01886	이재일	01888	강호윤	01913	서동희
01915	손정민	01921	이상권	01932	곽종구	01971	이광오	01978	빙인섭	01995	박광희
02035	오필록	02156	김홍근	02416	최영수	02643	어경령	02661	김홍준	02675	이명호
02779	이능원	02906	김지호	03088	손 욱	03133	김종훈	03183	최장영	03197	김백중
03243	정재호	03287	류철하	03340	김명기	03353	박은미	03378	이광준	03399	유성인
03411	김준규	03586	정연두	03661	김한수	03695	김경호	03784	박병록	03804	강세철
03923	이완철	03954	윤기창	03989	김현우	11001	김도영	11011	김찬길	11025	이진호
11084	이운기	11140	김용구	11156	이동호	11279	정명주	11281	정성현	11396	황정화
11413	이재현	11431	김유경	11457	정지숙	11560	김창성	11636	임국진	11726	박은희
11914	양희경	12022	이선경	12035	김원겸	12090	박명종	12178	도주희	12181	신상배
12225	유미영	12227	채순화	12259	이희선	12271	김현아	12327	좌경웅	12362	김수진
12383	전선미	12412	조영기	12495	김기식	12533	차준석	12556	황상리	12581	박선영
12650	김남혁	12760	윤광재	12824	이은성	12840	김홍석	12871	최창호	12944	김명숙
13009	정종선	13046	김순범	13130	박상천	13179	고주현	13321	유희종	13334	전현중
13472	부희철	13496	박지용	13600	한조동	13738	정윤식	13784	한상민	13820	권재룡
13827	이국종	13927	신동준	20025	김상범	20220	이금석	20239	서동록	20247	권성민
20265	남상완	20328	김주상	20339	서동수	20391	이철용	20403	이승도	20475	김종한
20484	윤지형	20600	이철호	20650	정지원	20662	황광욱	20683	박건철	25004	황태수
25056	권두혁	25080	전현욱	25100	최동신	25161	최용준	25176	최해천	25185	서점교
25199	강명수	25258	이상업	25270	이운창	25281	노혜영	25306	이인준	25339	주형주
25373	정주호	25469	남상환	30051	황현하	30064	추현호	30150	임도열	30152	박종호
30237	김형균	30250	범 정	30353	김경은	30433	강성일	30482	정현구	30485	박현진
35020	이원오	35089	윤여창	35098	고경호	35105	강석도	35116	오선미	35121	하지연
35126	김명진	35144	정상철	35158	심우석	35193	문정영	35213	장진영	35272	최인규
35339	윤석귀	35345	문인호	35390	정용균	35469	노동호	40095	정상수	40116	윤지연
40218	최남주	40293	정현욱	40433	유희근	40446	박언호	40455	박규익	40581	윤창환
40606	최성민	40649	박창배	40667	김추환	40680	이성배	40700	서향란	45022	하정수
45086	배철학	45112	김종명	45409	김기범	45450	홍무근	45488	장용수	45495	이금수
45499	박찬욱										

○ 건축설계1, 건축설계2

00064	이기수	00065	이대진	00090	최문영	00114	이창수	00118	김승희	00247	윤 건
00271	최병오	00354	정진섭	00393	강동형	00409	이경우	00421	유지웅	00440	김철중
00445	염성국	00457	채웅석	00467	나민수	00504	한수원	00540	이강욱	00552	전용해
00559	정웅식	00572	권포도	00683	장미량	00684	강영규	00699	김승욱	00727	김수진
00760	박진기	00768	황병완	00779	곽은선	00812	한종규	00868	김지선	00885	이재범
00927	김민식	00961	안수연	01029	신광웅	01031	김무홍	01039	유 민	01041	조영선
01047	장성호	01050	이상훈	01064	이해건	01065	박창명	01077	하임수	01099	이상구
01102	이병호	01130	심재훈	01131	조성현	01132	최윤영	01134	최환호	01159	정낙현
01193	한민수	01223	곽수희	01233	이상석	01310	박재호	01352	김선기	01355	고성기
01359	이은진	01382	김영규	01387	길윤경	01407	김병수	01409	이은경	01412	민병근
01452	김창중	01495	이철희	01508	최종찬	01517	박 호	01599	유정두	01688	임준혁
01788	전영배	01805	신경철	01817	정태영	01843	류성필	01870	구본우	01873	박기철
01975	김민술	01994	윤현기	02085	강남용	02171	이용승	02183	권영규	02196	유영욱
02217	강태웅	02234	한종규	02239	김경태	02262	김성재	02304	정준영	02311	김세경
02327	정철민	02498	김수임	02553	나성호	02625	이정민	02816	한재천	02838	이현진
03018	박미영	03137	박세일	03169	나한성	03208	조형엽	03225	정욱진	03315	고광식
03617	이철원	03723	이인수	07555	민현준	07649	이병구	11077	나효신	11170	김동훈
11299	양창렬	11311	김병익	11353	권희택	11362	박종혁	11375	김 욱	11422	전호열
11449	최교식	11503	김용집	11697	송영팔	12294	김홍표	12487	김관기	12580	박소연
12587	이윤정	12620	류재근	12711	양우권	12718	김용락	12825	양성수	12829	김미애
12902	김장섭	13055	주경중	13083	박성규	13124	윤순복	13154	양익서	13333	강희준
13454	전명섭	13619	이봉원	13676	나건우	13724	고영목	13797	문상호	20015	이상민
20344	반정욱	20496	장원순	20532	김수영	25055	박영수	25063	유대상	25083	이승재
25182	정웅식	25240	김민희	25349	이상철	25436	전현욱	25500	이희민	30149	오호근
30298	박재봉	30350	이광영	30434	이현조	30445	곽진구	30496	창성주	30503	김종국
30571	김민수	30660	손경식	30663	박주현	35034	김봉성	35079	강낙훈	35086	김기일
35134	정효준	35214	문현희	35219	김승률	35278	최정수	35364	강봉휴	35378	하기성
40046	정영훈	40079	박원희	40085	정연호	40233	김우범	40281	장태욱	40322	오상율
40423	임준렬	40456	곽창섭	40687	박진석	45103	곽영석	45162	김보현	45170	김주권
45198	류태형	45208	김동성	45367	오승호	45382	이재기	45438	최해인	45470	윤석진

□ 1과목 합격

○ 대지계획

00021	박문수	00029	전재필	00041	이춘상	00051	김형진	00128	이문재	00138	김경환
00150	김한아	00219	송충석	00228	이재철	00269	정인식	00315	정진우	00321	안순용
00330	노순석	00350	이종욱	00360	류병욱	00386	김형두	00387	김치현	00430	정언거
00442	손창섭	00456	김중인	00496	김영호	00587	최명순	00644	정재춘	00646	이호환
00651	박해광	00675	김태순	00682	김진현	00701	김병모	00702	이정용	00713	고상규
00717	이의익	00729	유봉희	00809	이수정	00827	이선주	00912	김석남	00950	이용덕
00955	최미경	00983	박관영	00998	이남규	01007	최웅선	01043	김현재	01054	조광철
01055	신옥경	01060	양진성	01083	박진호	01139	신정훈	01155	윤상호	01175	이미영
01183	김형만	01202	최혜숙	01216	이창재	01269	표세능	01275	이병진	01276	윤미희
01278	이현재	01307	김종성	01315	이남수	01324	나명수	01334	변정훈	01335	황범대
01354	정봉찬	01393	이주연	01423	양수웅	01450	손영권	01472	김종우	01487	이종우
01488	김성호	01489	박종민	01541	최은영	01560	박덕심	01565	양대현	01568	강신경
01579	강필순	01610	성기관	01641	김필식	01655	정성배	01656	유승호	01684	김두경
01707	권영근	01727	김진복	01731	이승중	01737	장주순	01753	윤태웅	01756	이은용
01776	김미애	01793	송석현	01797	남택호	01802	김석근	01842	임인옥	01876	안일정
01892	이현창	01916	이무학	01929	심우현	01944	박준섭	01947	김재문	01983	오이현
02064	박세훈	02075	김대경	02131	김정임	02165	김진근	02264	진기택	02318	김영근
02351	홍유표	02437	방윤상	02513	박지호	02521	박준용	02642	최유신	02644	김학규
02668	서영주	02681	이병우	02686	서무현	02699	이현승	02742	김상근	02745	김민희
02939	김기상	03020	장항준	03099	한태희	03209	최홍열	03266	임다니엘	03298	김용호
03361	선상희	03751	김영석	03768	하상금	03922	박동호	03926	서민철	05642	장대원
11023	주병준	11079	김 남	11085	김응수	11099	정병희	11123	방일석	11158	이영복
11256	김해성	11296	김영근	11366	양동석	11543	김애경	11559	이기택	11596	김복열
11687	황의영	11744	황준규	11790	김민배	11804	윤대로	11808	정경호	11823	김학준
11854	문영규	11895	김민규	11908	김병철	11940	박종용	11986	이기일	11987	문경식
12025	김영산	12173	이규만	12270	채상열	12291	한창식	12298	민형만	12320	김은미
12344	김정일	12380	조현대	12420	송용재	12450	양 혁	12462	권형표	12463	이정훈
12467	김윤상	12483	한성호	12497	박수현	12549	이정문	12555	강성철	12573	손인원
12583	김병관	12615	배영광	12651	백익성	12713	이성섭	12715	이재만	12725	황경호
12758	이경숙	12819	조경주	12834	조두균	12844	김종범	12939	이명근	12993	이연복
13017	김종윤	13166	안일진	13259	엄영철	13318	장종민	13323	안태금	13406	이은종
13475	서원주	13488	최재형	13497	이성인	13688	정순문	13694	전용식	13848	문수성
13849	조원형	13935	이정희	13953	한경옥	20022	김용수	20031	유봉권	20042	한영숙
20102	박학천	20107	송석호	20158	최동률	20195	박민수	20199	박종순	20219	박미경
20228	강윤식	20301	김근대	20319	김종석	20379	이상식	20430	박경만	20517	김윤화
20538	이규탁	20548	윤정아	20578	송영일	20658	류태곤	25058	박미은	25084	이용진
25101	신종찬	25108	전상덕	25118	박정식	25150	서익환	25162	김덕성	25188	김규홍
25274	이상태	25277	강지연	25321	김동욱	25386	송현석	25457	정창욱	25493	서석주
26036	이상문	30114	이길배	30117	한정석	30258	정유석	30301	김은희	30430	김동현
30466	이병길	30495	하주아	30540	김권석	30609	이선룡	30679	신정호	35043	강계웅
35101	김효중	35123	김용순	35129	조원철	35157	안 철	35280	이교우	35297	원용후
35331	임성근	35368	이용섭	35404	양기봉	35434	박경만	35447	김기태	35449	임홍빈
35476	이화인	35487	온혜영	35498	이후민	40113	우창호	40210	김정찬	40274	곽성호
40294	채지숙	40353	김대홍	40440	최승모	40464	이경희	40527	이선우	40605	이상미
40676	이상중	45001	김학철	45016	유치열	45061	서병철	45073	김용훈	45141	장희창
45147	조현성	45151	김도수	45169	김성찬	45171	박철호	45195	김준욱	45223	김양수
45248	왕영철	45260	허영원	45277	김종익	45291	김지은	45306	이정삼	45318	차형호
45485	강호영	45493	이근영	46465	김성주						

○ 건축설계 1

00001	하종수	00040	유은주	00071	박용우	00093	김윤석	00107	이지연	00109	오병주
00119	정경택	00132	백봉주	00140	신명화	00142	조장현	00170	김성진	00174	선순규
00187	김기수	00256	한창호	00263	한장예	00282	박정양	00311	윤진호	00328	이홍규
00334	홍법열	00340	김상권	00417	김형진	00487	조윤석	00488	오석환	00497	이상열
00512	곽양자	00518	이충환	00577	류태웅	00592	최대영	00617	서동근	00621	방재성
00697	이태신	00752	김기응	00780	김덕후	00808	최현영	00825	박성철	00835	오명훈
00849	윤성민	00852	박중환	00862	이교창	00866	김현석	00879	강기현	00907	김병임
00909	진 하	00921	김덕균	00958	이영삼	00997	김현주	01015	신미경	01113	박승태
01160	김학균	01206	김남현	01225	정용범	01243	김윤기	01257	김영민	01287	류정웅
01303	우병호	01319	서현희	01363	이종경	01365	이무훈	01374	조은석	01416	김학진
01480	김종목	01493	김인혁	01545	백철기	01564	김동영	01571	송인옥	01572	구현덕
01608	주명중	01612	권재희	01650	박형진	01686	이우영	01736	김전환	01742	오동근
01751	하준엽	01762	강하룡	01772	이승훈	01775	구지연	01779	김승수	01795	채석중

01825	송영환	01846	김성재	01850	류동우	01863	김재남	01875	박권동	01891	문희운
01896	이지영	01931	정승호	01987	김기확	02379	정승규	02380	박영민	02406	박 현
02436	송기환	02485	오강석	02700	김성곤	02774	이정현	02787	이승택	02812	강민구
02832	여원민	02874	김종원	02924	송수진	02951	김찬용	03010	김원호	03051	김대성
03080	우지성	03090	조영신	03093	태진우	03136	박혜정	03173	박세환	03203	김성준
03249	김대광	03299	김도훈	03342	이상혁	03362	이 호	03368	박현진	03370	이효선
03397	박재성	03451	길현욱	03472	임병순	03487	조지인	03492	조인호	03519	김상식
03525	김일규	03546	신동현	03659	한용목	03752	윤권수	03892	임형식	03917	정숙영
03936	김영배	07566	박경수	11006	이장무	11068	박성숙	11070	오장환	11133	김은영
11177	이승규	11190	김창섭	11205	박성수	11315	이성재	11331	박희훈	11514	이원우
11623	조주명	11674	이병규	11685	전영민	11794	나상진	11833	양태근	11838	석순주
11943	강대호	12091	안인석	12131	오근호	12144	박병연	12147	이재웅	12204	김대현
12397	조대근	12479	최지돈	12491	전현주	12499	최용현	12537	유재정	12572	임홍순
12661	박원섭	12705	김충한	12708	김동명	12740	임흥기	12786	박종이	12803	전해룡
12854	정용길	12861	신재환	12901	조미정	12953	강무남	12979	이병구	13042	남기섭
13148	우종선	13243	이종근	13249	이형진	13268	김기정	13302	최희창	13304	이광환
13325	박종수	13461	홍민기	13535	정용재	13538	이용성	13609	김희섭	13638	김태훈
13681	이동욱	13704	조상환	13778	황정열	13810	이종숙	13843	김상호	13874	박병수
13921	김문겸	13977	박길호	13978	신충환	13990	이봉훈	20060	이성실	20115	양정필
20267	황기석	20289	안병철	20514	김덕구	20537	김정호	20543	남상욱	20590	손만오
20593	유명주	20603	이성득	25028	이승엽	25042	강해근	25049	권기원	25092	이성일
25183	박재영	25273	김현호	25425	박은호	25462	정종태	25472	정도성	30047	서지훈
30239	윤두섭	30279	정명환	30369	조우기	30414	이재현	30490	박재철	30502	조수진
30572	양정열	30576	정운기	30602	신태웅	30653	장영화	35122	심재호	35152	선명숙
35160	정우재	35338	김준희	35371	이은영	35379	오주형	35406	노석채	35444	엄창호
35454	박상근	40028	박종원	40060	강봉찬	40074	신영철	40239	김진성	40313	김상섭
40355	김정림	40363	하수성	40378	김순호	40404	정한경	40430	최동철	40499	이창훈
40582	최양식	40614	정재준	40656	최영호	45038	박정기	45042	우병우	45156	김천기
45221	박희동	45262	박도호	45274	최상규	45347	하성목	45472	최장열	46063	이강대
46330	최은영										

○ 건축설계 2

00006	김경애	00008	정영창	00009	임희상	00014	우광남	00015	고재영	00018	김원채
00037	정현석	00039	정창근	00048	임찬수	00063	김경순	00072	유종욱	00079	심 민
00082	윤동숙	00085	오홍영	00115	김세은	00123	이상민	00129	송부식	00146	성기배
00156	신상준	00158	김영호	00166	조승호	00178	김주연	00182	곽용구	00183	조성행
00184	김정우	00186	서봉욱	00189	김영배	00214	양우진	00220	신청수	00225	구 혁
00235	손정아	00237	김재호	00246	박순호	00251	김경남	00260	신승엽	00264	김용현
00267	이기상	00287	송문환	00301	박상수	00304	박문신	00309	조종우	00317	장태익
00327	이상고	00345	신형철	00351	이석재	00357	김지형	00376	김배현	00383	류현웅
00389	권용상	00392	박강원	00404	김기표	00407	이영숙	00438	차동식	00448	천진우
00450	송 훈	00462	이용일	00468	구본문	00470	강승현	00472	이승현	00474	황규진
00482	최경욱	00485	서유리	00498	박대원	00525	인정환	00529	강명수	00534	강한근
00535	이동규	00543	김범중	00551	곽문수	00556	이용범	00566	김현수	00568	임형은
00580	김성한	00603	정하명	00604	서동휘	00615	최광일	00630	신윤임	00636	유훈상
00637	이운기	00641	문태현	00650	김영기	00652	조병철	00657	최재원	00661	김상완
00665	정주광	00672	정용기	00678	김철희	00688	한종훈	00691	한형택	00694	송중현
00720	김승용	00735	백영중	00736	장은영	00737	강희상	00741	홍석균	00744	임인선
00746	김재선	00748	이연우	00766	윤선영	00787	허복권	00796	허성희	00806	백우현
00829	권세미	00839	전영오	00841	이기정	00848	이주원	00854	박광조	00871	김상현
00872	최성근	00881	구승희	00887	강경범	00888	허승범	00889	권민혁	00891	김동진
00898	이종성	00902	박용성	00916	김진기	00917	김병보	00926	이효범	00932	문용주
00940	이영혜	00941	장영대	00959	한정훈	00972	김홍수	00986	가수현	00996	이지원
01000	김진하	01010	노현웅	01011	박승완	01034	오기석	01037	이선희	01042	한수언
01048	배태현	01051	이정철	01074	장연기	01092	남준희	01098	김선우	01103	왕창수
01108	주재형	01109	고광주	01110	이철환	01122	양선영	01135	전경일	01138	이형근
01149	이승태	01157	안상민	01170	김동열	01176	이영우	01177	홍영식	01178	윤재환
01181	이수영	01197	박대훈	01200	황동신	01205	정해출	01208	류창석	01209	김정훈
01212	서희정	01215	정승태	01245	정순준	01246	김혜영	01251	이희경	01254	서국지
01255	김상진	01263	이동광	01284	김성근	01292	윤진호	01301	박기석	01326	강준구
01343	김형준	01345	신관철	01391	유남식	01408	이종필	01426	이나영	01436	김덕한
01443	박원영	01456	박성은	01467	김명화	01476	오 승	01486	장재영	01501	이영운
01515	권명상	01531	윤하영	01566	노혁성	01569	배연수	01575	정대선	01584	이대선
01589	김보섭	01593	여기홍	01602	남윤희	01629	류세주	01637	서동준	01640	장세진
01651	김창환	01653	김의기	01671	김경아	01690	김 석	01699	박형준	01720	박재환
01723	원명숙	01726	이학린	01732	이병우	01748	이규환	01766	주양규	01769	박홍석
01777	윤준용	01798	박 철	01806	정순봉	01810	권병기	01816	김기봉	01829	이광석
01839	이명주	01845	김삼철	01852	최경욱	01853	신원선	01860	이용태	01872	김영오
01894	배성환	01898	심규훈	01900	박정진	01911	김은숙	01920	유금열	01927	이문재
01928	장인철	01935	이승재	01939	강혁진	01952	백성준	01953	이동훈	01954	이승행

01959	김 현	01965	이장술	01970	유영규	01972	심명철	01985	김건우	01988	김기복
01990	박현병	01992	유병주	02000	김진환	02031	김수영	02032	윤석주	02050	오지현
02091	김종우	02111	김영진	02119	송태성	02121	신귀현	02124	신인경	02158	유동현
02178	이상일	02182	김관옥	02191	한현석	02242	손성호	02277	장규석	02279	김선홍
02288	김형국	02292	김승배	02309	성주제	02387	김희봉	02397	양동익	02458	윤형석
02459	도경선	02481	박성만	02522	엄경배	02573	김수희	02601	유성훈	02637	김용이
02694	안재형	02711	이은진	02735	강성구	02781	하해란	02813	이준희	02826	강석룡
02859	한규천	02887	이정희	02890	배임식	02933	김용선	02952	장용태	02975	하상훈
03023	박동현	03034	천재광	03053	김대영	03075	전용규	03122	김규성	03206	안원섭
03265	김윤환	03307	이진경	03323	강동수	03365	김명수	03429	박성권	03460	조영진
03489	남태연	03505	김경훈	03549	김정훈	03566	한해정	03588	조용석	03615	이법진
03622	이만우	03649	문성배	03667	김주현	03673	김인열	03719	박정숙	03735	강석일
03746	정명호	03767	안순상	03799	이상철	03807	이진욱	03821	조상훈	03826	강수진
03844	우성웅	03864	황세준	03876	최유진	03880	나정윤	03881	오창훈	03895	이정우
03900	이영근	03951	김태엽	03953	김병환	03957	홍석구	11015	이형주	11053	김세형
11088	김광수	11105	홍영주	11113	구국현	11160	고현수	11262	정재철	11276	안병영
11289	박재승	11305	홍 택	11363	이은호	11388	홍한기	11405	박재환	11409	신영근
11423	김광수	11444	한광수	11461	박주명	11462	양원혁	11471	노윤진	11498	주병기
11535	김경문	11568	강 호	11573	김동호	11622	유동수	11671	박수길	11705	박수종
11751	윤석길	11769	김중경	11776	이정섭	11825	김기철	11857	손기락	11858	김종익
11890	이길도	11924	김영곤	11936	이명오	11948	최일주	12089	김성욱	12111	유성삼
12158	서광우	12183	구자항	12266	김종서	12303	박재호	12313	홍동필	12315	최영식
12316	심성희	12328	이택근	12332	조철민	12341	이재익	12345	안현정	12372	강정원
12381	김승완	12415	한호진	12419	박민주	12441	이수정	12454	윤경희	12465	성호진
12510	주영환	12511	김금옥	12539	이성훈	12579	전성환	12594	박지성	12645	권성순
12669	권상웅	12695	장광현	12698	김명섭	12733	곽현섭	12737	고순만	12768	권태혁
12778	김경호	12804	고용수	12817	양길수	12857	한종섭	12867	김성훈	12880	이진상
12898	황목천	12903	박종도	12950	이경욱	12959	전세덕	12971	한대웅	12978	양석준
13003	이동식	13008	배영진	13084	김의종	13136	김대웅	13356	염정선	13397	우연성
13445	최상길	13514	양춘호	13561	이준배	13566	박중석	13568	윤승민	13585	강성순
13595	이창규	13604	이경훈	13614	유진상	13624	장치화	13630	변승철	13642	전해영
13669	이준수	13703	이준희	13705	김병진	13708	모진서	13734	최인규	13794	고학윤
13822	이세영	13824	박문규	13889	김장문	13890	정의상	13924	오치광	13973	이용술
13974	김훈생	13976	강선배	13980	노현석	16975	양해율	20050	김정환	20059	박준구
20077	최연수	20079	강문철	20092	민소영	20117	김충곤	20140	임선호	20172	김우현
20184	이석필	20194	김희식	20223	손주환	20225	이정휘	20237	장지욱	20270	이영신
20285	송유석	20316	김재하	20329	이성일	20371	이수명	20382	김도형	20417	박종원
20426	김수근	20494	조홍찬	20495	하동렬	20529	이태원	20569	한전기	20599	박용수
20614	김상근	20626	임용준	20646	정병호	20670	이정민	20685	고창규	25018	김남국
25046	강희규	25057	정경숙	25066	박용원	25078	안광모	25090	박근학	25094	정진영
25098	채만석	25099	권종현	25121	서승극	25132	윤명수	25136	허원석	25138	전상욱
25141	옥명기	25142	이정화	25174	백윤중	25186	강행숙	25190	정호영	25194	임윤택
25197	김용국	25211	윤영재	25212	주명구	25248	노화식	25263	양영권	25284	김종근
25298	하선동	25304	조진만	25318	제영모	25322	이한규	25327	김철백	25341	한석재
25347	김종만	25396	김현주	25406	이상대	25409	안치현	25432	이응환	25441	손은호
25445	이희승	25465	서오복	25466	박재영	25468	윤무진	25483	박승용	25486	조은숙
26124	정만수	26460	박한석	30004	김세림	30017	강영록	30101	권최남	30139	장동석
30145	추양길	30153	이도산	30166	양창근	30194	조준익	30199	김용근	30217	정길성
30229	김용민	30270	장순우	30291	윤홍식	30331	강기문	30343	이승현	30347	양태하
30363	김낙현	30366	최재중	30418	조일섭	30458	강석관	30475	황선대	30480	김성규
30550	권경원	30577	박경하	30579	이영진	30580	백종민	30600	최진록	30610	박영국
30639	이수용	30662	황창국	35045	이미양	35046	김대식	35052	백수현	35054	박종영
35056	민남기	35058	김영전	35062	박준용	35106	이광덕	35136	최병률	35188	이길호
35190	박창우	35195	황인광	35225	최규호	35232	유형두	35234	강진아	35269	조용섭
35284	나상민	35296	이희정	35306	김용래	35308	최기선	35320	오기진	35324	김성은
35342	송영남	35344	정상수	35358	왕성호	35376	이은경	35381	장명철	35383	김준우
35389	우병원	35420	박환영	35470	김익희	35488	임준호	35500	고 병	40004	허 부
40013	이대영	40026	박철식	40032	남상철	40034	이종상	40045	박재범	40053	이희경
40063	최영호	40071	이두형	40080	최유진	40111	윤성식	40132	정현철	40134	강동대
40143	권영국	40144	조재열	40167	박호정	40182	김동수	40201	최 철	40209	고경환
40213	양상범	40236	심기석	40237	김병찬	40240	여상화	40267	박정원	40288	김영곤
40295	이병선	40301	이용환	40318	박세훈	40367	배명선	40383	정용진	40385	이무열
40391	서동욱	40394	조석민	40406	박동찬	40409	윤정호	40412	이진욱	40415	최 기
40425	윤상훈	40441	이병근	40463	서영준	40467	서진원	40471	박윤근	40476	김금홍
40516	정순재	40517	안성국	40535	박혜영	40544	최영륜	40551	주재홍	40554	이재식
40557	김치년	40565	윤소원	40580	김정화	40618	이상기	40622	정준상	40624	한상덕
40672	김찬기	40690	박재상	45002	문택수	45041	김한식	45063	이수호	45165	김성록
45194	김군환	45209	박찬근	45236	최육곤	45269	김성한	45270	강기진	45275	허영재
45295	이광택	45309	양성용	45315	최지연	45320	이재욱	45340	이인호	45366	김영호
45379	박완규	45400	강석출	45422	황정희	45436	김경성	45466	박태환	45467	이상흠
45487	주환호	46424	김원필	46466	권용보						

건축 소프트웨어 업계동향

2005년 CAD 업계의 동향은 포맷 표준의 문제, 3D CAD(보다 정확히 말하면 BIM으로의 전환)에 따른 시장 변화와 경쟁이라 할 수 있다. 포맷 표준은 2D 분야에서는 Autodesk사의 DWG(DWF) 포맷이 확고한 자리 매김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문서 분야에서의 PDF 형식과의 시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CAD 시장 이외에 보다 많은 사용자의 확보를 위하여 Autodesk사는 Microsoft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는 Adobe사의 문서 표준인 Autodesk사뿐만 아니라 Microsoft사에게도 많은 위협을 주고 있다는 양사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결과라 할 수 있다.

건축분야에서의 3D CAD(BIM)분야로의 변화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현재 2D CAD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언젠가는 3D CAD 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D CAD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는 업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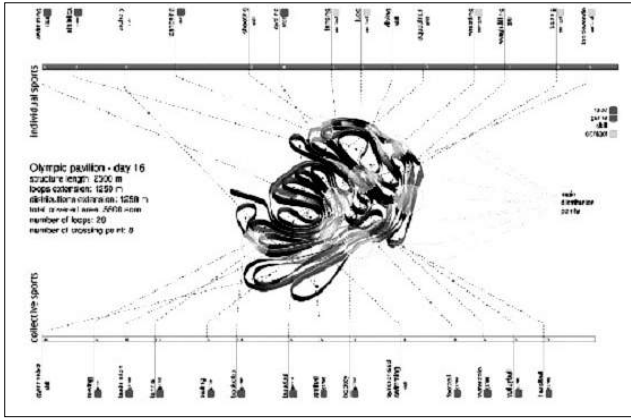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Autodesk사 및 Bentley사 등 CAD 업계는 3D CAD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entley사의 모임에서도 BIM이 주된 주제로 논의 되었으며, AutoCAD University 회의에서도 이 주제가 많이 논의 되었다. 특히 2D 중심의 업무 관행에 따른 3D로의 새로운 업무수행 모델의 구축이 어려운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Autodesk사는 기존 2D 시장에서의 파일 형식을 자사의 3D CAD 소프트웨어와 연계 시킴으로써 사용자 이탈을 막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계획설계단계에서의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SketchUp과 Rhino 등의 등장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설계단계로부터 문서관리분야까지의 모든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의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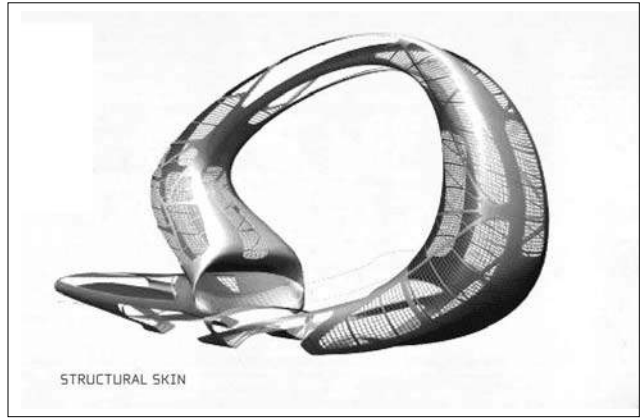
e-competition

도구는 결과를 바꾸는 현상이 건축 설계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들의 건축물들이 제안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공모전으로 'POSSIBLE FUTURES'라는 주제의 경연이 있었다. 이 설계경연의 목적은 '새로운 개념의 그리고 실험적 작품'에 대한 탐구이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Miami + Beach와 건축주간의 이벤트로 열린 비엔날레 이벤트로 열린 이 현상공모전에서는 102개의 작품이 출품되어 최우수 작품으로 'loop space'가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2012년 런던 올림픽 프로모션을 위하여 제안된 작품으로 외부 공간에서의 군중의 수용을 위한 작품이다. 이외에 3등 작품으로 'euroscaper'가 당선되었다. 이들 작품들은 디지털을 이용한 설계 혹은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다.

(<http://www.fiu.edu/~biental/miamibeach2005/futures-en1.html>)



1등 수상작품 Loop Space. 2012 런던 올림픽 프로모션을 위한 파빌리온 계획안



3등 수상작품 euroscraper. 유럽의 전통과 문화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조각적 형태의 건축물 계획안

건축 소프트웨어 업계 소식

AutoCAD University 회의 개최 및 정책

지난 11월 말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5,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utoCAD University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Autodesk사의 새로운 기술과 미래 전략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이 회의에서 Autodesk사는 변화하는 시장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 시장유지 및 개척의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이스분야, 사용자 유지, 경쟁자에 대한 견제 등의 분야에서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야에서는 적극적 개선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2가지 다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이를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형식이며, 다른 하나는 Inventor와 유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Command' 프롬프트가 없으며, 제어판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 AutoCAD 사용자의 Autodesk사 제품로의 지속적 유지

기존 AutoCAD 사용자들은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호환성의 문제를 겪게 된

다. Inventor는 기계분야에서 2D와 3D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 현재의 경우 AutoCAD와의 호환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AutoCAD는 상호 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건축분야에서 사용되는 3D 모델인 Revit과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3D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 시장에서의 시장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 경쟁 회사들에 대한 적극적 견제

3D 시장에서 Autodesk사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많은 경쟁자가 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계설계 분야에서의 SolidWorks와 같은 경우이다. 이들에 대한 미디어를 이용한 적극적 견제를 시도하고 있다. 다른 접근 방식으로 AutoCAD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품군을 만드는 형식으로서의 접근이다. 설계 초기단계에서 사용하는 Rhino나 SketchUp에서의 기능들을 포함하여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각화 그리고 문서화의 모든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 기타 특성

현재 AutoCAD의 경우 3D 모델링기반 기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3D 상태에서의 형태 생성 및 수정 기능의 보강과 함께 랜더링 기능의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Microsoft와 Autodesk사의 전략적 제휴

지난 12월 Autodesk사와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전략적 제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적 제휴계획의 1단계로서 Autodesk사의 DWF 형식을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Office와 Business Solutions-Great Plans® 그리고 Microsoft Business Solutions-Axapta®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XAMI 형식을 Autodesk사의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또한 발표하였다.

Reed Construction Data사와 Autodesk사의 협력 발표

Reed Construction Data사는 11월 28일 Autodesk사와 협동으로 DWF 파일 포맷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관계를 맺기로 하였다. 이 협력은 문서 형식표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D, 3D CAD 디자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Reed사는 입찰단계에서 건축가와 건축주를 위한 제안 문서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

Bentley BIM Summit 개최

지난 11월 Bentley 시스템에서 주관하는 BIM 회의가 런던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유럽의 건설산업 중역들과 CAD 및 IT 매니저들이 모여 BIM 산업의 현황과 향후 사용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와 같은 새로

운 기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변화의 문제이다. 과연 BIM 기술이 얼마나 확산이 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의 차이점에 관하여 논의가 벌어졌다.

주요 쟁점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BIM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 성공의 실례를 볼 수 있다.
- BIM을 사용한 경우 다른 방식의 업무 운영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
- 건설 산업은 BIM으로 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서서히 변화할 것이다.
- 건설 산업은 BIM의 적용에 따른 이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BIM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애플 세미나 : 맥킨토시에서 Autocad DWG의 활용

애플사는 'DWG on the Mac'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DWG는 산업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Autodesk사에서 만든 포맷으로 매킨토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이다. DWG 파일을 매킨토시의 ArchiCAD, eDrawings와 VectorWorks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 다양한 파일 포맷들로의 Importing/exporting
- 3D DWG모델과 다른 3D model과의 호환
-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DWG 파일 보기 기능

2006 buildingSMART 국제 컨퍼런스

BIM을 기반 설계, 시공, 운영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buildingSMART 국제 컨퍼런스가 2006년 4월 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컨퍼런스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건물 생애주기기간 동안 가상 건물을 사용하여 디자인, 시공 및 운영을 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한다.
- BIM의 사용에 관한 설계, 시공, 정부 및 개인, IT 전문가 및 개인들의 경험과 견해를 논의한다.
- IFC 모델을 사용한 데이터 표준에 의한 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

신규 소프트웨어

아키라인 한글 베타 5

아키라인(ARCHlineXP)은 객체지향 캐드(Object Oriented CAD)로 통합 CAD 시스템이다. 건축사가 도면, 조감도, 물량산출, 사진측량,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이용할 경우 도면, 조감도, 물량 산출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별도의 외주 작업이 필요 없어 작업이 가능하다. 평면도에서 벽의 위치를 수정하면 단면도, 정면도에서도 동시에 수정이 이루어지며, 조감도와 물량 산출 데이터도 동시에 수정 되는 CAD 시스템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Microsoft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워드, 엑셀, 등)와 유사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Shadow Multi-Cast

AutoCAD 내부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AutoCAD 도면으로부터 정확한 그림자 다이어그램을 생성할 수 있다. AutoCAD 모델로부터 1:1 축척으로 그림자를 생성한다. 그림자의 선들은 AutoCAD object로써 수정이 가능하다.

Chronos

이 소프트웨어는 AutoCAD 사용에 따른 시간적 이력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이다.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정확한 물량산출 시각, 제3자 프로그램의 평가와 비교, 사용자 환경설

정에 따른 효율성 체크, 방법 변경에 따른 과정 및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면작성에 따른 소요 시간을 계산하여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용에 따른 작업시간과 정보 접근 내용에 관한 기록을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도면 작성에 따른 특성에 관한 기록 또한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도구로써 사용할 수 있다.

ArchCalc

이 소프트웨어는 계산 및 단위변환 소프트웨어이다. 면적 및 체적을 계산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단위로의 변환이 가능하다. 또한 경사면 등에 대한 면적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독립적인 계산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CAD 소프트웨어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계단 참 높이의 계산 등을 수행할 수 있다.

Layer Management

레이어를 관리하여 주는 소프트웨어이다. 각 작업에 필요한 레이어 표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시공계획 단계에서는 전기 부분의 레이어를 끄고 작업을 할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사전에 표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적 레이어 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이다. AutoCAD 2000으로부터 2006에서 운영된다. ■

〈제공 : 윤기병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05년 건축허가 현황(11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1월)			누계 (1~11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1,596	11,875	2.4%	129,025	118,250	-8.4%
	연면적	9,744,117	8,355,071	-14.3%	99,324,182	94,818,155	-4.5%
주거용	동 수	3,136	2,762	-11.9%	42,044	33,210	-21.0%
	연면적	3,793,888	3,726,185	-1.8%	38,911,002	41,068,488	5.5%
상업용	동 수	3,342	3,590	7.4%	40,415	35,579	-12.0%
	연면적	2,312,003	1,701,544	-26.4%	28,726,603	20,713,764	-27.9%
공업용	동 수	1,821	2,076	14.0%	18,851	18,583	-1.4%
	연면적	1,743,327	1,159,568	-33.5%	13,519,781	12,315,766	-8.9%
문교및 사회용	동 수	968	920	-5.0%	7,956	8,973	12.8%
	연면적	683,413	632,413	-7.5%	7,641,815	8,838,057	15.7%
기 타	동 수	2,329	2,329	8.5%	19,759	21,905	10.9%
	연면적	1,211,486	1,211,486	-6.3%	10,524,981	11,882,080	12.9%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1월)			누계 (1~11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1,596	11,875	2.4%	129,025	118,250	-8.4%
	연면적	9,744,117	8,355,071	-14.3%	99,324,182	94,818,155	-4.5%
철 근 철골조	동 수	10,155	10,516	3.6%	111,704	103,690	-7.2%
	연면적	9,619,482	8,256,902	-14.2%	97,568,610	93,608,805	-4.1%
조적조	동 수	1,252	1,151	-8.1%	15,216	12,452	-18.2%
	연면적	104,299	76,092	-27.0%	1,392,639	1,000,121	-28.2%
목 조	동 수	189	208	10.1%	2,103	2,101	-0.1%
	연면적	20,336	22,077	8.6%	362,397	208,541	-42.5%
기 타	동 수	0	0		2	7	250.0%
	연면적	0	0		536	687	28.2%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1월)			누계 (1~11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1,596	11,875	2.4%	129,025	118,250	-8.4%
	연면적	9,744,117	8,355,071	-14.3%	99,324,182	94,818,155	-4.5%
수도권	동 수	4,023	3,625	-9.9%	43,818	36,547	-16.6%
	연면적	4,564,173	2,394,269	-47.5%	48,362,412	39,566,482	-18.2%
서 울	동 수	735	672	-8.6%	8,110	6,741	-16.9%
	연면적	1,321,705	610,310	-53.6%	12,069,165	9,459,740	-21.6%
인 천	동 수	323	330	2.2%	4,264	3,384	-20.6%
	연면적	540,606	361,451	-33.1%	6,212,226	3,972,867	-36.0%
경기도	동 수	2,965	2,623	-11.5%	31,444	26,422	-16.0%
	연면적	2,701,862	1,422,508	-47.4%	30,081,021	26,133,875	-13.1%
지 방	동 수	7,573	8,250	8.9%	85,207	81,703	-4.1%
	연면적	5,179,944	5,960,802	15.1%	50,961,770	55,251,673	8.4%
부 산	동 수	408	401	-1.7%	4,503	4,575	1.6%
	연면적	578,172	325,685	-43.7%	4,818,792	4,850,653	0.7%
대 구	동 수	383	499	30.3%	4,853	4,476	-7.8%
	연면적	933,275	1,543,631	65.4%	5,058,950	7,837,370	54.9%
광 주	동 수	282	400	41.8%	3,004	3,286	9.4%
	연면적	189,063	241,981	28.0%	2,016,931	2,629,513	30.4%
대 전	동 수	230	260	13.0%	3,087	2,630	-14.8%
	연면적	192,065	80,554	-58.1%	2,968,729	2,175,094	-26.7%
울 산	동 수	218	301	38.1%	3,265	3,074	-5.8%
	연면적	84,561	198,722	135.0%	1,850,754	1,671,539	-9.7%
강 원	동 수	542	699	29.0%	7,098	6,510	-8.3%
	연면적	301,075	628,776	108.8%	3,689,451	4,400,828	19.3%
충 북	동 수	818	690	-15.6%	7,996	6,884	-13.9%
	연면적	548,610	398,499	-27.4%	4,934,867	4,867,212	-1.4%
충 남	동 수	903	763	-15.5%	10,498	8,359	-20.4%
	연면적	865,651	704,770	-18.6%	8,394,577	6,462,587	-22.2%
전 북	동 수	578	614	6.2%	5,935	6,287	5.9%
	연면적	185,519	196,587	6.0%	2,284,254	3,177,277	39.1%
전 남	동 수	591	781	32.1%	6,933	7,213	4.0%
	연면적	267,734	258,541	-3.4%	2,852,759	2,323,891	-18.5%
경 북	동 수	1,204	1,337	11.0%	12,514	13,032	4.1%
	연면적	471,096	427,918	-9.2%	5,101,348	6,011,606	17.8%
경 남	동 수	1,147	1,213	5.8%	12,203	12,544	2.8%
	연면적	420,455	846,236	101.3%	6,037,780	7,926,898	31.3%
제 주	동 수	269	292	8.6%	3,318	2,833	-14.6%
	연면적	142,668	108,902	-23.7%	1,042,578	917,205	-12.0%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5년 11월말

구 분 건 축 사 회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100	5,100	168	336	30	94				5,298	5,530	1,467	1,467	262	524	73	219	30	120	32	204							1,864	2,534	7	7	7,169	8,071	100.0%	100.0%
서울	1,187	1,187	52	104	13	41				1,252	1,332	843	843	173	346	41	123	20	80	18	119							1,095	1,511	6	6	2,353	2,849	33.2%	35.4%
부산	510	510	19	38	6	19				535	567	78	78	14	28	5	15	4	16	5	28							106	165			641	732	8.9%	9.1%
대구	411	411	28	56	7	22				446	489	46	46	19	38	7	21	1	4	2	10							75	119			521	608	7.3%	7.5%
인천	222	222	2	4						224	226	49	49	4	8	1	3											54	60			278	286	3.9%	3.5%
광주	208	208	4	8						212	216	29	29	7	14	3	9	1	4	3	17							43	73			255	289	3.5%	3.6%
대전	202	202	12	24	2	6				216	232	24	24	10	20	1	3	1	4	1	12							37	63			253	295	3.6%	3.7%
울산	159	159	6	12	1	3				166	174	14	14	2	4	2	6											18	24			184	198	2.6%	2.5%
경기	688	688	7	14						695	702	220	220	19	38	3	9	1	4	1	5							244	276			939	978	12.7%	12.1%
강원	156	156	4	8						160	164	21	21	3	6			1	4									25	31			185	195	2.5%	2.4%
충북	172	172	8	16						180	188	22	22	2	4	2	6			2	13							28	45			208	233	2.9%	2.9%
충남	156	156	3	6						159	162	38	38			2	6	1	4									41	48			200	210	2.7%	2.6%
전북	178	178	3	6						181	184	20	20	2	4	3	9											25	33			206	217	2.8%	2.6%
전남	127	127								127	127	8	8			1	3											9	11			136	138	1.9%	1.7%
경북	288	288	7	14	1	3				296	305	30	30	1	2	1	3											32	35	1	1	329	341	4.6%	4.2%
경남	335	335	13	26						348	361	18	18	6	12	1	3											25	33			373	394	5.2%	4.9%
제주	101	101								101	101	7	7															7	7			108	108	1.5%	1.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사회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054	10	8,064	100.0%	23
서 울	2,840	3	2,843	35.4%	10
부 산	731	1	732	9.1%	9
대 구	608	0	608	7.5%	0
인 천	286	0	286	3.5%	0
광 주	289	0	289	3.6%	0
대 전	294	1	295	3.7%	0
울 산	198	0	198	2.5%	0
경 기	976	2	978	12.1%	2
강 원	195	0	195	2.4%	0
충 북	233	0	233	2.9%	0
충 남	207	3	210	2.6%	0
전 북	217	0	217	2.6%	0
전 남	138	0	138	1.7%	0
경 북	340	0	340	4.2%	1
경 남	394	0	394	4.9%	1
제 주	108	0	108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530	2,534	7	8,064	
비 율	68.4%	31.5%	0.1%	100.0%	
사무소수	5,298	1,864	7	7,162	
비 율	73.7%	26.2%	0.1%	100.0%	

자재소식 | Product News

스케치업 V5.0

AutoCAD의 완벽 호환, 저렴한 가격 '오피'



스케치업은 건축, 리모델링, 조정하시는 유저들과 3차원 스케치 작업을 하는 유저들에게 매우 유용한 소프트웨어로서 손으로 작업하던 유저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손으로 작업하던 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데이터의 반복적 사용과 손쉬운 변형이 가능하며, DWG 혹은 DXF파일로의 변환으로 기존의 CAD 프로그램에서 스케치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1일 교육으로 대부분의 사용법을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구성 되어 있으며, 생성된 데이터는 JPG, BMP, TIFF 등의 이미지로도 저장하여 시각디자인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프로그램의 장점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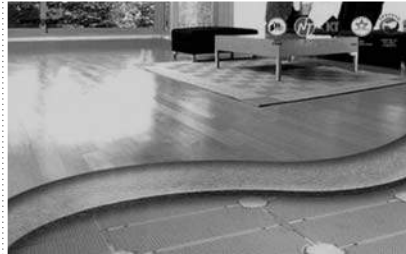
• 건축, 조정, 리모델링 적용 • AutoCAD 프로그램과의 완벽한 호환성 • 저렴한 가격 • 계획 설계, 단지배치, 활용 • 다양한 재질의 매핑과 심볼제공

한국씨아이앳(주)

Tel. 02-515-3167 | www.kcim.co.kr

LG 히트릭스 패널

첨단 기능성 신소재 및 상업용 건축 자재의 길잡이 - 휴먼 에이텍(주)



휴먼 에이텍(주)는 'LG화학 히트릭스'의 설계지원 및 시공납품 전문업체로서 기존 XL난방 대비 30% 에너지 절약효과로 2005년 장영실상을 수상한 바 있다. 건식 및 습식 시공이 가능하고, 경량 충격음 8dB감소와 중량 충격음 4dB감소시키는 처음 성능을 자랑한다.

'LG화학 히트릭스' 패널은 저하중 설계와 충고 확보로 넓은 생활 공간을 영위할 수 있다. 휴먼 에이텍(주)은 항상 고객의 만족과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휴먼 에이텍(주)

Tel. 02-785-7522(대) | www.bmtechkorea.com

카임 미네랄 페인트

펜타곤의 보수에 사용된 명품 페인트



독일 카임사(www.keimfarben.de)는 1878년 설립된 이후 약 130년간 실리케이트계 미네랄 페인트의 발전을 주도해 온 회사이다. 이 페인트의 가장 큰 특징은 통상 물유리로 불리는 독특한 바인더(potassium silicate)에 기인한다. 기존의 유기질 페인트들이 피도면에 단단하게 부착된 필름을 형성하는 반면, 이 페인트는 피도면에 스며들어 피도면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피도면의 일부가 됨으로써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피도면에서 분리될 위험성이 없으며, 피도면의 통기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안료 또한 천연의 암석에서 추출하며 이는 물유리와 결합하여 수명이 페인트가 적용된 건물의 수명과 함께 한다. 카임 미네랄 페인트는 환경적으로 무해하며, 거의 완벽한 내구성, 내후성, 내광성을 지닌 제품으로 독일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펜타곤의 보수에 사용된 명품 페인트이다.

카임코리아

Tel. 02-2242-8466 | www.keimkorea.com

2백년 역사의 영국유리 메이커 'PILKINGTON'

반사 로이유리(Eclipse Advantage™ Reflective Low-E Glass)



2백년 역사의 영국유리 메이커 'PILKINGTON'의 한국대리점인 (주)예림지엠에스에서 판매하는 'PILKINGTON'의 기능성 코팅유리는 전품목 하드코팅(HardCoating)이므로 강화, 접합, 곡 등의 가공이 가능하고 장기간 보관하여도 품질에 이상이 없다.

- 저철분 백유리 (Optiwhite™)
- Energy Advantage™ Low-E Glass,
- 자정유리 (Activ™ Self-Cleaning Glass)
- 저반사유리 (OptiView™ Anti-Reflective Glass)
- 전도체 코팅유리 (TEC Glass™)
- 방화유리 (Pyroshield / Pyrodur)



PILKING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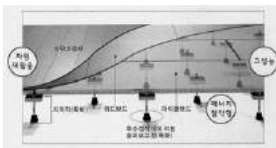
First in Glass

(주)예림지엠에스

Tel. 02-548-0222 | www.yelimgrms.com

BANKYO Floor System

일본시장 60% 점유, 업계위 제품



'BANKYO Floor System'은 일본의 태성전기공업에서 생산되어 방교(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중마루바닥시스템으로, 일본시장 60% 점유의 업계1위 제품이다.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되어있어 불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제품이며, 특히 특허등록인 이 회사 기술력의 집결체인 '지지각'은 타사 제품과

확연히 구별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충격테스트(발급번호 0411-1986) 시험결과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38dB이라는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열관류율 테스트(발급번호 0412-2165)도 통과를 하였다.

(BANKYO Floor System의 장점)

- 층간소음 문제해결 • 바닥감재와 슬라브와의 공간생성으로 시멘트독 차단 • 공사기간의 단축(온돌의 양생기간이 필요없으므로 기존의 아파트 건축기간보다 약3배 빠른 시공 가능)
- 건물의 경량화 • 친환경적인 나무를 사용하여 자원재활용 가능

삼영무역(주)

Tel. 02-320-4007 | www.samyung.co.kr

Hi-Name 3.0 Pro

쉽고 빠른 명함정리! 하이네임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이네임(Hi-Name 3.0 Pro)은 명함전용 스캐너를 통해 입력된 명함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저장한 후 활용하는 명함정보관리 솔루션이다. 입력된 명함정보는 엑셀파일로 변환하거나 검색, 이메일발송, 지도검색, 인쇄, SMS발송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비즈니스 툴킷이다.

또 문자인식을 통한 명함정보 입력 자동화 및 한번의 동작으로 명함속의 정보를 자동 추출하여 개인정보 활용 극대화하는 기능과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한지를 한글로 자동 변환하는 기능, 명함속의 개인정보 활용을

극대화(엑셀, outlook, SMS 등 각종 S/W와 연동 및 손쉬운 검색기능, 다양한 출력력을 지원(라벨 인쇄, 리스트인쇄, 수첩인쇄) 및 홈페이지 연결, 메모기능 등이 지원된다. 하이네임은 특허 및 KS, GQ, GDMark 등 공인인증마크 획득하고, 국산신기술인증서, 우량기술기업지정서, 신분종의 문자/사진정보 인식시스템 및 그방법(특허출)아이템타-2000을 통한 문자인식/음성인식방법(특허출) 외 다수 인증을 취득하였다. 소비자가 : 187,000원(VAT포함)

(주)한국인식기술

Tel. 02-761-5492~4 | www.hiname.net

버려진 나무에서 새롭게 태어난 건축소재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이 만드는 최첨단소재 과학 - 이우드(E-WOOD)



폐 목재와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 건축 소재로 태어난 합성목재 이우드는 천연목 그대로의 느낌과 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벌레나 물에 쉽게 훼손되는 나무의 단점을 최소화한 합성목재이다. 이우드 합성목재는 변형이 거의 없고 자외선 차단력이 뛰어나서 특히 외장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표면강도나 방수능력도 일반 목재에 비하여 월등하므로 내장재나 테이블, 의자와 같은 가구로도 적합하다. 내·외부 데크, 정원데크, 파고라, 벤치 및 책상, 계단, 창문·문틀, 창문 새시 등 건축·인테리어 자재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E-wood
Tel_ 02-456-3252 | www.e-wood.co.kr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재

『SSD 방진바닥』 - 일본 건축학회 권장 등급 「특급」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APT의 층간소음 저감성능은 슬라브 두께 180mm 구조에서 대략 51~55dB 이하이다. 표준바닥구조인 210mm에서 도 안방의 경우 법적규정치인 50dB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공식적인 설명이다. 『SSD 방진바닥』은 슬라브와 마감재층을 완전히 분리시킨 엑세스 플로우공법의 일종으로서 바닥충격에너지는 1차·2차·3차에 걸쳐 효과적으로 저감시키도록 설계된 바닥구조로서 슬라브 180mm에서 중량충격음이 41, 42dB에서 국내 등급으로 「2급」, 일본 건축학회 권장 등급으로는 「특급」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한 층간소음 저감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열관류율면에서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추후 리모델링등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는 바닥구조이다.

(주)삼세대사공 영업부
Tel_ 02-808-3030 | www.samsedae.com

SLP(Studless Panel)

일본에서 설계, 제작된 차음재, 방음재



SLP 판넬은 4M까지 자체유지가 가능한 제품으로 한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일본에서 설계, 제작된 차음재, 방음재로써 고체충격음을 저감시켜주고, TLD치 60이상의 효과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기전파음은 약 500mm두께의 콘크리트 벽 방음성능에 필적한다. 그리고 내화성, 경량화, 인발내력, 가변성, 환경친화성, 내진구조가 매우 뛰어나 방송국, 공연장, 전시장, 병원, 호텔, 주거복합 등의 고층건물, 콘도, 기숙사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애니 SLP 주식회사
Tel_ 02-416-4252 | www.anycc.co.kr

행거 슬라이딩 도어 & 볼락이장

신개념의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 (주)알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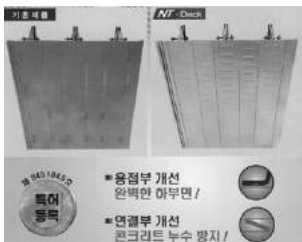


(주)알루스는 알루미늄 제품 가공, 제조 및 전문건설 회사로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의 가공을 창조적이며 유연한 사고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직접 설계 및 제작 및 시공을 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인 알루미늄 커튼 월, 도어(중문, 난간, 이중창 및 시스템창호, 루바, 빨래걸이 등 알루미늄 제품가공 및 시공에 대한 생산설비 및 전문화된 기술력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주)알루스
Tel_ 031-497-5134 | www.alus.co.kr

데크플레이트 마켓쉐어 부분 부동의 1위

New TRUSS(N.T) DECK 신제품 개발 성공 - 제일테크노스



꾸준한 성장을 통해 건설한 중견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제일테크노스는 데크플레이트 마켓쉐어 부분 부동의 1위를 달성하는 등 건설시장 개혁과 확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3년 철선 KS 취득, 중소기업선정 2003년 INNO-BIZ 선정, 건설교통부 2003년, JF DECK 신기술선정 및 2WAY DECK SLAB SYSTEM 특허공법 개발, 2005년 조달청, 우수제품인정(NEW TRUSS DECK) 등 우수한 품질의 NEW TRUSS(N.T) DECK 신제품개발에 성공해 데크플레이트 시장을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주)제일테크노스
Tel_ 054-278-2841 | www.jeil21c.co.kr

늘 푸른 에버그린

최고급 원료만으로 개발된 친환경 수성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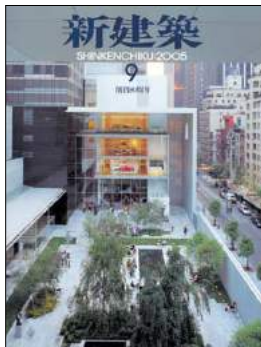
늘푸른 에버그린은 최고급 원료만을 엄선하여 개발한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콘크리트, 시멘트, 타일, 석고보드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성분이 없고 VOC함량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환경마크 협회의 '환경마크'를 획득한 데 이어 'HBM 최우수인종'을 획득한 제품이다. 환경친화, 작업성이 우수하고, 도막외관과 색감이 탁월하다. 곰팡이 방지기능과 내구력이 우수하다. 원적외선도 방출된다.

삼화페인트공업(주)
Tel_ 02-765-3641~7 | www.spi.co.kr

신건축

2005년 9월호

이번 호에
서는 일본인
건축사 타니구
찌에 의해 설
계되어 최근
재개관한 뉴욕
근대미술관
(MoMA)이 표
지를 장식했



다. MoMA가 지니는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이의 증축과 재정비 계획은 그 건축적 완성
도를 떠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한 MoMA는 MoMA의 건축,
디자인 부문 필립존슨 치프 큐레이터인 테렌
스 라일리와의 인터뷰를 포함해 이번 호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 소개하고 있다.

뉴욕근대미술관(MoMA)-설계 : 타니구찌(谷口) 건축설계연구소

뉴욕의 근대미술관은 1929년에 오픈한 세계 최
초의 근대미술관으로 개관한 이래 컬렉션을 늘려
가면서 시설의 개수와 확장을 반복해 왔다. 그리
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된다. '앞으로도 계속 그 시대, 즉 현대의 미
술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것을 계속해 갈 것인가',
아니면 '20세기까지의 미술관으로 한정하여 앞으
로는 봉인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것
이다. 이는 '근대 미술'이라는 용어의 이중성에 그
문제의 시발점이 있다. 미술관이 개관하던 시기인



뉴욕근대미술관

1930년대 당시의 Modern Art(현대미술)는 이제
'고전적 근대'의 미술이 되어 버렸으며, 모던아트
는 더 이상 현대미술을 칭하는 단어로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체성에 있어서 LA현대미술관
(MoCA)과는 달리 남다른 고민을 근대미술관의 태
두인 MoMA는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같
은 고민과 맞물려 '계속 맨해튼의 중심에 남아 있
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새롭게 넓은 부지
를 확보하여 이전할 것인가'라는 결정 또한 내려
야 했다. 결론은 앞으로도 계속 현대 미술품을 모
아갈 것이며, 따라서 시설 또한 확장하되 뉴욕의
현 미술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었
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1996년의
일이다.

이와 같은 확장계획은 기존 미술관의 인근에 있
던 도세트호텔을 매수하면서 새로이 확보된 부지
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결국 미술관의 대부분을
새로이 재정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
확장 프로젝트는 총 10명의 건축사를 선정하여
'샬렛'이라는 형식의 아이디어 공모를 행했다. 그
리고 여기서 선정된 3명의 건축사는 버나드 추미,
헤르조그 앤 드 뮐롱 그리고 최종 당선된 타니구
찌였다.

본래 MoMA는 그간 여러차례의 확장을 거듭해
왔다. MoMA의 설립기인 1930년대로 거슬러 올
라가 보면 고층빌딩과 상업건물이 즐비한 가운데
에서도 뉴욕의 6번가와 5번가 사이의 블록은 모두
주거용 건물이었다. 이들은 '브라운 스톤'이라 불
렸는데, 주로 4층 건물에 중정을 지닌 형태였으며,
맨해튼의 9할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 중 4개
의 브라운 스톤이 최초의 MoMA였던 것이다.
1939년 필립 굿윈/에드워드 뒤셀 스톤 옆에 필립
존슨에 의한 증축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시저 펠
리에 의해 '뮤지엄 타워' 및 조각공원 옆의 '가든
홀'이 완성되었다. 이들은 열핏 복잡해 보이는 건
물구성처럼 보이지만 매우 단순한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오픈 스페이스를 중
심으로 그 주변에 건물들이 둘러싸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MoMA가 바랬던 이번 증축안은 기존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었다. 신·구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구했던 것이다. 살렛을 통해 선별된 3명의 건축사(츄미, 헤르조그 앤 드 므롱, 타니구찌)는 이와 같은 MoMA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타니구찌의 설계안은 그야말로 '근대적'이다. 그의 건축적 어휘와 공간은 고전적 모더니즘의 건축의 모습을 농후하게 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매우 보수적이면서도 온건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 관한 건축계의 비평은 여러 가지로 갈렸다. 그 중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비평가들의 관점은 건물이 너무나도 평범하며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MoMA 관계자들은 타니구찌의 설계를 보고 'MoMA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타니구찌는 5개의 건물이 복합된 형태의 기존 MoMA건물의 특징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 특히 53번가에 면한 입면은 기존의 입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MoMA에 축적되어온 시간의 층들을 남겨두고 싶었던 것이다. 반면 조각공원이 면한 54번가의 입면은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여 일체화된 시설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였다. 내부 공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MoMA가 면하고 있는 53번가와 54번가의 두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비를 건물을 관통시키며 배치한 것이다. 이 같은 공용부분의 조정 이외에도 타니구찌는 무미건조했던 MoMA의 건물에 '건축적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기존의 건물은 회색의 카펫이 깔리고 백색의 벽과 천정을 가진, 창도, 천창도 없는 상자와 같은 것이었다. 타니구찌의 설계 또한 백색의 평탄한 벽체들로 이루어진 지극히 근대주의적 어휘를 지니고 있지만 공간의 풍부함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못지않다. 거대한 창을 통해 도심의 경관을 바라볼 수도 있고, 브릿지를 오고 가며 미술관의 역동적인 공간을 체험할 수도 있으며, 빛과 거대한 벽체가 연출해 내는 역동적인 공간드라마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설계경기에서 최종적으로 타니구찌의 안이 당선되었을 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비평가들도 정작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그 건축적 질의 우수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면 때문일 것이다. 겉보기에 평이하고, 조금 과격히 말하면 진부한 건축이기도 한 타니구찌의 설계안은 MoMA관계자의 말대로 MoMA의 성격과 입장을 잘 수용하고 발전시킨 가장 최적의 안이었던 지도 모른다.

‘그린 그린’(일본 아일랜드시티 중앙공원 중핵시설)–설계 : 이토오 토요 건축설계사무소

아일랜드시티 중앙공원은 후쿠오카시 히가시구(東區)에 조성되고 있는 인공섬인 아일랜드 시티내에 마련된 1.53ha에 달하는 공원이다. 아일랜드 시티는 완성시에 400ha에 이르는 규모로, 이 곳엔 도시계획에 의해 중앙공원과 길이 1.7km의 그린벨트가 계획되어 있다. ‘그린 그린’은 이 중앙공원의 중핵시설로서, 아일랜드 시티에 최초로 완공된 건물이기도 하다. 평탄한 인공의 대지위에 인위적으로 작은 언덕을 만들어 낸 이 건물은 소위 ‘그린 아키텍처’의 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릴 만한 것이다. 콘크리트의 셸구조로 된 이 건물은 옥상녹화를 하여 녹음이 뒤덮인 작은 언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지붕 구조물 중 비교적 경사가 강하여 토양을 정착시킬 수 없는 부분은 담쟁이 식물들로 뒤덮일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그러나 건물의 외관은 그다지 바라보기에 편안하지만은 않다. 어찌 보면 몸을 뒤돌어 가며 들판을 기어

가는 거대한 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지붕이자 건물의 거의 전부를 할 수 있는 콘크리트 셸구조를 만드는 것은 그다지 간단치가 않았다. 셸의 곡률이 시시각각 변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설계자인 이토오는 지붕구조물의 거꾸집과 배근이 끝났을 때 지붕에 올라가 본 후 거꾸집과 배근의 정교함에 감탄하여 ‘콘크리트를 붓지 않고 저대로 두었으면’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거꾸집 중 정교한 손길을 요하는 곳은 가구를 만드는 장인이 작업했으며, 복잡한 3차원 곡면의 배근은 배근공이 직접 컴퓨터로 3차원 배근도를 그려가며 작업했다고 한다.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직능인상(像)이 만들어지는 모습인 것이다. 건물의 내부는 대부분 온실로 사용되고, 그 밖에 회합장, 식당, 휴식공간 및 약간의 사무공간 등이 들어서게 된다. 녹색의 털옷을 걸친 이 콘크리트 덩어리에 대한 평가는 공원이 오픈하게 되는 2009년 이후로 미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린 그린’(일본 아일랜드시티 중앙공원 중핵시설)

이번 호의 특집은 '초고층건축(Tall Building)'이다. 미국적 건축형식의 상징으로 여겨



졌던 초고층 건물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최근 아시아 및 중동의 각국에서 앞다투어 건설함으로써 그 중심의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세기동안의 초고층건축의 흐름을 정리한 안드레 레픽(Andres Lepik)의 에세이와 함께 새로운 초고층건축의 타이폴로지 형성을 예고하는 다양한 고층건물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적 산물이었던 초고층건축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빌딩에 가해진 테러 공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초고층 건물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종언(終焉)을 고하는 것으로 비쳐졌는지 모른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 빌딩타입은 그 높이에 대한 기록을 계속 갈아 치워왔다. 그리고 그 기록은 1990년대에 이르기 전, 그러니까 약 1세기동안 모두 미국에서 수립되어왔다. 이 같은 과정에서 20세기의 초고층건물은 경제력과 기술력을 표상하는 상징적 건축형태로서 그 지위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구조와 기술의 모든 것이 미국에서 발전해왔다는 점, 그리고 20세기 말까지의 모든 최고 높이의 기록을 미국이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 이 빌딩타입은 미국의 건축적 심벌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던 것이다.

미노루 야마사키에 의해 설계된 세계무역센터빌딩은 좀 특수한 케이스였다. 시카고의 시

어즈타워가 완성되기 전의 약 2년간(1972~1974년)의 기간이긴 했지만 '세계 최고(最高)의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인들이나 건축비평가들에게 그다지 인기 있는 건물을 아니었지만 분명 미국이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무역센터의 붕괴 이후 이 빌딩타입의 더 이상의 발전에 대한 중지부를 찍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논리를 넘어선 것이었다. 현대의 바벨탑이 사람의 손에 의해 붕괴되고, 높이에 대한 기록 경신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이 지니는 위험성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붕괴 직후 일어난 재건의 노력에서 나타난 초고층 건축의 태생적 특성,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의 등불로서의 성격이 실제로 이 건축이 얼마나 위약한 것인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보다 더 강력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2002년에 이루어진 그라운드 제로의 재건을 위한 현상설계에서 리처드 마이어, 유나이티드 아키텍츠 그룹 그리고 SOM은 초고층 건축의 장래의 발전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의 디자인은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서로 얽혀진 타워 밴드에 의해 매우 견고한 구조를 지닌 것이었다. 또한 그 높이도 대폭 낮추어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고 조용히 그 자태를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초고층 건물이 지니고 있는 유전자적인 추진력이기도 한 근원적 원동력을 상실한 것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초고층 건물의 발전의 역사에 조화를 이룬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디자인에 손을 들어 주었다. 국가적 심벌의 붕괴는 더욱 강한 심벌에 의해 복원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리베스킨트는 높이 541m의 프리덤타워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뉴욕이 세계 최고의 건물의 타이틀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약속했다. 9.11의 비극은 이 같은 기록에 대한 보상으로 지워져갈 듯이 보였다. 리베스킨트에 의한 디자인은 차지권자인 래리 실버스타인이 그가 신뢰하는 건축사 베이빗 찰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면서 대폭 수정되어 상징적인 높이에 대한 기록만이 남게 되었다. 프리덤 타워의 최종적 형태

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즈음, 시카고에서 세계최고의 건물에 대한 도전자가 나타났다. 2005년 7월 부동산개발회사인 포덤컴퍼니(Fordham Company)가 높이 444m의 115층 건물의 건축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최상부에 설치된 안테나부분을 포함하면 609m라는 획기적인 높이에 달하는 것이었다. 스페인의 건축가 산티아고 카스트라바에 의한 이 디자인은 초고층 건물의 라이벌이었던 미국 내 두 도시인 뉴욕과 시카고를 다시금 높이에 대한 국제적 경쟁무대에 올려놓게 되었다.

밀레니엄을 향하여

세계무역센터와 시어즈타워가 완성된 1970년대 초에는 '세계최고의 건물'에 대한 기록 경쟁은 끝을 맺는 것처럼 보였다. 세계적인 석유 파동을 겪은 후 단순히 기록 갱신만을 위한 높이에 대한 도전은 경제적 측면에서나 환경적 측면에서나 이미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 고층건물의 형식은 노먼 포스터의 '홍콩상하이뱅크본사(1986년)'나 I.M.페이에 의한 '중국은행(1990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구조적 혹은 건축적 컨셉에 의해 풍부함을 더해가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새로운 국제적 경쟁의 전조이기도 했다.

밀레니엄의 전환을 맞이 1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대한 경쟁이 다시금 일어났던 것이다. 1988년 시카고에서 발표된 '미글란-베이틀러 타워'는 완성되면 609m에 이를 예정이었다. 이보다 더 잘 알려진 1989년 노먼 포스터에 의해 디자인된 도쿄의 '밀레니엄타워'는 높이 840m라는 경이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도쿄만에 계획된 이 거대한 구조물은 최대 인구 6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수직도시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노먼 포스터가 영국 런던에 계획한 훨씬 작은 규모의 '밀레니엄타워'와 마찬가지로 결국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장 누벨은 파리의 라 데팡스 지구에 '무한의 탑'을 세울 계획을 세웠다. 높이 420m의 이 건물은 완성된다면 유럽 최고의 건물이 될 것이었다. 호주에서는 1995년 투자가

브루노 그로로가 헤리 사이들러의 설계에 의한 높이 495m의 타워를 멜버른에 세울 계획을 발표했다. 1년 후인 1996년 건축사무소인 '퓨처 시스템'은 '그린 버드'라 칭한 높이 442m의 타워를 제안하였으며, 1998년 SOM에 의해 발표된 시카고의 '7 사우스 디어본 프로젝트'도 609m(2,000피트)에 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1990년대의 경제후퇴국면의 희생자가 되었다.

아시아의 대두

밀레니엄을 기다릴 것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기록은 처음으로 북미 이외의 지역에 있는 건물 손에 쥐어졌다. 1998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452m의 높이를 갖는 '페트로나스 타워'가 준공되었다. 이어서 또 하나의 기록이 상하이의 '진마오 타워(1999년)'에 의해 세워졌다. 높이 421m의 이 건물은 세계기록을 갱신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본토내의 최고의 건물이 되었으며, 이 높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2004년에는 대만의 '타이페이101' 빌딩이 현재의 세계기록인 508m를 수립하였다. KPF가 디자인한 '상하이세계무역센터'는 1997년에 착공했다. 1990년대의 경제위기 속에서 건설은 중단되었으나 새로운 투자자가 매입하여 건설이 재개되었다. 계획대로 2007년에 완성되면 492m에 달하는 이 건물은 세계 3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상위 10위 이내에는 수 년 내에 432m의 높이를 갖는 중국 남부 광저우에 계획된 '웨스트 타워 프로젝트'가 등장할 예정이다.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국가들이 초고층 건물이라는 빌딩타입에 있어서 급속도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나아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빌딩타입의 구상과 계획이 경제적인 힘을 표상하고자 하는 욕구와 얼마나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시아 제국(諸國)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 건축의 형식은 이들 지역의 표상

을 요구하는 의식과 합치를 이룬 것이다. 초고층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그 기본계획 단계에서 수익성이 중시된 적은 거의 없다. 되돌아보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나 세계무역센터빌딩과 같은 유명한 역사적 프로젝트도, 계획은 경제부의 정점에서 이루어졌으나 완성기에는 경제의 쇠퇴국면을 맞아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내지 못했던 것이다.

새로운 기록 갱신과 함께 197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초고층 건물에 대한 기술적 한계는 현재 다른 국가들에서 차례차례로 극복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명백해 졌다. 초고층건물은 이미 전 세계에 보급되어 가고 있었지만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일반적으로 미국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의하여 초고층 건물은 전지구적(全地球的)건물의 형태가 되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세워지는 초고층 건물의 설계가 이미 고층건축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명설계사무소, 즉 시카고나 뉴욕의 시저 펠리, SOM, KPF 혹은 런던의 노먼 포스터에 의해 지금도 그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세계화의 분위기 속에서 마치고 급승용차를 구입할 때와 마

찬가지로 초고층 건물이 어디서 계획되어 건설되는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누가 다음 기록을 세울 것인가이다.

유럽은 어떠한가?

아시아와 아랍의 각국들이 초고층 건물의 경쟁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이와 같은 국제적 경쟁에서 결코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다. 현재의 '공식적인 세계200대 초고층 건물'의 리스트에 의하면 서유럽에서 가장 상위에 랭크된 것은 76위인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있는 '코메르츠뱅크' 빌딩이다. 이 같은 현상의 기본적인 원인은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유럽의 도시와 역사의 상황에 있다. 국제적인 모더니스트에 의한 독립적인 작업을 제외하고는 유럽에선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전통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



터닝 토르소 타워

이다. 유일하게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과 런던 정도가 서로가네 라이벌이 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전제가 되는 스카이라인이 조금씩 발전해 왔던 것이다.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높이 258m의 '코메르츠방크'에 의해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은 1997년 유럽 최고의 고층 건물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 타이틀은 모스크바의 '트라이엄프 팰리스(264m)'로 넘겨질 것이며, 다시 같은 도시에서 근년 건설이 시작된 높이 340m의 '페더레이션 타워'에게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완성 이전에는 렌조 피아노에 의한 높이 306m의 런던 브릿지 타워가 잠시 타이틀을 런던에 가져다 줄 것이다.

이처럼 유럽은 높이를 겨루는 국제적인 경쟁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는 근년 개발되어 실현된 고층건물에 대한 흥미로운 컨셉들이 존재한다. 최근(2005년) 완성된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에 의한 수웨덴 말뫼(Malmö)시의 높이 190m의 '터닝 토르소 타워'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먼트이다. 이 건물이 지니



장 누벨의 도하 타워

는 나선상의 형태는 이제껏 정적인 이미지였던 초고층 건축의 형태에 다이내미즘을 불어넣었다. 한편 구조적으로는 서로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형태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지닌 프로젝트가 최근 런던에 준공한 '30센트 메리 엑스(스위스재보험회사본사, 노먼 포스터 설계, 180m, 2004년 준공)'와 바르셀로나의 '아그바 타워(장 누벨 설계, 142m, 2005년)'이다. 30센트 메리 엑스는 그물 형상의 스틸 구조를 유리 파사드 내측에 배치하였고, 아그바 타워는 복잡한 형태의 콘크리트 외피로 지지하면서 그 외측에 제2의 표층이 되는 유리외피를 덧씌웠다. 두 건물 모두 이 같은 특수한 구조 덕분에 내부에서는 방해되는 사물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플렉서블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건물 파사드의 조작은 KPR가 설계한 런던의 '비숍스게이트 타워(2005년~)'이나 장 누벨의 도하 타워(카타르, 도하, 2002년~) 등에서 더욱 새로운 시도들은 엿볼 수 있다.

끝나지 않는 '세계 최고(最高)'에 대한 경쟁

9.11테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환경적 혹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등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초고층건축은 21세기의 시작에 있어서도 여전히 활력을 띠고 있는 빌딩타입이

다. 이제 초고층건축은 미국의 산물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타이페이101'에서는 최초로 이 빌딩타입을 국가적 전통과 연결지려는 시도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도 초고층건축의 기본적인 개념은 중대한 장래의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하늘을 향해 바늘처럼 솟은' 고전적인 형태가 새로운 컨셉에 의해 바뀔지라도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대한 개념은 의심할 여지없이 초고층 건물의 발전에 대한 원동력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비숍스게이트 타워